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가톨릭신자들의 죽음불안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윤 미

2018년 8월

가톨릭신자들의 죽음불안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지도교수 김 성 봉

김 윤 미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김윤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년 8월

감사의 글

대학원에 진학하여 심리상담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역량 강화, 그리고 논문연구 작업과정은 에벤 에제르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이뤄졌습니다. 유년 시절 죽음에 대한 체험과 스크루지 연극 활동, 자연스런 죽음의 사색적 탐구와 이 논문을 연구하기 위해 내·외적으로 미리 준비시켜 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먼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김만철 선생님, 박향섭 여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막내딸을 향한 부모님의 든든한 조력과 애뜻한 마음은 지금의 저로 당당히 서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준 가족들과, 대학원생으로서의 능동적 태도뿐만 아니라 삶의 복잡다단한 것까지 함께 해준 절친 임순희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논문을 시작하고 마무리하기까지 여러 다양한 관점에서 폭넓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셨던 김성봉 지도교수님과 최보영 교수님, 박정환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담자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대학원 면접 질문과 더불어 5학기 석사학위과정,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완성하면서 존재론적 삶과 죽음의 의미, 종교적 인간으로서의 죽음불안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논문을 위해 관대한 마음으로 연구에 협조해 주셨던 8명의 연구참여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신부님, 수녀님, 동문분당 공동체와 지인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평신도 희년에 이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음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무엇보다 부족한 저를 통해 당신의 일을 계속 하시는 좋으신 삼위일체 하느님 아빠, 아버지께 ‘가톨릭 신자들의 죽음불안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논문을 바칩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느님 그분은 전부이시다(집회 43, 27).

<국 문 초 록>

가톨릭신자들의 죽음불안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김 윤 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는 가톨릭신자들의 죽음불안 경험의 탐색을 목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의 독특한 주관적 생활세계의 복합적 현실의 맥락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질문은 ‘가톨릭신자들의 죽음불안 경험은 어떠한가?’ 이다. 의도적 표집을 통해 선정된 연구참여자들은 죽음불안 경험이 있는 50~60세로 총 8명이었으며, 제주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참여자들로서 이들은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하고 심층면담에 임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 중순까지 약 4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연구자는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면담내용은 녹취되어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참여자 경험의 보편적인 본질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채택하였다.

연구 결과 53개의 의미형성과 21개의 하위범주(주제), 그리고 10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도출된 10개의 범주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불안들과 대면’, ‘세상일과 나 자신에 올 인(all in)하며...’, ‘죽음의 망각에서 인지(認知)로의 탈바꿈’, ‘새 인간간의 형상으로 변모’, ‘나, 타인, 그리고 하느님은 하나’, ‘종교적 삶: 감사와 위로의 시간’, ‘죽음에 대한 자기 개방성의 확대’, ‘고통은 나를 성장시키는 디딤돌’,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나, 하느님의 도구이자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이다.

죽음불안 경험이 있는 가톨릭신자들의 내용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톨릭신자들은 죽음 직면 시 죽음에 대한 불안은 종교성과 상관없이 심리적 반응 뿐만 아니라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신적 혼란감이 나타났다. 이러한 존재의 사라짐을 예고하는 죽음 직면 경험은 그동안 자신들의 죽음관이 부정적이었으며 죽음을 삶의 일부로 수용하지 못하고 기피하거나 망각한 채 살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죽음 직면 사건으로 그들의 내면 안의 장애물과 한계들을 대면하면서 현 시대의 삶의 양식, 죽음문화에 습득되다보니 기복신앙에 빠진 신앙행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불안이라는 부정적인 경험은 오히려 참여자들에게 삶(신앙)의 변화를 가져왔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하느님과 나, 그리고 가족, 타인, 공동체와의 유대감이 ‘우리’라는 정체성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더 나아가 이 연구의 최종적인 단계에서 ‘죽음불안 경험 모델’을 도출하였다. 이것은 그 구조 안에 죽음불안의 본질을 담고 있으며 긍정적 효과에 도달하기까지의 죽음불안 경험의 전체 과정을 시각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하느님의 도우심(자비)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새 인간의 형상으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나**’는 하느님 안에서의 강한 변화의지를 통해 온전한 자기(self)로 변모되어 나아간다.

본 연구는 가톨릭신자들의 죽음불안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조건과 맥락들을 살펴봄으로써 참여자들의 죽음불안 경험을 확인하였다. 이에 죽음사건으로 말미암은 죽음불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대의 신앙인들에게 죽음불안에 대한 이해와 가톨릭신자들의 영적 본래성을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실존주의 심리치료(상담)과 영성상담을 접목한 죽음불안 교육의 필요성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 존재가 지닌 고유한 현상으로서의 보편성을 띤 죽음불안에 대한 실존적 자각을 위한 방안으로 죽음불안 체험자와의 소그룹 나눔을 제안한다.

주요어 : 죽음불안, 실존주의 심리치료, 영성, 질적 연구, 현상학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4
3. 용어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7
1. 죽음에 대한 일반적 이해	7
1) 통속적 죽음 이해	8
2) 생물학적 죽음 이해	10
3) 의학적 죽음 이해	11
4) 심리학적 죽음 이해	12
2. 죽음에 대한 철학적 이해	13
1) 고대 철학	14
2) 중세 및 근세 철학	15
3) 실존 철학	16
3. 비그리스도교(타종교)의 죽음이해	17
1) 유교	18
2) 도교	20
3) 불교	21
4. 그리스도교의 죽음 이해	22
1) 죽음의 성경적 이해	23
2) 예수의 죽음 이해	26
5. 죽음불안에 대한 이해	29
1) 죽음불안에 대한 배경	29
2) 죽음불안에 관한 선행연구	31

6. 실존주의 심리치료 이해	33
1) Yalom의 실존주의 심리치료의 이해	36
2) Yalom의 죽음불안 개념	43
3) 죽음: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경험	48
7. 그리스도교의 영성 이해	51
1) 영성의 개념 이해	52
2) 성경에 나타난 영성 이해	54
3) 그리스도교 영성의 역사적 고찰	56
4) 현대 그리스도교 영성 이해	59
5) 영성적 인간 이해	62
Ⅲ. 연구방법	65
1. 현상학적 질적 연구	65
2. 질적 연구 설계	67
1) 연구자의 준비 및 연구참여자 윤리적 고려	67
2) 연구참여자 선정	68
3) 자료 수집방법	76
4)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자료분석 방법	79
5) 연구의 엄격성 및 연구 평가	81
Ⅳ. 연구결과	83
1. 연구 결과 서술	83
범주 1. 눈에 보이지 않은 불안들과 대면	86
범주 2. 세상일과 나 자신에 올 인(all in)하며... ..	97
범주 3. 죽음의 망각에서 인지(認知)로의 탈바꿈	102
범주 4. 새 인간의 형상으로 변모	106
범주 5. 나, 타인, 그리고 하느님은 하나	110
범주 6. 종교적 삶: 감사와 위로의 시간	116

범주 7. 죽음에 대한 자기 개방성의 확대	124
범주 8. 고통은 나를 성장시키는 디딤돌	129
범주 9.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136
범주 10. 나, 하느님의 도구이자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	140
V. 논의	148
1. 결과에 대한 논의	149
2. 결론	155
3. 연구의 의의 및 제언	158
[참고문헌]	160
[Abstract]	181
[부록] 연구 참여 동의서	184

표 목 차

<표 1> 연구 참여자 인적사항	69
<표 2> 연구결과: 범주, 주제, 주요 진술로 형성된 의미(개념)	84

그림 목 차

<그림 1> 죽음불안 경험 모델	153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어제는 그의 차례요, 오늘은 네 차례다(집회 38, 22).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필연성이 내포된 죽음사건은 죽어야 될 그의 운명을 돌이켜 보면 네 운명도 그와 같다는 사실이다. 태고 적부터 인간에게 있어서 이러한 죽음은 절대적인 것으로 피해갈 수 없고(신승환, 2013; 윤종식, 2013; 정달용, 1980; 정성호, 2011; 홍경자, 2013; Doka, 1993/2006; Yalom, 1980/2007) 인간은 순간순간 죽음이라는 숙명적인 사건으로 나아가는 존재이다(구인회, 2003; 김정우, 2002).

그래서 고대 희랍인들은 인간은 죽어야 할 존재, Augustinus는 그의 「고백록」에서 인간은 출산에서부터 죽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이 과정이 끝나는 순간이 죽음이다. Heidegger 또한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을 죽음으로 향한 존재로 규정해 왔다는 것은, 인간존재는 인류역사의 시초부터 유일회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으므로 죽음의 불가피성(정재현, 2009; 조규만, 1997)에 대해 끊임없이 언급하였다. Karl Rahner도 오히려 죽음이 있기에 삶은 곧 의미와 가치(김정우, 2002)를 지닌 자기비움(kenosis)으로서의 죽음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인간은 죽는다.’라는 명제(홍진국, 2010)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다. 같은 사회, 같은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라 해도 죽음을 인식하는 방법은 의식구조와 생활양식 또는 종교적인 배경에 따라 다르다(이영순, 2010; 정성호, 2011).

한편 도교, 불교, 유교, 거기에도 그리스도교 요소까지 가미된 다양한 종교적 문화의 혼재, 상호보완이 내재되어 있는 한국 사회(우재명, 2007; 윤종식, 2013)에서 가톨릭신자로서 죽음불안 사건이라는 한계상황에 직면했을 때 전통종교와는 다른 종교적 인간으로서의 실존적 위기 체험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종교성의 강도와 죽음불안 정도와의 관계를 연구

한 결과들(William & Cole, 1968; Feifel & Branscomb, 1973; Kalish & Reynolds, 1976; Wagner & Lorion, 1984)을 보면 종교적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낮은 죽음불안 정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기 때문이다(조지연에서 재인용, 1989). Ward(1979/1983)도 신앙심은 죽음에 관한 태도와 복합적인 관계를 지니는데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보다 낮은 죽음의 불안을 표현한다고 했다(Ward, 1979/1983; 노은숙, 2009).

그러나 인간은 종교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라도 죽음을 비켜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도 가지게 되는데(김경자, 1993) 최근 영국 코번트리대학 국제공동연구팀에 따르면 신자와 무신론자 간 죽음불안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연합뉴스, 2017). 즉 죽음에 대한 공포는 종교적 믿음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두려운 사건임에는 틀림없다(황창연, 2016)는 말이다.

또한 종교적 신앙을 가진 많은 이들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여전히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을 지니고 있으며 심지어 나이가 많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주제에 대하여 불편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박선희, 2010; 박소윤, 2017).

더 나아가 인간 존재의 유한성에 따른 죽음공포와 죽음불안(두려움)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Kübler-Ross의 말처럼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보기에 부정적인 면이 많다(우재명, 2007)는 사실에 죽음 자체를 상대화시키기도 한다. 이 같은 현상은 삶의 과정에서 언제나 동반하는 삶의 내재적 한계로서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홍경자, 2013).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에 절대자를 개입시키려 하지 않은 한국의 전통종교는, 그리스도교의 죽음이해와 생명현상 작용을 달리(김교빈, 2006; 김정우, 1982; 양지훈, 2017; 우재명, 2007; 윤호진, 1997; 홍진국, 2010)하므로 가톨릭신자만을 대상으로 예기치 않은 죽음직면 상태에서 그들의 죽음불안 경험은 어떠한가에 관한 연구 질문에 초점을 맞추었다.

인간은 삶든 죽든 간에 누구나 죽음을 마주하게 된다. 실존의 인간은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유한성(김창수, 2013)과 오직 개별적인 인간이 자신의 죽음과의 관계, 즉 절박하게 다가오는 삶의 종말로서의 죽음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파악(홍경자, 2013)하기 위해 죽음과 관련된 연구들은 연령, 성별, 종교성, 건강, 성격 등 다각적으로 모색되었다.

먼저 죽음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죽음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가 사회조사연구로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죽음태도와 이와 연관된 요인 간 패턴을 밝히는 연구(이지영, 2004)였다. 죽음불안 역시 노인과 관련된 연구(곽지애, 2016)들이 주를 이루었다.

더 개괄적으로 나열하자면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불안과 삶의 의미수준, 자기초월, 영적안녕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김순이, 이정인, 2013; 조지연, 1989; 한미정, 최정윤, 1999), 자아통합과 내재적 종교정향에 따른 죽음불안, 그리고 죽음공포·죽음수용에 미치는 영향, 죽음불안 및 생활만족 관계에 대한 연구(고종향, 2015; 김경자, 1993; 김은지, 2005; 노은숙, 2009; 송병숙, 2012; 장희숙, 최영임, 2007), 죽음불안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박경은 등, 2013; 박선애, 허준수, 2012), 사회적·심리 정서적 요인이 죽음 불안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김귀분, 최연주, 2014), 영성, 사회적지지, 우울이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윤현숙 등, 2015)들이 있었다.

또한 호스피스, 암 병동 간호사의 죽음불안 및 임종간호태도 연구(김성자, 2015; 홍은미 등, 2013)와 죽음준비 및 교육이 죽음불안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김웅지, 2017; 이영순, 2010; 임송자, 2012)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죽음불안과 관련된 기존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관한 연구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김연숙 등, 2009; 이예종, 2005; 최외선, 2007). 이와 같은 이유는 죽음을 표현하기를 꺼려하는 혹은 의식적으로 억제하여 잠재되어 있는 죽음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도출하기 어렵다(이지영, 2004)는 것과 죽음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속성 때문이다(이영화, 1997).

한편 죽음 인식과 불안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참여자가 노인이었으며 종교관 또한 다양하게 시도되었다(서현미, 2013; 이지영, 2004). 김대동(2005)의 연구에서는 죽음 직면자들의 의식변화와 자신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취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대상자들 또한 다양하였다(김대동, 2005). 그러나 가톨릭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죽음불안 현상학적 선행 연구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죽음불안은 인간 존재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경험되는 삶의 필연적인 종말이자 정지(고종향, 2015; 신은주, 2011)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 가톨릭

교회는 신자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교적 죽음관 정립 교육을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죽음의 신학적 성찰, 죽음의 식과 이해, 장례예식에 대한 고찰 연구가 많이 있어 왔으나 실제로 신자들이 실존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존재의 소멸에 따른 엄청난 고통 그리고 죽음직면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가 미진하였음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단 한 사람도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죽음은 홀로 직면해야 하는 단독자로서의 존재이다. 냉정한 진실인 죽음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 죽음으로부터 엄청난 기쁨의 원천을 발견하라는 것은 정말 큰 도전이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크기 때문에 이성적 인간이자 종교적 인간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가톨릭신자들의 예고 없는 죽음불안 현상은 어떠한가를 그들만의 시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죽음불안을 경험한 가톨릭신자들의 독특한 주관적 생활세계의 복잡성을 드러내며 그 경험의 본질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 질문의 탐색에 적합한 조사방법인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가톨릭신자들의 죽음불안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조건과 맥락들이 어떠한 현상으로 드러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조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톨릭신자들의 죽음불안 경험은 어떠한가? 이다.

본 연구의 기대성과는 가톨릭신자들의 죽음관 재정립과 실존주의 심리치료와 접목한 영성상담을 바탕으로 신자들의 죽음불안 교육을 실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가톨릭신자들이 죽음불안 체험으로 인한 영적 고립과 영적 합리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자적 관점을 산출하는 것으로 연구의 함의를 갖는다.

3. 용어 정의

본 연구의 주제는 학위논문 수행 이전부터 그리고 수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탐구, 검토되어지고 사용된 주요 용어들을 아래 내용으로 정의하였다.

1) 죽음 불안(Death anxiety)

존재의 소멸(Greenberg, Pyszczynski, Solomon, Simon, & Breus, 1994)과 관련이 있는 죽음불안은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생성되는 불안을 개념화한 용어(Abdel-Khalek, 2005)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죽음에 대한 불안(fear of death)은 ‘죽음에 대한 혐오’, ‘죽음의 기피’, ‘죽음의 수용’, ‘죽음의 부정’, ‘죽음의 분노’ 등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Templer, 1970). 좁은 의미에서 죽음불안은 존재의 정지에서 오는 두려움과 죽어가는 과정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즉 죽음불안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사건과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인간이 보이는 불안, 혐오감, 파멸감, 거부, 부정 등의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심리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서혜경, 2009; 이예중, 2005).

2) 실존주의 심리치료(Existential psychotherapy)

실존주의 심리치료는 실존주의 철학과 심리치료가 결합(윤영선, 2013)된 것으로 Kierkegaard에서 Sartre로 이어지는 인간 존재의 실존을 문제 삼는다(우미리, 2014). 개인의 상호 관계성과 실존적 불확실성, 실존적 불안은 실존주의 심리치료의 기본원리(Spinelli, 2007)이며 또한 실존주의 심리치료는 인간을 무의식적 동기나 외적 환경의 희생물이 아닌 자유롭게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가정하고 자유, 선택, 결정, 책임의 과정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계속적으로 자아실현을 이룩하는 존재로 본다(김홍용, 2000).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실존주의 철학을 적용하여 실존주의 심리치료를 주창한 인물로는 Ludwig Binswanger, Medard Boss, Victor Frankl, Rollo May, Irvin Yalom 등이 있다(안남희, 2016).

3) 영성(Spirituality)

‘영성’(靈性, spirituality)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스피리투스’(spiritus)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으로 숨, 호흡, 입김이나 대기 중에 있는 공기 또는 산들산들 부는 미풍을 의미한다. 또한 생명, 생명의 숨을 의미하기도 하고 신의 숨이란 의미가 있어 그것을 받는 것을 영감(靈感, inspiration)이라고 한다. 그리스어의 프뉴마(πνευμα)도 라틴어의 스피리투스와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숨, 바람,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뿜는 것, 기운, 목숨, 생명, 영혼 등으로서 인격체의 일부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한국가톨릭대사전 제9권, 2002; 유기영, 2004; 윤창신, 2008). 이 단어의 명사형인 ‘스피리투알리타스’(spiritualitas)는 5세기 경 위(僞) 예로니모 서간에 처음 등장한 이 ‘영성’이라는 용어는 이미 초세기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함의 핵심을 표시하는데 사용된 그리스도교적 단어였다(Josef Weismayer, 1996). 한편 영성(Spirituality)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그리스도교를 넘어서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영(spirit)을 ‘신의 속성’(what God is)에 입각하여 정의내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matter)에 반대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게 되면, ‘정신’을 뜻하기 때문이다(조옥진, 1996). 따라서 이 용어는 특정한 종교의 정신이나 사상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행위를 유발하는 그 어떤 태도나 정신으로서 구체화된 종교적 또는 윤리적인 가치를 총칭하기에, 모든 종교의 정신과 사상, 더 나아가서는 한 시대에 뛰어난 인물의 정신과 삶에도 적용되고 있다(유기영, 2004; Aumann, 1994).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이론적 검토는 죽음에 대한 일반적·철학적 이해, 비(非)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교의 죽음 이해, 죽음불안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본 연구와 밀접한 상관관계에 놓여 있는 실존주의 심리치료와 그리스도교의 영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죽음에 대한 일반적 이해

스피노자는 그의 「윤리학」에서 ‘인간이 죽음만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의 지혜는 삶에 대한 생각에 있지 죽음에 대한 생각에 있지는 않다.’라고 언명하였다. 이른바 합리적이니 자유롭느니 성숙한 따위의 형용구가 붙여지는 우리의 문화는 인간의 성적(性的) 영역을 미지의 것으로 하려는 터부는 깨뜨리면서 바로 그 터부를 죽음의 문제(Mondin, 1983/2001)로 옮겨 놓았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죽음에 대해 묻고 사후에 우리의 존재의 운명에 대해 묻는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 이유는 죽음이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살아간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것이므로 곧 죽음에 대한 이해는 삶에 대한 이해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자신과 우리 모두에 대해 말하고 있다(정동호 등, 2004; 홍진국, 2010; Mondin, 1983/2001; Yalom, 1980/2007).

우리들이 죽음에 대해 말할 때 가장 넓은 의미에서 ‘죽음’은 살아 있는 유기체에 있어서 생명과정의 중지를 의미한다. 철학적 그리고 일상적 용어법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죽음이란 영혼의 육체로부터의 분리이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생각함에 있어 죽음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설명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죽음의 개념은 죽음의 종류, 죽음이 일어나는 장소, 종교, 철학, 생활, 경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 다르고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연령이나 건강상태 또는 개인이 처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이다(김대동, 2005; Kalish, 1976; Mondin, 1983/2001).

따라서 죽음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려는 노력도 간단치 않을뿐더러 죽음이 무

엇인지 정의내리고 정확한 이해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죽음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다(주영일, 2013; 홍진국, 2010). 그러므로 여기서는 먼저 사람들이 통속적으로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고 생물학과 의학의 입장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죽음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고찰해보려고 한다.

1) 통속적 죽음 이해

죽음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인간이 질문해 왔던 문제이다. 인류가 죽음에 관해 최초로 질문했던 흔적을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인간에게 죽음이란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고대의 문헌이다. 옛 그리스인들의 죽음에 대한 안목은 누구든지 홀로 죽으며 대신 죽을 수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며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조규만, 1997; 정동섭, 1999; Heidegger, 1993).

한편 Weber는 일반 대중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조사 정리하여 네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죽음은 착각일 뿐 삶의 연장이다. 죽음이란 있을 수 없고 오직 또 다른 인생에의 전환을 의미하므로 죽음은 전이이지 결코 사멸이 아니라는 것이다(완전부정). 둘째,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이다. 인간이 죽음을 직면함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살아 있는 동안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라는 견해이다(완전승복). 셋째, 죽음은 삶의 설명이며 벌받음이다. 죽음과 신성을 연관하여 죽음은 현존의 최대 이유이며 현존으로부터의 해제이며 보상이므로 지금의 모든 불행도 죽음으로써 평등화되기 때문에 현존의 고달픔도 이겨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죽음은 생명의 단말마요 패배다. 죽음을 비극으로 보며 생존 시에 갈구하였던 모든 가치관이나 염원도 괴멸되고 마는 것이니 한마디로 죽음은 더할 데 없는 참사라는 견해다(정동섭, 1999; 홍진국, 2010).

이렇듯 죽음에 대한 태도는 여러 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죽음을 이해함에 있어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사람은 죽어도 그 영혼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존재하리라는 태도이다. 죽음으로써 인간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은 어떤 형태로든지

존재하여 삶을 이어간다고 보는 관점이다. 범신론자, 윤회론자 또는 어딘가 모르게 죽은 혼이 살아있어 산 사람들과 교류한다는 심령주의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배문한, 1980).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는 심령주의자들에게 영(넋)은 살아 있는 인간의 원동력이었다가 사람이 죽고 나면 육체를 떠나 독립적으로 그들만의 세계인 저승에 머물면서 이승의 인간 세계와 관계를 이루어나가는 불멸의 존재라고 볼 수 있다(박일영, 1999).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한국의 민간신앙은 이러한 태도가 표현된 결과인데, 죽는다는 것은 ‘돌아가심(to return)이다. 저세상으로 ‘건너감’이 아니라 원점으로서의 환원(return)이다. 불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철저한 현세 지향적인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죽는다는 것은 ‘돌아가심’이지 ‘사라짐’이 아니므로 자손들에게 있어 제사를 통한 조상의 추모는 예(禮)의 근간을 이룬다(김중은, 1980).

둘째, 죽음은 현실이며 그 이후에는 알 수 없다 라는 태도이다. 인간은 죽음 이후에는 알 수 없으며, 오직 확실한 것은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뿐이다.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불가지론자 혹은 무엇이든지 실험을 통해 증명해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실증주의자의 태도로서 사후의 영혼의 운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들은 죽음 이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무관심과 죽음의 공포나 고통 따위에 신경쓰기보다는 현실에 충실하라고 주장한다(배문한, 1980).

셋째, 죽음은 삶의 관문이라는 태도이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죽음 이후에는 보상과 벌이 따른다고 하였다. 이들은 죽음을 거부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여기며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김정우, 1982; 배문한, 1980)를 취한다. 이는 내세(來世)를 지향하는 종교, 특히 그리스도교적 관점으로서 그리스도교 문화가 뿌리내린 지역에서 죽음을 ‘스쳐감’ 또는 ‘사라져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감은 곧 하느님 곁으로 가서 사는 영생(永生)의 한 과정이자 단계를 뜻한다(김중은, 1980).

넷째, 죽음은 생명의 파괴요 삶의 패배라는 태도이다. 육체의 죽음은 모든 삶이 끝이며, 즉 생명의 소멸이다. 다른 동물과 다름없이 원소로 구성된 인간은 원소로 돌아가고 의식이나 정신작용은 물질의 부수현상에 불과하다는 유물론자가

이에 속한다. 죽음과 더불어 영원한 망각이 시작되며 허무로 돌아간다는 태도를 보인다(배문환, 1980).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죽음은 매우 부정적이고 삶에서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다. 현실 속에서 대면하게 되는 인간의 죽음을 객관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지닌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사랑했거나 소중했던 사람들과 더 이상 만나지 못하므로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두려운 것이고 생각하기조차 싫은 대상일 뿐이다(홍진국, 2010).

2) 생물학적 죽음 이해

생물학에서 말하는 생명현상이란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내의 원형질이 쉬지 않고 일으키는 연속적인 화학변화(이일구, 1972)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생명의 시작부터 유기체는 각종 조직과 세포로 분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죽음에 이르러 세포내의 연속적인 화학변화는 줄어들고 마침내 마지막 세포 하나가 완전히 부패하는 순간 생물학적으로 죽음은 완결된다(이을상, 2006). 다시 말해 죽음이란 생물체가 활동을 멈춘 상태로 물질과 에너지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된 상태로서 연속적인 화학변화의 중단, 곧 생명현상의 중단을 의미한다(김정우, 1982). 이렇듯 생물학에서 말하는 죽음은 세포 전체가 건강한 상태에서부터 생명현상의 정지에 이르는 점차적인 이행과정을 뜻한다(이영균 등, 1993).

그러나 죽음에 대한 생물학적인 견해는 의학적인 죽음이해와 상충된다. 죽음이 전 유기체의 죽음으로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 생물학적 견지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죽었다는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그 경계가 모호하다. 여기서는 삶과 죽음의 시각을 명백하게 구별할 수 없게 되고, 삶과 죽음이 혼재하는 모순된 시간을 거치게 된다(이을상, 2006). 따라서 의학은 죽음을 바라보는 생물학적 관점이 갖고 있는 여러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 죽음을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사건(event)으로 바라본다(홍진국, 2010).

3) 의학적 죽음 이해

의학적 죽음은 인간에 있어서 신체에 본질적인 모든 기능의 중단을 야기하도록 하되 반드시 영혼의 육체로부터의 분리를 초래하지는 않는 그러한 것이다(Mondin, 1983/2001). 의학적 측면에서 생명을 말할 때 호흡을 하고 심장이 뛰고 뇌가 건전하고 전 세포가 자기의 맡은 바 신진대사를 수행함으로써 한 유기체의 역할을 이행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반면 죽음은 일반적으로 호흡과 심장 박동이 정지되고 눈동자의 빛에 대한 반사현상이 소실된 상태(김정우, 1982)를 일컫는다.

의학적으로 죽음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죽음을 ‘소생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의 종말’이라고 규정하였고 UNVS(The United Nations Vital Statics Office)에서는 ‘삶을 의미하는 소견이 전혀 없는 영구적인 중언’이라고 하였다. 미국에서 뇌사(Brain Death)를 공인한 것은 1960년대이나 이것을 실제 적용한 것은 1970년대이다. 최근에 와서 공인되고 있는 사망 지침인 The Ad Hoc Committee of the Harvard Medical School to Examine the Definition of Brain Death(1968)에서도 죽음을 무반응(unresponsiveness) 무동작 및 무호흡(no spontaneous movements or breathing) 무반사(no reflexes) 일직선 뇌파의 상태(no electroencephalogram)로 정의했다(정정숙, 1993).

현재 의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심폐기능설과 뇌사설을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심폐소생술의 발달로 호흡이나 심장박동 등의 활력증상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기에 더 이상 심장이 멈추었다고 해서 사망했다고 정의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의학적 죽음을 판정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주영일, 2013).

또한 오늘날 새롭게 대두되는 것이 뇌사이다. 대뇌·소뇌·뇌간의 모든 기능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구인회, 임종식, 2003), 즉 유기체의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가능하게 해주는 통합기능의 상실은 죽음 판정에서 가장 핵심적이다. 뇌사가 곧 죽음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은 인간적 생명이란 생물학적 생명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들은 뇌기능이 파괴되고 정지된 사람을 이미 죽은 사람으로 본다. 하지만 뇌의 파괴가 호흡과 혈액순환의 정지를 일으켜 뇌사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공적인 기계 장치에 의해서 호흡이 가능하고 또 심장박동도 지속될 수 있기에 생명의 징후가 뚜렷하다. 따라서 뇌사가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에서도 아직까지 많은 논란(구인회, 임종식, 2003; 오진탁, 2006)의 여지가 있다. 현대 의학은 아직 인간이 맞이하는 죽음의 순간을 어느 시점에서 판정할 것인가 하는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다. 끊임없이 의학 기술이 진일보하고 최첨단의 기술이 주도하는 의료혁명의 중심에 서 있다하더라도 죽음은 극복할 수 없는 대상이며 넘어설 수 없는 한계로 남아 있다(주영일, 2013; 홍진국, 2010).

4) 심리학적 죽음 이해

S. Freud는 인간에게는 삶의 본능인 Eros와 함께 죽음의 본능인 Thanatos가 있다고 하였다. 이 Thanatos에서 죽음학이란 의미의 Thanatology라는 말이 나왔다(정동섭, 1999). 죽음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에 있어서 Freud는 인간이나 동물에게는 삶의 과정을 두 본능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투쟁으로 설명했다. 즉 삶의 본능은 유기체로 하여금 식욕을 충족시키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기아가 일으키는 긴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죽음의 본능은 생명이 없는 무생물의 상태로 유기체를 끌어당기는 것과 같이 인간의 삶은 두 본능 사이의 투쟁이다. 인간 삶의 원초로부터 이미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통일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어 무생물의 상태로 삶의 존재를 충동질하여 끌고 가므로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의미에서 죽음을 삶의 종착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Freud는 죽음은 최종적인 것이며, 곧 해당하는 유기체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정우, 1982).

반면 Freud의 추종자였던 Jung은 인간의 출생이 의미가 있듯이 죽음도 의미가 있다고 보았는데, 인생은 어떤 궁극에로의 준비로 보통 인간은 인생의 상승기를 거쳐 정상에 이르면 거기에 멈추어 서는데, 즉 자기실현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죽음이다. 이 죽음이 자기실현(이부영, 2011; Calvin & Vernon, 2004)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Jung의 접근과 매우 다른 Freud는 인간은 무의식 속에서 자신의 불멸성을 확

신하고 있으므로 이 불멸성에 대한 관심이 보상적인 것이며 죽음의 부인과 죽음과의 대면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우리가 정면으로 죽음을 바라보아야 하며 심리적으로 부인의 결과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Jung은 죽음과 불멸의 신화에 의해 제공된 인간영혼, 특히 무의식을 기초로 불멸의 관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인자, 1984).

단계이론을 주장한 정신분석학자인 Kübler-Ross는 인간을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 이해하면서 죽음은 완성을 향한 하나의 과정이다. 따라서 죽음이란 삶의 최종적인 것이며 완성의 순간에 들어가는 변화의 과정이므로 죽음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아름다운 체험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인간과 하느님, 순간과 영원, 개인과 우주, 부분과 전체 사이에서 항상 갈등과 해결을 반복하는 완전 지향성의 존재로서의 인간은 죽음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라고 독려했다(주영일, 2013; 홍진국, 2010).

사실상 죽음의 심리적 측면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느끼는 방식을 포함한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음의 의미와 타협하는데 심한 곤란을 겪는다. 우리는 죽음의 실체를 자연스럽게 예정되어 있는 인생의 단계로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Papalia & Olds & Feldman, 1992).

2. 죽음에 대한 철학적 이해

철학에서 바라본 죽음은 현재의 삶에 던지는 ‘죽음의 의미’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었으므로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죽음의 문제를 중요한 철학적 주제의 하나로 삼아 사색하고 다루어왔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깊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결코 객관적인 지식이나 탐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죽음에 대한 사유의 단서가 되는 ‘나의 죽음’(mein Tod)이 검증 가능한 경험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데 있었다(정동호, 이인석, 김광윤, 1997).

그래서 철학은 적어도 소극적으로나마 삶을 건져 보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가

문제로서 성립되지 않고 다만 문제로서 남겨놓고 있을 뿐이다. 많은 철학자들도 오랜 세월 죽음의 문제를 다뤄왔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취급하지 못했다(배영기, 2006). 의학에서 죽음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철학과 형이상학에 있어서도 이 죽음의 문제를 주제화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회피(정달용, 1980)해 온 것이 사실이다.

죽음 자체가 너무도 접근을 가볍게 할 수 없는 특징을 지녔기 때문인지 죽음에 대한 회피의 자세에서 죽음을 고찰(배영기, 2006)하였고 죽음을 금기(Taboo)시하거나 삶의 저편으로 제쳐놓는 객관화 현상이 철학의 세계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일어났다(김대동, 2005)는 것이 자명하다.

1) 고대 철학

철학은 진리와 근원적인 물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란 누구인가?’ ‘인간은 왜 영원히 살지 않고 죽어야만 하는가?’ ‘인간에게 죽음은 무엇인가?’ 라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사유는 철학자들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답을 제시하였다. 인간이란 ‘죽는 존재’ 혹은 ‘죽어야하는 존재’로 고대의 헬라인들은 인간을 이렇게 단적으로 규정(김대동, 2005; 홍진국, 2010)한 반면에 철학적 삶을 살아온 Socrates는 철학을 가리켜서 ‘죽는 연습’이라고 했고 죽음은 철학에 진정한 영감을 주는 하늘의 선물로 생각했다(김중기, 1991).

최초의 철학적 순교자 Socrates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지를 자각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굴복한다는 것은 무지를 자각하고 사는 철학적 삶의 방식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였기에 결단코 죽음을 회피하지 않았다. Platon의 대화편 파이돈(Phaidon)에 의하면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진지하면서도 친구들과 함께 죽음과 영혼의 불멸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고 사형 집행 당일에는 평상시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독배를 마시고 오히려 죽음을 재촉하는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였다. 죽음을 육신의 속박으로부터 영혼이 해방하는 것으로 여겼던 Socrates는 이와 비슷하게 Platon도 죽음을 신체로부터 영혼이 불멸하는 이데아(idea)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으로 보았다(김대동, 2005; 배영기, 2006; 홍진국, 2010).

한편 소멸(消滅)과 죽음의 문제를 철학에서 그리고 형이상학에서 제외시켜버린 Aristoteles는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소멸은 운동 또는 변화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그 자신은 운명 또는 변화로서 장소 이동, 양적 변화 그리고 질적 변화(흰 것이 검게 되다)를 다루고 있을 뿐 소멸 또는 죽음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 그래서 Aristoteles 이후 철학은 죽음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간단히 처리(정달용, 1980)해 버리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또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최초의 방법을 제시한 Epicuros는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는 것은 근거 없고 부질없는 일이라고 판단하였다. 그에 의하면 사후의 세계를 무(無)라고 단정하여 형이상학적인 사변을 버리고 오직 현재의 생(生)에만 충실을 기하려고 하였다(김정우, 1982). 즉 죽음은 산 사람에게도 무관하고 죽은 사람에게도 관련이 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생존해 있는 동안이나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주만물은 원자와 원자의 운동에서 유래되며 죽음 역시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를 산일시키고 감각 작용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Epicurian의 이론에 대립하였던 비슷한 시기의 Stoa철학자들은 보다 체념적이며 명상적인 죽음관을 내어놓음으로써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하였다(배영기, 2006; 이인복 등, 2002; 정동호, 이인석, 김광윤, 1997).

2) 중세 및 근세 철학

중세 초기에 Stoa학파의 영향을 받은 Augustinus는 원죄설과 삼위일체론에서 제2위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 교리를 체계화하여 죽음의 공포에 해답의 열쇠를 주고자 하였다. 그는 생명의 권태와 동시에 죽음의 공포가 항상 내 마음 안에 있었다고 말하면서, 죽음의 공포는 하느님의 은총을 통하지 않고서는 극복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 17세기에 들어와 이러한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이탈하여 이질적인 견해를 가진 Spinoza는 ‘자유인은 이성의 보호에 산다. 그러므로 죽음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죽음이란 단순한 의식적 결정이나 의지의 행동으로 정복될 수 없는 비임의적(非任意的) 감성 속에 존재하는 공포의 근원이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다.(김정우, 1982).

그 후 18세기 철학자 Hegel은 우선 무로부터 존재에로 건너가는 생성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무는 순수한 무가 아닌 어떤 것(Etwas)이고 또 존재로부터 무에로 넘어가는 소멸을 다루면서도 그대로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무를 순수한 무로 보지 않고 다만 다른 어떤 존재로 보고 있다. 따라서 죽음의 문제 역시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간단히 처리되고 만다(배영기, 2006; 정달용, 1980).

그러나 Schopenhauer는 비관주의적 인생관에서 죽음을 대하는데 그는 유한하고 경험적인 자아는 자신의 생애를 고통을 받으면서 고통스런 노력 속에서 살도록 운명 지어진 우주적 의지의 표현으로 이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은 순수 무의지 또는 무관심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상태는 순수하게 미학적 관조의 순간으로 알려진 것으로서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온다고 하면서 ‘죽음은 인생의 진정한 목표’라고 했다(김정우, 1982; 배영기, 2006).

3) 실존 철학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인간은 구체적인 ‘삶’과 ‘지금 여기 이 사람’으로서의 ‘현존재’(現存在) 또는 ‘실존’(實存)에 부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는데, 즉 실존철학은 이러한 관심에서 죽음의 의미를 가장 절실하게 추구하였다. 다시 말하면 실존철학은 죽음의 공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데 이는 전통철학의 관점에서의 탈피이다. 실존철학에서의 죽음의 문제는 Kierkegaard가 말하는 단독자로서의 실존이 죽음을 자각한 때부터이다(김정우, 1982).

실존주의 철학자 중 대표적인 Heidegger는 그의 저서 「존재와 시간」에서 현존재로서의 인간을 죽음에로의 존재(Sein Zum Tods)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죽음을 떠나서는 인간의 삶을 알아들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였다. 그래서 죽음이란 미래 언젠가 닥쳐오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삶의 한 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현존재의 구성요소이다. 죽음은 시간적으로 보아 다만 하나의 ‘아직 아니’가 아니라 ‘하나의 벌써’의 의미로서 현존재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無의 사당(祠堂, Der schrein des Nichits)으로서의 죽음은 존재의 은신처(Das Gebirge des seins)로서 죽음을 존재의 가능성으로 보고 현존재로서의 인간은 스스로 이

죽음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말하였다. 여기에 이르면 죽음은 우리가 도달할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가 실존으로서의 자기를 자각하는 적극적 계기의 의미를 갖게 된다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김정우, 1982; Zimmermann, 1977/1990).

또한 Jaspers는 죽음을 인간의 한계상황에 나타나는 실존적 불안으로 보고 이는 인간이 자기를 사실적인 제 요소로부터 초월케 하여 자기 자신을 미래로 투기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래서 실존주의는 죽음을 자기 초월이나 자기 투기로 보고 있다고 하겠다.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의미를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죽음에 관한 의식을 개발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자기의 존재의미를 발견하도록 의욕을 부여 주었다.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한 철학적 이해는, 인간의 죽음에 대해 인간 그 자체의 모습을 과장 없이 잘 나타내 주고 있으며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되는 것은 인간은 죽음의 문제와 진지하게 대결하지 않을 수 없다(김정우, 1982; 배영기, 2006).

3. 비그리스도교(타종교)의 죽음 이해

죽음과 사후의 생명에 관한 문제들은 그 종교의 전체적·신학적·교리적 체계와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종교만큼 깊이 있게 다룬 영역은 없었다(김대동, 2005; 배영기, 2006).

죽음은 확실한 현상이고 죽음의 원인이 알려져도 그것은 언제나 의문을 제기하였다. 어느 곳에서도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은 성스럽고 종교적인 영역에 속하였으므로 모든 종교는 죽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죽음이 인생의 종말이 아님을 주장하고 보편적 질서의 차원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죽음의 충격을 감소시키려고 하였다(김정우, 1982).

종교는 그동안 사람이 편안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또 살아가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를 위로하여 삶에 대한 용기, 그리고 죽음이라는 절망의 벽 앞에서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을 주어서 내세에서만이 아니라 현세에서부터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는 역할을 해왔다(주영일, 2013). 이러한 의미에서 라즈

니쉬는 ‘죽음은 바로 종교의 존재근거이고 죽음이 없었다면 종교는 그 타당성을 상실한다.’ 라고 언급했다(Rajneesh, 1983).

종교의 특성은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종교 그리스도교를 비롯하여 삼국시대부터 약 2천 년간 우리 민족에 큰 영향을 끼쳐왔던 동양의 대표적인 사상이자 한국 전통종교인 유교, 도교, 불교의 죽음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유교

유교에서는 인간의 삶과 죽음을 음양의 변역논리(變易論理)로 설명한다. 즉 생겨남은 우주의 원기가 응집하여 퍼져 나오는 것(神, 伸)이며 죽음은 반대로 돌아가는 것(鬼, 歸)이다. 여기서 생겨난 경우, 정신의 인식작용이 신(神)이 되고 기억 능력은 귀(鬼)이다. 주자의 理氣論에서도 인간은 다른 존재와 마찬가지로 모두 一元氣로써 一氣가 음양(陰陽)으로 분화, 변화하는 가운데 인간이 생겨나며 죽음은 사람이 소유한 기(氣)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진하게 됨으로서 다시 본래의 자리, 곧 一氣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였다(배영기, 2006; 우재명, 2007).

그러므로 인간은 우주의 총체적 일부이기 때문에 죽음은 생명의 지속현상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발전의 양상으로 이해되었다. 이렇게 볼 때 유교의 생사관에서 중요한 것은 생사(生死)가 인간의 모든 것의 주체이며 존재와 생명의 근원인 천(天)에 의해서 생사가 이루어지고 지배되므로 순천명(順天命)하는 태도이다. 또한 죽음을 하나의 필연적인 사실로 인정한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고 시초가 있으면 종말이 있는 것이므로 이는 자연의 이치로서 죽음도 이 자연의 현상의 일부일 뿐이고 인간은 우주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는 것만이 올바른 도리라고 주장하였다(김정우, 1982).

유교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혼(魂)과 백(魄)이 분리되어 혼은 공중에 떠다니는 신체가 되고 백은 땅에 돌아가 흙으로 변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조상숭배와 함께 차례를 지내는 유교의 관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효(孝)를 중요시하는 유교는 살아 생전 부모에게 효도하고 돌아가신 후에도 마치 ‘산 자처럼 공양한다.’는 심리적 개념이 첨가되어 죽음의 문제보다는 죽은 자에 대한 조상 봉사와 과제가 중요시되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제사의 의미는 불멸의 의미인 동시에

죽음은 생(生)의 변화한 형태이며 동시에 생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상 때문에 죽음은 도(道)에 이르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옛 선비들은 의(義)를 위해 죽음의 길을 택하기도 하였다(김대동, 2005; 김정우, 1982).

한편 유교에서는 다른 종교와 달리 죽음이나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별로 거론하지 않았다. 잘 살면 그 사는 이치 속에 잘 죽은 이치도 있다는 것이 공자의 기본정신이기 때문이다. 공자(孔子)는 죽음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의 제자 자로(子路)가 죽음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하면서 대답하지 않았다. 또 귀신에 대해서도 사람을 모르는데 어찌 귀신을 알겠는가 라고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이후의 세계를 부정해 버리면 죽은 자를 추모하지 않을 것이고 죽음이후를 지나치게 긍정하면 이 세상의 삶의 의의를 무상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침묵했던 것으로 여긴다.(김교빈, 2006; 이희재, 2008)

따라서 인생의 마무리로서의 죽음을 인식하고 애도하였으며 죽음은 기쁜 것이 아니라 슬픈 것이며 결코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은 극복하기 어려운 하나의 재난이며 일종의 비상사태였던 것으로 생각했다. 더 나아가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했듯이 유교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오래 살 것인가는 아니다. 어떻게 도리에 어긋나지 않고 진실하게 살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었다(이희재, 2008; 장철수, 1999).

이와 같이 유교에서 보는 죽음은 죽음에 대한 의식보다는 삶에 충실하자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천국이나 극락과 같은 저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죽은 뒤에 죽음을 알아도 늦지 않다는 것이고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을 존중하고 수명을 다하고 늙어서 죽는 것을 고종명(考終命)의 행복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의 자신의 주어진 운명, 곧 죽음을 자연의 질서와 천명으로 보고 따르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보았다(이희재, 2008). 그러므로 유교에서는 신(神)보다는 사람, 죽음보다는 삶을 그리고 저승보다는 이승을 더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백승균, 2004).

2) 도교

도교는 중국 사상 가운데서 가장 종교적인 것으로서 다양한 변모와 발전을 보여 왔다. 도교의 사생관은 도(道)의 이해에 있다. 이 도(道)는 유교처럼 규범의 뜻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영구불변의 우주의 본체를 의미하는 형이상학적 개념으로서 도를 이룸하여 크다(大)라고 하고 큰 것으로는 하늘, 땅, 사람, 도의 네 가지가 있다. 이들의 상호관계는 사람은 땅의 법칙을 본받고 땅은 하늘의 법칙을 본받고 하늘은 도의 법칙을 본받고 도는 자연의 법칙을 본받는다. 그래서 도(道)는 만물 생성의 근거로서 그리고 우주의 본체로서 궁극적으로는 자연법칙에 귀속하는 것으로 만물은 도로부터 나오고 또한 도에 숨은 것이며 도는 우주 내의 어떤 물(物)에든지 존재하고 있고 도는 생명 있는 것을 죽이는 작용을 하는 것인 동시에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김정우, 1982).

좀 더 설명하자면 도교는 자연의 모든 현상을 음, 양 二氣의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노자(老子)와 장자(莊子)가 초기 도가사상을 정립하기 전까지 고대 중국에서는 인간의 구성요소를 혼(魂)과 백(魄)으로 보면서 죽음이란 혼백이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간 것, 즉 ‘혼은 하늘로 백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기철학적 사고가 점차 일반화되면서 기(氣)가 모이고 흩어지는 범주 안에서 혼, 백의 존재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삶이란 기가 모인 것이요, 죽음은 기가 흩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생사(生死)의 문제는 천지를 관통하는 일기(一氣)의 변화과정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체(一體)이며 동상(同狀)이다. 삶과 죽음은 자연의 순환작용과 변화의 과정에 불과(김정우, 1982; 우재명, 2007)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삶과 죽음이 자연의 순환과정으로서 기(氣)의 모임과 흩어짐에 불과하다면 죽음의 극복은 어떻게 가능한가? 도교에서 죽음의 극복은 초기 도교에서 제시하는 정신적 초월과 수련도교의 장생불사(長生不死)의 추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초월의 방법은 죽음을 부귀, 빈천 등과 함께 운명의 추이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장자의 견해에 근거한다. 이러한 운명론적 시각은 소극적인 체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주어진 상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지혜의 소산이며 이는 만물 안에 존재하는 천차만별의 변화현상 자

체 안에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절대평등한 도(道)의 시각에서 관조하는 것이다(우재명, 2007).

따라서 도교는 죽음을 별로 문제시하지 않았고 죽음을 단지 자연변화의 일부로서 도(道)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김정우, 1982). 이러한 맥락 안에서 도교는 인간이 다른 사물과 달리 사유 능력을 지니고 태어났고 자연의 흐름을 파악하여 영원한 생명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곧 인간은 자아의식 아래서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선이 되고 도를 얻는 것은 개인의 일이며 죽음을 극복하고 불사를 얻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주영일, 2013).

3) 불교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고 심판자로서의 선이나 염라대왕과 같은 존재를 상정(想定)하지 않는 불교는 생(生)과 사(死)에 대한 답을 줄 뿐만 아니라 인생 문제에 대해 거의 모든 설명을 윤회 이론으로 해결하고 있다.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구별, 선행과 악행에 대한 보상과 벌의 문제는 윤회와 업(業) 사상이 그 근거를 준다. 그것은 신(神)과 같은 심판자가 주는 상이나 벌이 아니라 인간이 짓는 행위 그 자체의 결과(윤희진, 1997)라고 보았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과보’와 ‘윤회’로 설명하는데 현재는 과거의 업으로 생겨난 까닭에 업인(業因)이며 과거로부터 현재가 주어지므로 과보(果報)이다. 그런데 이러한 연결고리가 과거, 현재, 미래로 끊임없이 연결되는 까닭에 윤회인 것이다. 그런데 중생은 자신의 몸과 입(말)과 마음으로 짓는 업의 결과로서 6도(六途)의 세계에서 생사를 거듭한다. 6도란 선(善)의 과보로 다시 태어나는 천상, 인간, 수라도의 3선도와 악(惡)의 과보로 태어나는 축생, 아귀, 지옥도의 3악도이다. 이러한 6도의 세계에서 생사를 계속하면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날 때까지 4유(死有)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생명이 결정되는 순간을 생유(生有), 생명의 임종 직전까지를 본유(本有), 임종하는 순간을 사유(死有) 그리고 사유로부터 다시 생명을 결정하는 생유 사이를 중유(中有)라고 한다. 여기서 중유란 임종 이후의 상태, 즉 죽음의 상태를 일컬으며 이 기간은 대개 짧게는 7일,

길게는 49일로서 이 기간을 지나면 모두 새로운 삶을 얻어서 전생한다(우재명, 2007; 윤호진, 1997)고 보는 입장이다.

더 설명하자면, 불교의 중심 교리로서의 윤회 사상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한 이러한 탄생과 죽음의 과정을 끝없이 되풀이해야 하며 이 개개의 영혼은 전 생애 동안 스스로 행했던 행위가 얼마나 선했고 악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다음 생애에 태어날 여섯 가지의 다른 길(六道) 가운데 한 가지 길을 택해야만 한다. 또한 불교에서는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정신적 육체적 요소는 다 고(苦)로 보기 때문(김대동, 2005)에 석가모니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시함으로써 고(苦)의 해탈이 가능하다고 보았다(우재명, 2007).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생(生)의 연속이란 전 존재의 변화의 연속이며 영혼과 같이 불변적인 존재가 이 생에서 저 생으로 그리고 이 몸에서 저 몸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죽음은 실존이 일으키는 모든 문제의 포기로서 이는 무아(無我)의 경지이고 이 경지에서 진아(眞我)가 되며 석가모니의 대아(大我)와 일체를 이룬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음을 일종의 해탈(解脫)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자신이 모든 사물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 무아(無我)가 되는 것을 참된 죽음으로 본다(김정우, 1982; 배영기, 2006; 윤호진, 1997).

하지만 이러한 죽음 극복은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험은 아니며 각자의 내적 깨달음을 통하여 인간 삶 안에 이미 죽음을 내포하고 있고(生卽死)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죽음을 잘 극복하는 것(死卽生)이라고 한다. 즉 무심(無心)을 추구(김대동, 2005; 주영일, 2013; 홍진국, 2010)해야 한다는 말이다.

4. 그리스도교의 죽음 이해

그리스도교 정신의 발전과 확장은 서양의 정신문명을 적어도 2천년 가까이 장악해 왔고 현재에 있어서도 서양인에게 가장 넓고 깊게 침투되어 있다. 때로는 현대의 무신론적 철학자들은 그리스도교 문명 내지 죽음관을 저들의 철학이론과 도덕적 제상황에 근거하여 용납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죽음의 의식이 밀려오거나 죽음이 눈앞에 박두(迫頭)하였을 때에는 그리스도교 교의 안에서 찾

고자 하는 것이 통례가 되어 있다(김정우, 1982).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에 비추어 죽음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신앙을 통해 죽음이 어쩔 수 없는 한계나 허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한계를 넘어서게 되리라는 온 인류의 희망을 제시한다. 이러한 그리스도교적 죽음 이해는 그리스도교인들로 하여금 죽음의 상황을 극복하고 현재의 삶으로부터 죽음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해준다(주영일, 2013; 홍진국, 2010).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 죽음의 의미를 변화시켰다. 이는 그리스도교의 신앙 진리가 계시의 빛으로 쓰인 성경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죽음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을 다루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의 자기 죽음의 의미와 이해를 살펴봄으로써 그리스도교의 죽음 이해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죽음의 성경적 이해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죽음의 기원은 아담(Adam)의 범죄로부터 연유된 것으로 나타나며(창세 2, 17; 3, 19) 죽음 그 자체에 대한 함축된 의미를 지니고는 있으나 죽음에 대한 통일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구약성경에서 생명과 죽음은 하느님 손에 달려 있다는 확신이 있다(창세 2, 16-17). 곧 생명이란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며 하느님과 교제하는 것이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하느님과 맺고 있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뜻하였다(정인상, 2007).

(1) 구약성경에서 나타난 죽음

구약성경에서 인간 죽음의 문제를 많은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여기서 나타나는 죽음의 기원은 아담의 범죄로써 연유된 것으로(창세 2, 17; 3, 19)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시에 죽음 그 자체에 대한 함축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김정우, 1982).

초기 구약시대에는 죽음과 죄악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였다(창세 2,

16-17). 생명과 죽음이 하느님의 손에 달렸고 어떤 경우에라도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는 순종적인 삶(조규만, 1997)이라고 했다. 구약성경에서는 죽음의 보편성과 아울러 죽음과 연관된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다. 죽음은 각 사람에게 닥칠 어떤 것으로 모든 사람이 부딪히는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인류의 공통된 숙명인 동시에 온 세상이 가야 할 길이다(1열왕 2, 2; 2사무 14, 14; 창세 3, 19-20; 욥 14, 1-12). 그리고 어릴 때의 죽음은 큰 악의 세력에 의해서 생명이 단축되는 것으로 보았고 노년기의 죽음을 하느님의 축복으로 바라보는 이상적인 죽음도 제시하고 있다(창세 21, 16; 2사무 18, 32; 욥 5, 26). 이와 같이 초기 구약 시대에는 죽음 그 자체를 여러 형태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나 인간의 지상 생활이 끝난 후에 개인의 사후 생활이나 개인적인 생명이 계속된다는 단계의 인식에까지는 못 미치고 있었다(김정우, 1982; 정인상, 2007).

구약성경의 후기 저서들은 초기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조기 사망한 것이 아니라 천수를 누린 후 죽은 것으로 첨가하여 말하고 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죽은 자들은 완전 무화(無化)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생명을 상실한 상태로 전위되는 것으로 믿었다. 이러한 이해는 죽은 자들이 가게 되는 ‘쉐올’(sheol, 음부(陰府)) 사상 속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쉐올은 ‘지하의 세계’, ‘무덤 같은 곳’, ‘황량한 광야 같은 곳’, ‘침묵’(시편 115, 17) 등으로 상징되었으며 한 마디로 생명의 상실인 죽음이었다. 일반적으로 후기 구약시기 초기에는 쉐올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의미하며 심판일 전의 악인들의 영혼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생각하였다. 지혜문학에 와서야 쉐올에서의 죽은 자의 존재와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표상이 극복된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극복하는 희망은 묵시문학(다니 12, 1-13; 조규만, 1997)에 이르러서야 죽은 자들의 부활을 기대하는 모습을 취하게 된다(우재명, 2007; 정인상, 2007).

구약성경에서의 죽음의 특징은 인간이 자신의 명대로 살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때가 차지 못한 채 맞이하는 죽음은 언제나 생명의 원수인 죄의 대가(김정우, 1982; Vorgrimler, 1998)로 나타났다(2사무 12, 16). 그리고 죽음은 일반적으로 생명의 자연적인 경계선이고 생명의 유한성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하느님은 죽음과 생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며 인간이 자기의 명대로 살기 위해서는 야훼께 향해야 하는데 이는 야훼가 생명의

원천(시편 36, 8-10)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지혜의 교훈을 통해서 죽음을 피하고 생명을 얻도록 노력해야 했다(김정우, 1982; 정인상, 2007).

더 나아가서 구약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이 아닌 그 본성상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의 은총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죽음의 권세가 인간에게 미칠 때 인간은 단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을 뿐이다(시편 6, 5; 13, 4; 116, 3).

(2) 신약성경에서 나타난 죽음

신약성경에서의 죽음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전까지는 아직도 죽음은 구약성경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여 죄의 결과로써의 죽음 이해가 지배적이었다(로마 5, 12; 1코린 15, 21; 김정우, 1982; 정인상 2007; 조규만, 1997).

신약성경시대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헬라문화권의 영향을 받게 된다. 헬라사고 안에서는 히브리적사고와 달리 존재(being) 개념을 소유하면서 육체와 영혼을 상호독립적인 실체로 본다. 이러한 헬라적사고 안에서 영혼은 정신적 실체로서 비공간적(non-spatial) 비분해적(indissoluble) 불멸적(immortal)인데 반해, 육체는 물질적(material) 공간적(spatial) 분해적(dissoluble) 사멸적인(mortal) 특성을 지닌다. 영혼은 자신의 불멸성을 누리면서 죽음 후에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복을 누리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우재명, 2007).

구약성경과의 연관성 안에서 신약성경 역시 죽음의 원인을 ‘죄’에서 찾는다.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며 그 죄를 통해 죽음이 왔다(로마 5, 12).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몸이 되었다(로마 7, 24). 하지만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죄가 극복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었듯이 죽음도 극복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었다. 신약성경에서의 중요한 관심은 인간이 죽음의 공포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죽음의 신비와 부활의 체험을 통해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단지 죽음의 왕국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당신의 죽음으로 죽음자체를 이기심으로써 인류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새로운 의미로 전환되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는(1코린 15, 3) 당신 죽음으로 인간을 하느님과 화해시키셨으며(로마 5, 10) 우리가 약속된 상속을 받게 해 주셨다(히브 9, 15-16; 우재명, 2007).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지니신 분이시기에’(묵시 1, 18) 저승에까지 내려가셔서 당신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과 후세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구원의 효력, 즉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따라서 죽음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희망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주영일, 2013).

2) 예수의 죽음 이해

죽음에 대한 구약의 이해를 발전시켰던 신약성경의 중심에 예수의 죽음이 있다. 물론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의 부활이며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부활과 죽음은 따로 떼어 놓고는 이해할 수 없다. 죽음 없이 부활은 일어날 수 없으며 부활 없이 죽음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현대 신학의 다양하고 새로운 해석도 예수의 죽음을 도외시하고서는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예수는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예수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는 일은 그리스도교의 죽음 이해에 필수적이다(홍진국, 2010).

(1) 예수의 자기 죽음이해

신약성경과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보는 예수의 죽음은 깊은 차원이 내재되어 있다. 신약성경이 보는 예수의 죽음은 예수를 반대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저지른 사건만이 아니고 하느님이 이루신 구원업적인 동시에 예수의 자발적인 자

기희생이요 자기헌신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의 자기 이해에 관하여 매우 상반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홍진국, 2010).

이 주장들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눈다. 첫 번째는 예수가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기꺼이 죽음을 수락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자기 헌신으로 이해했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예수가 자신의 죽음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비명횡사(非命橫死)했다는 입장이다. 개신교 신학자 Bultmann은 예수의 죽음은 그의 활동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오해로 말미암아 발생한 우연한 재앙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부류로서 예수가 자신에게 닥쳐올 죽음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지만(마르 14, 25) 그것에 구원을 위한 희생의 의미를 부여하지는 못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죽음에 대한 어떤 기대를 걸면서 적어도 자신의 죽음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일정한 해석을 내렸을 뿐이라고 한다(홍진국, 2010).

가톨릭 신학자인 Pesch는 예수의 죽음을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죽음이자 속죄의 죽음으로 이해했다. 예수는 구원 파견자로서의 자신의 파견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탱하고 자신의 죽음을 종말론적 구원의 사자의 죽음으로 즉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죽음, 속죄의 죽음으로 이해함으로써 해결하였다(Vorgrimler, 1998).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 이해는 그의 삶과 연관시키면서 십자가상 죽음을 통해 예수 자신이 추구하고 실제로 살았던 삶의 총체로서, 곧 온 생애를 통해 인류에게 제시한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하느님 사랑의 표징으로서 자신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확신 속에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예수가 죽은 이유는 인류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그리고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이 예수로 하여금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치게 하였고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써 당신의 자비와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다(홍진국, 2010).

(2) 예수의 죽음의 의미

무죄한 예수는 죄인의 죽음을 겪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1베드 3,

18) 그리고 죄인(요한 9, 24)처럼 죽었다. 그에게 있어 죽음은 하느님과 인간의 원수, 죄악의 결과, 삶의 파멸, 전적인 상실, 고립이었다(홍진국, 2010). 예수는 죽음 앞에 직면하여서는 두려워했으며(요한 12, 27; 13, 21; 마르 14, 33) 할 수만 있다면 죽음으로부터 면해 주시기를 성부께 간청하였다(루카 22, 42; 요한 12, 27; 조규만, 1997). 이 역시 아담의 죄로 인한 벌로서 세상에 왔다는 것을 나타내 주며 이러한 죽음은 인간의 삶을 무의미한 단절로 전환시켜 버리는 세력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을 초월하였다. 십자가상에서 저주 받은 죄인으로서 고통스럽게 죽었지만 예수의 죽음을 부활과 연관시켜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제시할 수 있다. 즉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느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지점을 죽음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다(정인상, 2007).

또한 예수는 당신 죽음으로 우리를 하느님과 화해시켜(로마 5, 10) 우리가 약속된 상속을 받게 하셨으며(히브 9, 15) 그러기에 죽음은 부활이요 생명이신(요한 11, 25) 그분 앞에서 물러났고 성경이 예고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룩되었다(1코린 15, 14).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로 인한 죽음은 이제 최후의 암흑에서의 해방이며 희망도 의미도 없는 이기적인 죄인의 존재로부터의 탈출로서 하느님 안에서의 삶의 완결로 이해되었다(Greshake, 1980).

그러나 비록 이러한 죽음의 의미가 나타난다 해도 거기에는 ‘신앙’이 요구되고 있다. 즉 인간은 하느님께 또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요구에 자신을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되며 하느님을 지향할 의무가 포함된 하느님으로부터의 선물로서의 삶을 받아들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정인상, 2007).

이처럼 예수는 죽음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죽음의 의미를 바꾸셨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사람들을 위한 전적인 봉사의 삶을 살면서 최후의 순간에 하느님과 인간들을 위한 자신의 삶을 죽음 안에 집약시켜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무엇보다 바로 당신 자신이 하느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살아 있는 계시로서, 우리를 위한 예수의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한 그 자신의 헌신적인 사랑이었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계시의 처음이자 마지막 곧 하느님의 자기 계시가 다름 아닌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이는 예수의 죽음으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느님 구원의지와 사랑을 구체적이고 역사적

표정으로 극명하게 드러냈으므로 성사의 원형이자 절정이 된다(조규만, 1997; 홍진국, 2010).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상의 죽음 안에 모든 사람을 포용하신다. 이는 모든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각 사람에게 실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조금 더 나아가자면, 세례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세례의 성사적(聖事的) 은총으로 십자가상의 예수와 일치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음에 묻히며 그분의 죽음에 합치’된다(로마 6, 3-5). 그래서 누구든 예수를 믿은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그는 죽더라도 살겠기 때문이다(요한 11, 25). 부활신앙은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생명에 대한 새 희망을 줌으로써 죽음을 극복할 힘을 준다. 인간은 죽음 후에 쉼(음부(陰府))에 버려진 채 잊혀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의미에서의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죽음을 상대화시킨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새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이다(정인상, 2007).

5. 죽음불안에 대한 이해

1) 죽음불안에 대한 배경

초기의 심리학적인 죽음불안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죽음에 대한 연구가 현대 학문 안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근래에는 종교학·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노인복지학·인류학·역사학 등 전반적 학제를 중심으로 새롭게 죽음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다(하학봉, 2015).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죽게 마련이다.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맞게 되는 죽음을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면 죽음을 어느 정도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죽어가는가 하는 데 있다. (김경자, 1993; 김분한, 1997).

일상적인 생활사를 통해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되풀이하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준비과정을 겪게 되는 인간은, 그 중 되풀이 될 수 없는 사건이 죽음(최영이, 2008)이며 예기치 않은 특수한 상황에 직면한 죽음은 두려움을 갖게 한다. 이처럼 인간은 생의 마지막 과정인 죽음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죽음은 고독감, 분리감, 파괴와 마음의 혼란을 가져오는 공포로서의 죽음에 대한 불안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김인자, 1984). Kastenbaum(1992)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걱정이 불안이나 공포로 경험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Kastenbaum, 1992).

이러한 모든 두려움의 근원인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인간이 죽음을 자기존재의 가치 있는 종결이 됨을 인식하지 못해 죽음과 대면할 용기가 없는 마음상태가 곧 죽음불안이라고 Rahner(1961/1982)는 정의하였다. 즉 죽음불안은 인간존재의 유한성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불안으로서 죽음의 순간에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체험되기 때문에 삶이 계속되는 한 죽음불안을 분리할 수 없다고 한다(문남숙, 남기민, 2008).

그래서 인간 존재로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흔히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이야기를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기피(김경자, 1993)하는 부정적인 태도로서의 죽음 불안이나 죽음 공포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죽음불안 관련 요인을 주장한 4명의 학자들이 밝힌 요인으로는 Michael(1979)은 임종에 대한 공포, 존재여부에 대한 공포, 사후결과에 대한 공포, 타인의 죽음과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로 구분하였다(Michael, 1979).

그리고 Templer(1970)는 고립과 부동에 대한 공포, 동통에 대한 공포, 종말에 대한 공포, 죽음의 필연성, 장례와 부패에 대한 공포로 구분(Templer, 1970)하였고, Collett-Lester(1969)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 타인의 죽음에 대한 공포, 자신의 임종과정에 대한 공포, 타인의 임종과정에 대한 공포를 죽음불안의 요인으로 보고 있다(Collett-Lester, 1969). Thorson & Powell(1992)는 사물의 부재와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 죽음과 관련된 고통에 대한 공포, 신체의 처치에 대한 염려, 무기력과 조절력 상실에 대한 공포, 후생에 대한 염려, 부패에 대한 공포, 사후 행해질 일에 관한 지시에 대한 염려로 죽음불안을 설명하고 있다(Thorson & Powell, 1992; 박은경에서 재인용, 1995).

또한 죽음불안에 대해 Kübler-Ross(1969/1981)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삶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은 삶만큼 중요(Kübler-Ross, 1969/1981)하다고 주장하였다. Maslow(1970)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죽음을 받아들이며 자신을 수용할 때 죽음불안이 낮아진다고 하였다(문남숙, 남기민, 2008). 더 나아가서 노년기 마지막 발달단계로서의 죽음불안에 대해 Erikson(1982) 자아통합의 실패가 절망이며 절망은 죽음불안, 우울 등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므로 노년기에 긍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발달적 위기로 보았다(이이정, 2004).

이와 같이 죽음불안을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는데 넓은 의미에서의 죽음불안 개념은 죽음에 대한 공포(fear of death) 죽음에 대한 혐오(aversion of death) 죽음의 기피(death avoidance or reluctance) 죽음의 수용(death of acceptance) 죽음의 분노(denial of death)인 반면에 좁은 의미에서는 존재의 정지에서 오는 것과 죽어가는 과정에서 오는 두려움이 혼용되어 쓰여 왔다(박윤자, 2008; 서혜경, 1987).

2) 죽음불안에 관한 선행연구

아직까지 죽음 경험에 대한 명확한 지침서가 없다. 그러므로 죽음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회문화권에 따라 다르고 죽은 장소와 시기에 따라 각양각색이며 개인의 가치관이나 철학 그리고 성별, 연령, 학력, 종교, 건강상태 등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최영이, 2008)에 조사자에 따라 죽음불안이 다양하게 분석되었다. 따라서 변인별로 성별과 연령, 영성과 종교 유무, 건강 상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성별과 죽음불안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볼 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우울과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죽음불안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김세원, 2009; 김연숙, 김지미, 2009; 서혜경, 1987; 이숙주, 2010; 이예중, 2005; 전영

기, 2000; 최외선, 2007; Hickson, Housley & Boyle, 1998)가 뒷받침되고 있다. 반면에 남성이 여성보다 죽음불안이 높다는 정반대의 결과(김홍철, 2010; 서혜경, 윤민석, 2008; 윤남숙, 1994, Keith, 1979)도 있다.

또한 성별과 죽음불안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다는 연구(문남숙, 2009; 양혜정, 1991; 이상빈, 2015; 한미정, 2001)도 있다. 이는 각 개인이 처한 사회 문화적 환경과 살아온 발달사에 차이(양혜정, 1991)가 있기 때문으로 죽음불안과 성별과의 관계가 일정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2) 연령과 죽음불안과의 관계

Kalish(1976)에 따르면 나이가 들에 따라 죽음에 대한 의식은 항상 수반되고 자신의 미래가 제한되어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연령이 높을수록 죽음불안이 낮다는 연구(김혜련, 1990; 박재현, 2016; 서혜경, 1987; 한미정, 2001)와 일치한다. 즉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과 사회화할 기회를 가지며 나머지 기간 동안 현실에 쉽게 순응하고 수용하도록 정서조절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Kalish, 1976).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죽음불안이 높아진다는 연구(김태현, 손양숙, 1984; 조지연, 1989)도 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서 죽음불안을 크게 느끼며(박소윤, 2017) 또 실제 죽음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한 불안과 역할상실, 지위 약화 등이 죽음불안을 상승시킴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 정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이예중, 2005). 반면에 죽음불안이 연령과 관계없다는 연구(김태련, 1988; 양혜정, 1991; 윤남숙, 1984; 이상빈, 2015)결과는 나이가 많다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3) 종교 유무와 죽음불안과의 관계

우선 종교생활을 하는 노인의 죽음불안이 낮다는 연구(김경자, 1993; 김태현, 손양숙, 1984; 김태련, 1988; 문태연, 변상해, 2012; 윤남숙, 1994; 이숙주, 2010;

이은경, 2002; 한동성, 2008; 한미정, 2001) 결과가 있는 반면에 이와 반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 노인의 죽음불안이 높다는 연구(조지연, 1989)가 있다. 또한 종교와 죽음불안과는 상관이 없다는 연구(김혜련, 1990; 서혜경, 2007; 최외선, 2007)도 보고되었다.

(4) 건강상태와 죽음불안과의 관계

건강상태와 죽음불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건강상태와 죽음불안이 관련이 없다는 연구(김혜련, 1990; 서혜경, 1987)가 있었고, 건강할수록 죽음불안이 낮다는 연구(양혜정, 1992; 장경숙, 2003) 결과가 있다.

(5) 영성과 죽음불안과의 관계

영성과 죽음불안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김호경, 2007; 하학봉, 2015)와 영성과 삶의 질이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서혜경, 윤민석, 2008) 결과를 보면 영성과 죽음불안은 개인이 속한 상황과 여건, 시간과 장소 등 환경 여하에 따라 영성과 죽음불안 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하학봉, 2015).

이와 같이 사회 인구학적 요인과 죽음불안과의 관계에서는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김대동(2005)의 연구에서 죽음 직면 경험이 어떠한 상담교육적 기능이 있는지를 규명하였다(김대동, 2005).

6. 실존주의 심리치료 이해

실존주의 심리치료는 초기 이성론과 경험론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났던 실존주의 철학에서 출발한다. 실존주의 심리치료는 S. Kierkegaard, F. Nietzsche, M. Heidegger, K. Jaspers, Jean-Paul Sartre, M. Buber와 같이 잘 알려진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보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으며(우미리, 2014) 실존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본질(essence)과 실존의 관계설정이다. 실존주의 이전의 철학은 실존보다 본질이 언제나 우선이었으며 개체보다 본질을 더 강조하였다(홍푸르메, 2013).

이 견해에서 ‘실존’은 Sartre의 그 유명한 진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에서 의미하는 것과 같다. 말하자면 인간의 자각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하여 말해야만 하는 모든 것을 앞선다는 말이다. Corsini와 Wedding의 말을 좀 더 덧붙이면 존재(existence)는 주어진 상황(세계) 내에 존재하는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Corsini, Wedding, 1998).

이러한 실존주의적 견해에 영향을 받은 실존주의 심리치료는 1940년대와 1950년대에 많은 유럽 심리학자와 정신의학자의 생각과 연구에서 자발적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그들은 그 당대의 여러 심리치료보다 더 신뢰성이 높고 더 기본적인 인간존재의 이해방법을 찾는데 관심을 기울였다(김대동, 2005).

또한 1950년대 이후에 시작되어 1960년대를 지나며 미국에서 급속하게 확산되었고 1970년대에는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실존주의 분석가로 잘 알려진 사람은 Ludwig Binswanger와 Medard Boss이다. 이들은 유럽의 철학적 세계관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치료의 실용적인 전통과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너무 난해하여 미국에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없었다. 초기에 실존주의 심리치료를 발전시킨 Victor Frankl은 죽음의 포로수용소에서 찾은 ‘의미 추구’(will to meaning), 즉 내담자가 자신의 삶에서 실존적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도전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심리치료의 핵심(홍푸르메, 2013)이다.

한편 실존주의 심리치료를 널리 확산시킨 인물은 Rollo May와 Irvin Yalom이다. May는 유럽의 실존주의를 미국의 심리치료의 이론이나 실제의 주류로 전환하는 데 가장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Heidegger가 실존적 정신치료자에게 인간성을 이해하는 데 깊고 광범위한 기초를 제공하였다(김대동, 2005). 특히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라고 표현하면서 인간을 ‘존재론적 입장’에서 이해한다. 이는 인간의 존재가 잠재성이나 미래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인간은 존재론적인 성격으로 나타나는 존재론적인 불안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김춘경 등, 2010).

Yalom은 인간에게 부여된 불가피한 조건들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는 데 기인해서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주는 근본적인 조건을 죽음, 자유, 소외, 무의미로 보았다. 인간은 네 가지 궁극적인 관심사에 직면할 때 갈등과 불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궁극적인 관심사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수용이 본질적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를 심리치료의 중점에 두었다(김정현, 2009).

실존주의는 고통, 질병, 타락, 죽음과 같은 실존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인간 현실의 본질적인 특성이고 인간은 ‘세계에 던져져 있고’,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것을 공허하게 만들 수 있는 한계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을 인정한다(우미리, 2014). 그래서 인간에 대해 관념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얻기보다는 현상학적으로 주관적 관찰자의 입장에서 내담자가 존재하는 세계 그대로를 이해시키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김춘경 등, 2010).

이와 같이 실존주의 심리치료에서는 ‘무엇이 인간을 인간다운 존재로 만드는가를 이해하는 과정’이 치료의 근간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의문의 근본 주제를 물으면서 인간은 무의식적 동기나 외적 환경의 희생물이 아닌 자유롭게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가정하고 자유, 선택, 결정, 책임의 과정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계속적으로 자아실현을 이룩하는 존재로 본다(김홍용, 2000).

더 나아가서 Kierkegaard에서 Sartre로 이어지는 실존주의는 실존을 문제로 삼으면서 이 실존적 심리치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Heidegger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원리 체계의 기본적인 질문, 즉 ‘존재(Being)란 무엇인가?’이다. 이러한 궁극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실존주의 심리치료 안에 내포된 영성적 차원, 즉 종교적인 요소뿐 아니라 삶, 세계, 자기 자신 그리고 초월에 대한 생각과 신념들을 탐색하고 성찰하면서 내담자의 영적 성장을 돕는 형태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Deurzen, 2017).

실존주의 심리치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 실존의 한계 속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실존주의 철학을 심리치료에 결합(윤영선, 2013)시킨 것으로 본 연구에 적합한 Irvin Yalom의 이론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1) Yalom의 실존주의 심리치료의 이해

Yalom(1980/2007)은 실존적 심리치료가 경험적인 것이 아니고 깊은 직관적(intuitive)이기 때문에 명료한 정의를 문제 삼지 않으면서 개인의 실존에 뿌리를 둔 걱정애 초점을 둔 역동적 치료라고 그의 저서 「실존주의 심리치료」에서 규명하였다(Yalom, 1980/2007). 이에 대한 Yalom의 입장은 실존적 접근 치료방법은 다른 어떤 치료방법과 같이 이성적이고 연관성이 있고 조직적인 가치가 있고 효과적인 심리치료적 패러다임을 가졌음을 옹호한다(강용수, 2015).

실존주의적 심리치료는 실존에 근거한 관심사에 초점을 둔 역동적인 치료적 접근이고 ‘역동’이라는 힘의 개념은 정신분석 치료와 같이 무의식적인 힘이 의식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Yalom, 1998/2010)한다. 하지만 이러한 Yalom의 역동적인 치료는 Freud가 만든 근본적인 역동구조, 즉 본능(Drive)이 불안(Anxiety)의 유발요인인 반면에 Yalom의 경우 네 가지 궁극적 관심인 죽음, 자유, 소외, 무의미가 불안의 유발요인으로서 많이 변형되었다(Yalom, 1980/2007).

이 두 가지 역동구조는 자기방어기제가 안정을 제공하며 과도하게 사용되면 성장과 경험을 방해하고 정신병리를 일으키기도 한다. 또 ‘깊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정신역동은 과거를 깊게 탐험하고 실존적 정신역동은 자신의 현재의 실존 상황을 지금-여기서 깊게 생각한다. 이는 과거의 개인의 기억은 현재적 부분이고 개인의 궁극적 관심을 대면하는 현재 형태를 기억하고 있을 때 중요하기에 현재의 나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래서 실존치료의 주된 시제는 현재가 되어 가는 미래(future-becoming-present)이다(Yalom, 1980/2007).

이것은 Freud의 정신분석이 인간 정신발달의 초기 삶에 초점을 맞추면서 과거에 주목했다면, Yalom의 실존적 치료접근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현재의 선택능력(결정)에 주목하였다. 실존주의 심리치료가 인간에게 주어진 것과의 직면에서 오는 갈등과 고통을 넘어서 인간의 잠재력 발달이나 성장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이다(김정현, 2012).

한편 미국 실존심리학의 아버지인 May는 창조하는 유기체적인 존재로 묘사한 Nietzsche와 Kierkegaard의 인간학에 기초하여 인간을 무엇보다도 존재의 차원에서 이해한다. 그는 인격을 자유, 개별성, 사회적 통합, 종교적 긴장의 차원에서

조망하고 존재, 자유, 자아, 사회, 죄의식의 개념이 불안과 관계한다고 보았다(안남희, 2016). 이 불안과 관련하여 May, Frankl, Yalom은 죽음의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면서 죽음을 거절하는 대가는 막연한 불안이며 자기소외라고 언급하였다.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에 직면하여 자기 자신의 죽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인간은 삶의 유한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의식적으로 죽음이 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말이다(문남숙, 남기민, 2008).

Yalom은 May와 마찬가지로 ‘존재’라는 핵심 개념을 실제로 그의 실존적 심리치료에서 인간의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 존재의 이유들을 다룬다. 인간 실존에 ‘주어진’ 것들을 자신이 일상생활의 관심사를 가려내거나 ‘뭉고’ 또 세상에 있어서 자신의 상황을 깊게 생각할 수 있다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인간에게 주어진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개인적 성찰이라고 말하였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 한계, 가능성이라는 상황을 깊게 돌아볼 때 우리는 존재의 심오한 구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실존적 역동의 갈등 내용인 죽음, 자유, 소외, 무의미 등이 그의 실존적 치료방법의 본체를 이루고 있다(Yalom, 1980/2007).

중요한 것은 Yalom이 말하는 실존주의 심리치료는 인간이 근원적으로 직면하는 실존적인 고통을 깊게 자각하게 함으로써 자기실현이나 성장까지 나아가도록 도와주므로 특히 내담자를 객관적 입장에서 보지 말고 내담자 자신의 사적 세계를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하여금 내담자가 일상적인 삶과 인간 조건의 고통을 올바르게 깨닫고 자신 안에 있는 힘을 발견하여 성장시키는, 즉 동행자의 자세(안남희, 2016)가 필요하므로 Yalom은 실존적 치료방법을 취할 때 여러 철학자들로부터 특별한 개념들을 끌어왔다.

이를테면 토스토예프스기의 창조성·무의미·죽음, 키에르케고르의 창조적 불안·실망·공포와 두려움·죄책감·무, 니체의 죽음·자살·의지, 하이데거의 참된 존재·양육·죽음·진지한 관심·죄책감·개인적 고립·사르트르의 무의미·책임·선택, 부버의 관계·치료에서의 나와 너 관계·자기초월(김대동, 2005) 등을 차용하여 심리치료에 적용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Yalom은 치료자와 내담자가 맺는 관계야말로 치료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말하면서 ‘여기-그리고-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그의 치료에서 항상 사용되며 이 기법과 함께 치료자의 자기개방과 공감을 치료 과정에서 강조한다(안남희, 2016).

(1) Yalom의 죽음개념과 심리치료

Yalom의 실존주의 심리치료에서 ‘죽음’과 ‘죽음불안’ 개념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이유는 궁극적 관심사들은 모두 불안을 유발하는데 그 중 가장 절대적인 개념이 죽음이고 죽음에 대한 불안은 자유, 소외, 무의미의 근저에 모두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실존적인 구조에 대한 자각과 함께 일어나는 불안은 모두 ‘죽음 불안’이다. 이러한 죽음불안은 죽음이라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불안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존재방식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래서 Yalom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 불안의 주된 요소라고 가정하였고 그것이 어떻게 인간 개인의 내적 역동성에 영향을 주는지 관심을 가지면서 임상에서 죽음을 치료의 핵심개념으로 사용하였다(Yalom, 1998/2010).

그가 제시한 ‘죽음’은 첫 번째로 죽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늘 따라다니며 표면 밑에서 지속적으로 나지막이 울리기 때문에 죽음은 의식의 가장자리를 떠도는 어두운 존재이므로 죽음의 두려움은 인간의 내적 경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아동은 어릴 때 무의식적으로 깊이 죽음에 사로잡혀 있으며 아동의 주된 발달 과업은 소멸이라는 무시무시한 두려움을 다루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간은 이러한 두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죽음자각을 부인(denial)하는 것에 기초한 방어기제를 만드는데 이러한 방어기제는 성격구조를 형성하고 만일 잘못 적용되면 임상적 증상을 야기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심리치료에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접근이 죽음자각에 기초하여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기본 가정들이 심리치료에서 죽음자각과 죽음직면이 치료적 효과라고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심리치료에서 ‘죽음’은 중요한 치료의 수단이자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Yalom, 1998/2010).

또한 심리치료에서 Yalom은 죽음을 한계상황과 삶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개념으로 간주하였다. 실존치료에서 말하는 한계상황은 실존적 상황에 직면하도록

재촉하는 사건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친밀한 관계의 파괴, 삶의 중요한 이정표, 충격적인 상처, 강력한 꿈 등이 이에 속한다. 그 중에서 나의 죽음에 대한 직면은 최대의 한계상황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다준다. 죽음에 직면한 환자들이 놀랍게도 개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발견한 Yalom은 죽음이 사람을 존재의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옮길 수 있는 촉매로 작용한다고 보았다(Yalom, 2014). 그래서 Yalom은 어떤 개인도 불안 없이 성장하거나 새 것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자각, 죽음직면과 함께 유발되는 죽음불안을 존재의 또 다른 일면으로 본다(안남희, 2016; Yalom, 1980/2007).

그리고 Yalom은 우리가 죽어야한다는 고통스러운 사실에 직면했을 때도 구원과 지혜의 씨앗이 들어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죽음의 불안감에 직면해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살아지지 않은 인생’의 길이와 직접적으로 비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우리 삶의 유한성과 일회성의 자각과 함께 주어진 삶을 어떻게 창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특히 Heidegger의 입장처럼 목적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사는 삶, 절대적인 자유와 선택이라는 맥락에서 인간의 가능성과 제한성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안남희, 2016).

(2) 삶과 죽음의 상호의존성

Yalom은 인간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신체적인 죽음은 인간을 파멸하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은 인간을 살린다.’라는 말을 항상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심리치료에서 죽음이 가지는 중요한 함의를 다음과 같은 명제로 제시하였다. “삶과 죽음은 상호의존적이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지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죽음은 삶의 표면 밑에서 끊임없이 웅웅 소리를 내고 경험과 행동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Yalom, 1980/2007).

그는 Heidegger의 입장에 기대어 죽음과 대면해야 삶을 더 절박하고 충실하고 열정적으로 살게 된다(강용수, 2015)고 주장하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삶, 즉 죽음을 부인할 때 삶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삶에서 죽음이 배제되었을 때 오히려 삶에 위태로운 상황이 있다는 통찰을 상실하면서 급기야는 삶은 무미건조해진다고 하였다(Yalom, 1989/2014).

죽음을 아무리 회피하고 부인한다고 해도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의 쓴맛과 삶의 단맛을 적절히 섞어야만 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실제로 죽음이 없는 삶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Yalom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통합하는 것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주장한다. 죽음이 삶을 정화하고 연약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즐거움을 증진(안남희, 2016)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3) 죽음개념의 발달

Yalom은 아동에게 죽음은 큰 수수께끼이기 때문에 죽음이 아동의 경험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의 주된 발달과업 중 하나가 죽음과 관련된 무력과 제거를 다루는 것이고 이것은 죽음의 공포와 거래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아동이 죽음에 관해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성인들의 편견 또한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두려움 때문에 아동에게 죽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꺼리며,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특유의 부인 방식이나 사회적으로 용인된 불사성의 신비를 제공하여 아이의 두려움을 달랜다. 한편으로 많은 부모들이 죽음에 대한 상당한 계몽의식을 가지고 아동에게 접근하지만 아동의 불안을 보면 흔들리게 되고 다시 죽음을 은폐하게 된다(Yalom, 1980/2007).

그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대체적으로 여섯 살부터 사춘기에 이를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사라지게 된다고 말한다. 이 시기에도 아이들은 죽음을 의인화한다. 죽음은 도깨비, 소름 끼치는 어떤 것, 해골, 유령, 그림자로 표현되어지는데 이렇게 죽음을 인격화하는 과정에서 아동은 죽음에 대한 불안을 조절하게 된다.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잠복해 있던 죽음에 대한 불안은 강하게 다시 되살아나고, 십 대의 청소년들은 자주 죽음과 자살에 대해 생각한다. 또 그들은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숨어서 보거나 풍자적 유머를 내기도 하며 친구들과 함께 공포영화를 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한다(Yalom, 1989/2014).

이후 청소년들에게 부과되는 두 가지 과업, 즉 진로를 추구하고 가정을 이룩하는 과업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는 잠시 뒤로 물러나게 된다. 그 후 30년이 지나 아이들이 집을 떠나고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물러나야 하는 중년기가 온다. 이때 중년기의 위기가 엄습하게 되고 가라앉았던 죽음의 불안감은 또다시 엄청난 힘으로 스며들게 되면서 일생의 정점에 도달하게 된다. 그때는 눈앞에 전개되는 미래가 더 이상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서 쇠퇴하고 축소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울해진다. Yalom은 그 때를 기점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은 마음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게 된다고 말한다(Yalom, 1989/2014).

(4) 죽음에 대항하는 두 가지 방어기제

Yalom에 의하면 모든 개인은 반드시 죽음불안에 직면하게 되고 대부분은 적응할 수 있는 형태의 방어기제를 개발하지만 부적합한 극단적인 방어 전략을 사용하면 개인의 성장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불만족한 삶을 초래한다고 하였다(Yalom, 1980/2007).

그래서 Yalom은 원형 그대로의 죽음불안은 죽음에 대한 다양한 방어벽들로 인해 정신 병리 패러다임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데 그것은 억압과 다른 불안완화 전략에 따라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Yalom, 1998/2010). 그는 아동이 죽음에 대해 자각하는 방법과 대처방법에서 죽음에 대항하는 두 가지 방어기제를 발견했다. 그것은 ‘개인의 특별성과 불가침성에 대한 신념’과 ‘궁극적 구원자에 대한 신념’이다(Yalom, 1989/2014).

죽음에 대항하는 ‘특별함’에 대한 신념은 자신이 불사신이고 침범할 수 없는 존재이며 생물학적 법칙과 숙명을 넘어서는 존재라는 말이다. 자연법칙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이 신념은 개인적 소멸에 대한 위협에 압도되지 않고 위협에 직면하는 용기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일어난 용기는 개인적인 힘을 많이 성취하면 할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는 더 누그러지고 자신의 특별함에 대한 신념은 더욱 강화된다. 그래서 이들은 내면에 요동치는 죽음의 의문을 효과적으로 숨기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성취하고 물질적 부를 축적하고 사라지지 않는 기념비적인 작품을 후대에 남긴다((Yalom, 1998/2010).

그러나 여기서 개인이 사용하는 ‘특별함’이라는 방어기제가 부적응적인 형태를 동반하기도 하고 정신 병리를 야기한다. 이를테면 충동적인 영웅주의, 일 중독, 성공신경증, 심각한 자기애적 성격장애로 인한 대인관계 문제, 부적응적이고 호전적이며 남을 통제하려는 삶의 스타일 등이다. 이러한 특별함과 불가침성에 대한 신념이 제대로 된 위안을 주지 않을 경우 개인은 반대로 궁극적 구원자에 대한 믿음에 기대게 된다(Yalom, 1980/2007).

또 다른 방어기체인 ‘궁극적 구원자’에 대한 신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능한 중재자, 즉 영원히 우리를 보살피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힘에 대한 믿음이다. 개인의 ‘특별함’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신념체계는 일상의 사건들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이 영원히 돌봐주고 개인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켜줄 것 같은 신념이다. 타인에게 묻혀 버리는 것, 즉 모험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가장 극도의 위험, 즉 자신을 잃고 자신 안에 있는 다양한 잠재성을 탐색하고 개발시키지 못하는 위험에 빠뜨린다(Yalom, 1998/2010).

그래서 Yalom은 궁극적 구원자에 대한 방어가 개인적 특별성에 대한 신념보다 덜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궁극적 구원자에 대한 신념이 상당한 위로를 제공하며 보이지 않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신념구조의 와해라는 위험을 불러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이로 인해 방어기제가 붕괴되면 다양한 병리가 나타난다. 궁극적 구원자의 붕괴가 가져오는 정신 병리는 치명적 질병, 우울, 자기확대 성향, 구조자 방어와 대인관계 문제 등이다(Yalom, 1998/2010).

사람들이 두 가지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죽음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것은 Heidegger의 주장처럼 유한성을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거나 반대로 신경증에 걸려 죽음의 빛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의 대출을 거절하게 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Yalom은 죽음의 현실을 대면하는 충격이 현재의 삶을 더욱 진지하게 하는 경험이 된다고 말하고, May 역시 Yalom의 입장처럼 죽음을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직면하는 것이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고, 타인을 ‘운명공동체’로 여기는 유대감을 갖게 한다고 말하였다(Cooper, 2014).

2) Yalom의 죽음불안 개념

Yalom(2007)은 죽음에 대한 불안을 ‘죽음의 두려움’, ‘죽을 수밖에 없음에 대한 공포’, ‘유한성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의 존재가 무화(無化)되거나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과 깊은 관련을 지닌다(Yalom, 1980/2007).

(1) 죽음과 죽음불안

이러한 존재를 멈추게 하는, 즉 망각, 소멸, 전멸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 불안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에 대한 불안을 다루기 위해 역사적, 문화적 산물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며 죽음을 부인하는데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Yalom에 의하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의 내적 현상, 우리의 방어, 동기, 꿈과 악몽, 대부분의 대중적인 거대 사회구조, 영구적 가치가 있는 업적, 신학, 이념, 공동묘지, 미래를 만드는 것 등 삶의 모든 것이 죽음의 초월성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이런 모든 현상들과 함께 ‘시간 때우기, 유희에 대한 중독, 신화에 대한 끊이지 않는 믿음, 앞서 가려는 본능, 지속적인 명성을 얻기 위한 갈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하였다.(Yalom, 1998/2010).

우리의 일상세계에서의 한계 상황들 즉, 죽음자각과 죽음직면, 상실감, 실직과 같은 개인 경력을 위협하는 사건, 극심한 질병, 관계의 상실(이혼, 헤어짐), 사고나 재난과 같은 경험들은 죽음불안에 대한 자각을 증가시키는 기회를 제공(김정현, 2012)하며, 또 죽음의 불안감은 꿈(악몽)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Yalom이 한계상황이라고 언급한 심각한 질병, 가까운 사람의 죽음,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 강간을 당했거나, 이혼을 당했거나, 수배를 당했거나 하는 일 —등은 죽음의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한 불안감 역시 본질적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다.(Yalom, 1989/2014).

Yalom은 죽음불안이 자유, 소외, 무의미와 같은 인간의 심오한 관심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존적 치료접근에 발생하는 불안은 다른 치료에서

말하는 불안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말한다. 실존의 사실에 직면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안은 치유의 길로 이끄는 안내자이며 확실한 존재로 가는 길을 열어 준다. 그는 불안 없이는 삶을 살 수 없고 죽음에 직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실존치료에서 치료자의 과업은 편안한 상태로 죽음불안을 줄이고, 존재하는 죽음불안은 환자의 자각과 활동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하도록 돕는다(Yalom, 1980/2007).

(2) 자유와 죽음불안

죽음불안을 유발하는 첫 번째 동인이 ‘죽음’이었다면 죽음불안을 일으키는 두 번째 동인은 바로 ‘자유’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자유를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궁극적 관점에서 볼 때 자유는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자유는 우리가 좀 더 접근하기 어려운 관심사이다. Yalom은 실존적 자유는 ‘외부적인 구조의 부재’를 말하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두려움과 묶여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개인은 자신의 세계, 인생, 설계, 선택, 그리고 행동에 책임을 갖는 저자(author)이고, 우리가 서 있는 아래에는 기초가 없는 무(nothing), 공허, 심연만이 있기 때문이다(Yalom, 1998/2010).

만약 사람들이 주어진 자유와 함께 책임을 회피할 경우 필연적으로 ‘실존적 죄책감’이 따른다. 이것은 바로 개인의 잠재성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Yalom은 이에 대해 Heidegger, Tillich, Maslow, 그리고 May가 한 목소리로 말한 ‘죄의식은 통한다! 불안은 통한다! 양심의 소리는 통한다!’를 제시하면서, 실존적인 죄책감은 개인의 완성을 안내하는 기능을 가진 내부의 부름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말한다(Yalom, 1980/2007).

또한 Yalom은 궁극적인 자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때때로 과도하게 방어적이 되거나 병리적으로 되기도 한다고 지적하면서 치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환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책임감을 수용하는데 있다고 말한다. 특히 치료적 변화는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되어야만 하는데, 이때 통찰과 행동사이의 다리가 ‘의지’다. Yalom은 이 ‘의지’를 ‘노력의 방아쇠’로 정의한다. ‘의지’는 소망함(wishing)과 결심(deciding)을 통해 이루어진다(Yalom, 1980/2007).

따라서 Yalom이 생각하는 자유는 Nietzsche의 말처럼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 자신의 삶을 완성하는 것’이다. 때문에 자유는 선택, 책임, 소망, 의지, 결심을 포함한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삶의 저자가 되어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완성하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불안을 느낀다. 더구나 이러한 불안은 개인에게 죽음, 소외, 무의미에 대한 자각을 유발한다. 이 모든 것들이 ‘자유’와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에 대한 불안으로 인간은 책임감과 결심을 회피하려고 하고 변화를 망설이는데 이것은 개성 상실, 자아실현 방해 그리고 어떤 힘의 지배 아래 존재하려는 욕구와 같은 병리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안남희, 2016).

(3) 소외와 죽음불안

소외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먼저 ‘대인관계’ 소외는 자신과 타인 간의 큰 간극을 의미하고 곧잘 외로움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타인과의 친밀감을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는 능력으로 나아질 수도 있다. 두 번째로, ‘개인 내적’ 소외는 개인 내적 통합의 결여를 의미하며, 자신의 분열로 경험되는 것이 보통이다. 끝으로, ‘실존적 소외’는 그 소외의 질과 강도에 있어 앞의 두 가지 유형에 비해 훨씬 깊고 강한 의미를 가진다. 그 이유는 ‘실존적 소외’야말로 자기와 타인 간의 간극뿐만 아니라 자기와 세상 간에 존재하는 다리를 놓을 수 없는 깊은 심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지만 죽음의 절박함 앞에서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실존적 소외’다(Yalom, 1998/2010).

이러한 실존적 고립감은 우리 각자는 실존에 홀로 들어가야 하고 홀로 떠나야 하기에 실존적 갈등은 우리의 절대적 소외에 대한 알아차림과 접촉, 보호를 원하는 소망, 좀 더 큰 전체의 부분이 되려는 소망 사이에 생기는 긴장(Yalom, 1998/2010)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죽음과 자유에 직면할 때 인간은 실존적 소외를 더욱 실감하는데, 이는 불가피한 죽음과 유한한 삶 속에서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게 되어 있고, 자기 삶의 저자가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개인이 느끼는 실존적 소외는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 분리를 경험하고, 이후 독립을 추구하며 성장하게 되는데 이것 역시 분리를 의미한다. 따라

서 탄생, 분리, 성장, 책임, 자유, 죽음은 모두 실존적 소외와 연결되고 죽음불안의 근거가 된다(이대순, 2014).

또한 Yalom은 우리가 실존적 소외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고 단호하게 맞설 수 있다면 타인에게 애정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지만, 고독의 공포에 압도당하면 타인을 향해 손을 내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독한 바다에 빠지지 않기 위해 타인과 불안정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런 경우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무언가 뒤틀리고 왜곡된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소외를 부정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힘, 융합, 보호, 탁월함, 존경을 제공하는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Yalom, 1980/2007).

그리고 인간은 실존적 소외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게 되는데 보통은 자아경계(ego boundaries)를 약화시켜 타인과의 융합을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입(incorporation)하려고 하고 자신을 더 크고 강력한 존재로 느끼게 만드는 일정부분을 타인으로부터 가져오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Yalom이 염려하는 부적절한 인간관계의 결합형태, 즉 관계 실패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개인에게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Yalom, 1980/2007).

더 나아가서 Yalom은 근원적인 소외의 공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소외를 용감하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Heidegger의 말처럼 ‘결사적으로’ 소외를 견딜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과의 관계, 즉 자신과 비슷한 어떤 존재나 신과의 관계를 통해 근원적인 소외의 공포에 맞서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실존적 소외를 대인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관계를 통해서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소외를 완화할 수 있는지 고민한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느낌은 궁극적인 고립감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위안을 제공하기는 한다고 말하면서 Yalom은 인간관계를 통한 죽음 불안의 극복 가능성을 제시하였다(Yalom, 1980/2007).

(4) 무의미와 죽음불안

Yalom은 실존적 관점에서 볼 때 불안의 원천 중에 하나를 무의미라고 본다. 인간을 본질적 의미가 결핍된 세상에 내던져진 의미를 추구하는 피조물과 같다

고 보기 때문에 그에 의하면, 실존적 갈등을 전혀 의미가 없는 세계에서 자신의 의미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하는 내적 갈등이라고 정의한다. 인간의 실존적 역동 갈등은 의미를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에 던져짐으로써 또 다시 의미를 찾아야 하는 피조물의 딜레마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Yalom은 무의미의 문제는 삶을 거대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적인 거대한 관점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 보다는 매일 매일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 무의미를 이기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하나의 방법임을 제시하였다(Yalom, 1980/2007).

인간은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필요로 한다. 또 인간은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구성하면서 유한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인간이 사는 이 세계는 구조도 없고 형체도 없는 세계다. 때문에 인간은 이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존재의 패턴, 존재에 대한 설명,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된다(안남희, 2016).

그래서 Yalom은 ‘의미의 문제’에 처해 있는 딜레마를 두 가지 명제로 가정한다. 첫 번째 명제는 인간은 의미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의미, 목적, 가치, 이상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에게 상당한 고통을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무의미’가 심각한 경우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두 번째 명제는 인간은 자신과 세계, 그리고 그러한 세계 내에서 자신의 상황을 만들어나가는 존재이다. 다시 말해 인생에는 애초에 의미가 존재하지 않고, 우주 안에 위대한 계획도 없기 때문에 삶의 안내는 개인이 창조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Yalom은 의미가 ‘불안 완화제(emollient)’ 역할을 하고, 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의미를 가져야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가질 때 구조 없는 세상과 직면하는데서 오는 불안을 통제할 수 있고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Yalom, 1980/2007).

무엇보다도 그는 무의미에 대한 불안을 죽음과 소외에 대한 불안을 대체하려는 불안으로 보았다. 인간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 근거 없는 세상에서 혼자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홀로 세상에 온 것처럼 홀로 떠나야한다는 것과 같은 죽음과 소외를 자각할 때 무의미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친밀한 관계 또한 거부하게 되고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면서 그 어떤 것에서도 기쁨을 얻지 못한다.

반면 삶의 의미를 필사적으로 찾으려는 사람은 죽음을 초월하고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애쓴다(Cooper, 2014). 그래서 Yalom은 죽음에 직면하여 삶의 의미를 상실한 내담자들에게 죽음에 굴복하거나 피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죽음을 바라보라고 한다. Yalom은 삶의 의미 상실이 죽음의 불가피성과 맞물려 있다고 보았고, 역으로 죽음에 대한 성찰을 강조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통찰하게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자신이 죽음이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경험이라고 명명하면서 심리치료에서 삶의 의미 문제와 죽음이 깊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안남희, 2016).

3) 죽음: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경험

(1) 죽음자각

Yalom은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느낄 수 있게 하면서 모든 사물을 깊이 있게 사랑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경험은 당신도 언젠가는 없어질 운명이라는 것을 인식하는데서 비롯된다고 말한다(Yalom, 1998/2010). 이러한 자기인식은 인생 그 자체만큼 소중한 보물이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치명적인 상처를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인식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많은 대가를 치른 후에 얻게 되고, 이것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든다. 죽음에 대한 불안은 존재의 한 부분으로 어떤 개인도 죽음불안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Yalom은 죽음에 대한 자각을 자신의 심리치료에서 치료적 발판(안남희, 2016)으로 삼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실존적 상황을 상기하는 것을 부인하거나,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Yalom은 사랑하는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자신도 죽음을 맞을 수 있다는 실존적 자각을 가장 잘 촉진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부모가 죽는다면 우리와 우리의 무덤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면서 우리를 지켜줄 방패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Donne은 유명한 그의 설교에서 ‘부음이 다음에 누구에게 울릴지 알지 못한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타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상기시킨다는 것을 강조한다(Yalom, 1998/2010).

또한 Yalom은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단순한 이정표들이 죽음 자각을 유도하는 치료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Yalom, 2014). 동창회, 생일과 기념일, 재산정리, 유서작성, 50회, 60회 생일 등 삶의 이정표들이 죽음자각을 증대시키는 하나의 촉매제로 작용한다. 그리고 꿈과 공상, 심각한 질병 등도 죽음자각을 불러오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나이 들어가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일상의 일들을 통해 좀 더 깊은 실존적 자각의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죽음자각은 삶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경험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안남희, 2016).

실존주의에 의하면 죽음은 인생의 거울(정동호 등, 2004)이다. 그러므로 죽음의 자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도움도 필요하다. 자신의 묘비명이나 부고쓰기, 혹은 죽음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과 같이 ‘실존적 충격’의 인위적인 형태를 제공하는 것은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심오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테면 중세 수도사의 독방 안에 해골이 공통적인 비품이었던 것은 분명 인생의 덧없음을 생각하게 하려는 목적이었고 같은 맥락에서 스토아학파가 ‘만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기를 원한다면 죽음을 묵상하라.’라고 말한 것도 마음속에 죽음을 염두에 둘 때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것들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안남희, 2016).

이와 같이 Yalom은 죽음에 대한 자각이 개인의 변화를 유도하는 내적 경험이 될 수 있고 죽음에 대한 예견이 삶을 허무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삶에 대한 풍요로운 관점을 제공하며 죽음을 자각할 때 ‘우리의 실존은 연기될 수 없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면서 현재의 삶을 더욱 더 충실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마음속에 죽음을 염두에 두게 되면, ‘사람은 자신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주어졌음을 감사하게 된다.’고 한다(안남희, 2016).

그는 죽음과 유한성을 탐구하는데 교육적인 입장을 취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삶이 리허설이 아니며 ‘교환’도, ‘환불’도, 유예도 없는 단 한 번뿐인 삶이라는 것에 직면하게 한다(Yalom & Elkin, 1974). 죽음자각은 개인 내부에 있는 죽음에 대한 방어와 죽음에 대한 태도를 탐색하도록 도우며 죽음에 대한 저항을 없앨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자각은 죽음에 대한 인식의 수용으로 이

어지고 이것은 인생의 중요한 변화를 이끄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Yalom은 죽음에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현재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하고, 삶을 ‘뒤로 미루는’ 경향을 극복하도록 돕는다고 말한다(Cooper, 2014).

(2) 죽음직면

Yalom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Heidegger의 죽음 개념을 가져온다(Yalom, 1980/2007). 우리가 한 차원 높은 존재의 상태로 도약하려면 변경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조건, 개인에게 충격을 주는 첫 단계, 말하자면 존재의 평범한 상태에서 존재의 온전한 상태로 끄집어내기 위한 긴박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긴박한 경험은 훗날 Jaspers가 말한 ‘경계’, ‘경계선’ 혹은 ‘한계상황’이다(Yalom, 1998/2010). Jaspers 역시 Heidegger와 같은 맥락에서 한계상황들 중 하나로 죽음을 제시하면서 한계상황을 경험하는 것과 ‘실존이 된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정동호, 김귀룡, 조대호 등, 2004).

Yalom 역시 죽음을 한계상황으로 정의하며 죽음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실존적 상황을 직면하게 재촉하는 급격한 경험적 사건이고 그 중에서 개인의 죽음(나의 죽음)에 대한 직면은 최대의 한계상황이며 개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상당한 변화의 힘을 갖게 한다고 말한다. 야스퍼스, 하이데거와 함께 Yalom도 죽음을 ‘참된 삶’의 열쇠라고 본다. 이들은 모두 죽음에 대한 자각 없이는 실존의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죽음을 의식할 때 삶에의 열정과 삶의 새로운 의미 또한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강선보, 2003).

그리고 죽음과 대면한 사람이 극적이고 영구적인 변화를 하게 된다면 죽음에 직면하는 바로 그 경험이 변화의 촉매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계상황에 직면하는 충격적인 경험을 ‘실존적 충격치료’의 형태이고 결코 목표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죽음에 직면해 보는 것은 삶을 더욱 충실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일깨워준다고 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는 경험’이라고 명명(Yalom, 1989/2014)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는 경험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되고 일

상적인 삶에서 존재론적인 삶으로 변화된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죽음의 직면’ 그것은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는 경험’이기에 삶의 의미는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안남희, 2016).

그렇다면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는 경험’을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Yalom은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경험은 긴급한 사건이 촉매작용을 한다고 말하는데, 죽음에 임박하지도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은 일상에서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경험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그에 따르면, 죽음 자각과 비슷한 맥락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주는 슬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친밀한 관계 파괴, 중요한 삶의 이정표, 의미 있는 생일, 화재, 강간, 도난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 자녀들이 집을 떠난 후 겪게 되는 빈둥지증후군, 직업을 잃거나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되는 일, 은퇴, 실버타운으로 옮기는 일, 마지막으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꿈을 꾸는 것도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경험이 된다(안남희, 2016)고 언급하였다.

7. 그리스도교의 영성 이해

그리스도교에서 영성이란 하느님의 영과 연관된 삶의 방식과 일치하고 있다. (부영호, 2006). 인간에 대한 성령의 현존뿐 아니라 지식, 사랑, 헌신을 통한 인간의 자기 초월적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영성은 인간 삶의 모든 차원을 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리스도 영성은 심리·영성적 역동관계 안에서 자기 초월성의 실제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귀속시킨다고 볼 수 있다(조옥진, 2005).

그리스도교 신학적 측면에서 영성의 정의는 절대자인 신과 나 자신의 초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변화되는 힘이다(이찬, 2017). Drazenovich는 그리스도교 영성은 실존주의적이라고 밝히고, 영성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행동을 나타낸다(Bryson, 2004). 이러한 영적인 에너지로서 삶에서 활력을 얻게 되고 신과의 관계를 맺어 나아가게 된다. 이런 신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과 이웃, 자연, 세계에 대한 초월적인 자세를 지니게 되고 신앙적인 삶을 살아간다(이찬, 2017).

또한 Kahle와 Robbins(2004)은 영성을 개인의 종교적 신앙과 실천의 독특하고 개인적인 적용이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 Downey(1986)는 그리스도교 영성을 문화내부에서 전통과 관련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 시대의 사건과 희망과 고통과 약속에 비추어 명상과 활동의 요소를 결합하려는 노력으로 카리스마와 공동체에 관하여 관례 안에서 입증되고 표현된다고 하였다. 이는 사람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으로 영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교 영성의 다차원적 성격(Bowe, 2013)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영성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다. 영성은 인간 실존 중 영의 차원과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몸·정신(혼, 마음)·영의 삼중 구조로 이루어진 전인적인 차원에서의 인간 실존 전체와 관련을 맺는 여정이며 이 세 차원 중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모두를 아우르는 전인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 그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원리이다. 육체와 의식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정신-육체 구조 전체가 영성생활을 좌우한다(이찬, 2017).

본 연구에서 가톨릭신자들은 영성과 종교는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깊은 차원을 지니며 실존 또한 인간 삶 전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가톨릭 입장에서 바라본 그리스도교 영성을 더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영성의 개념 이해

‘영성’(spiritualitas)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알기란 쉽지 않다. ‘영성’이란 말은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가 아닌 타종교인에게도 널리 쓰이고 있다 심지어 기성 종교인을 넘어 비 종교인들, 예컨대 세속의 일반인들까지 영성이란 용어를 애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로 사용하는 의미는 다르다(김평만, 2008).

먼저 영성의 어원은 히브리어 ‘루하’(rush) 희랍어 ‘프네우마’(pneuma) 그리고 라틴어 ‘스피리투스’(spiritus)에서 파생되었다. 그 의미는 영혼, 용기, 정열, 숨이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숨’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Bryson, 2004). 영(Spirit)은 육체에 생명을 주는 원리나 활력, 참된 목적, 사람의 지·정·의의 움직임의 근원으로서 인간의 모든 측면을 통합시키며 신체적, 정신적 차원

을 초월하여 역경에 반응(박준양, 2009)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 힘 또는 내적 자원의 총체로서 인간 본성으로 제시하였다(Frankl, 2005).

Elkins 등(1988)에 따르면 영성은 관계성(connectedness)과 통합성(integration)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통해 삶 속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난다. 관계성은 자신, 타인, 자연 그리고 신 혹은 궁극적 존재와의 관계를 의미하며 그 경험적인 준거는 자아인식, 봉사, 화해, 용서, 신뢰, 종교적 행동 등이다(Elkins 등, 1988). 철학자들은 인간의 영성을 일컬어 자기 초월과 진리를 아는 능력 속에서 드러나는 힘 또는 타인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이상에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에게 힘과 활기와 동기를 부여하는 인간적 본질의 측면에 대해서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종교인들은 영성을 절대자, 즉 신으로 인정되는 존재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간의 자기초월능력의 실현이라고 이야기한다(Bowe, 2013).

또한 김용환 등(2009)의 연구에서는 영성을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수직적 차원으로 상위 존재인 신과의 관계를 나타내며 종교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종교적 영성이고, 다른 하나는 수평적 차원으로 자신과 타인, 환경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실존적 영성이다. 종교적 영성은 상위 존재인 신에 대한 인지 및 가치 있는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질병과 고통, 상실 등 삶의 위기에 대처하도록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며, 실존적 영성은 자신과 이웃,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믿음, 가치, 생활양식 등을 형성하도록 하여 대인관계를 통한 사랑과 용서, 믿음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김용환 등, 2009).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영성은 비그리스도교적 생활을 포함하여 과학적 미학적 및 윤리적 가치들과 특히 종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생활 형태를 지칭한다. 이런 의미에서 영성은 그리스도교 영성뿐만 아니라 인류의 다양한 종교적, 신비적 체험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김평만, 2006). 그리고 영성이란 사람들의 삶에 활기를 주고 그들이 초월적인 체험을 하게 하는 태도, 신념, 관습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유진호, 2017). 더 나아가서 영성은 절대자인 신과의 만남에서 나오며 이런 절대자와의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자원을 탐색하여 자신을 재발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이끌어가는 원천이

자 에너지이다(이찬, 2017).

결국 최고의 가치와 이상(理想)이 무엇이냐의 질문에 따라 영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세상에는 무수한 영성이 있게 된다. 생태계 영성, 불교 영성, 가난의 영성, 성인의 영성, 흙의 영성, 몸의 영성, 침묵의 영성, 쉼의 영성 등이 존재할 수 있다(유기영, 2004).

2) 성경에 나타난 영성 이해

그리스도교 영성은 성경에 그 원천을 두고 이해한다. 그리스도교 영성의 중심은 육화(肉化)된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인간에게 구원과 영성적 삶의 이유가 되며 하느님이 인간 영혼의 근원이자 핵심(유진호, 2017)이므로 성경에 나타난 영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구약성경에 나타난 영성 이해

구약성경에서는 ‘영성’이라는 용어가 직접 나타나지는 않고 성령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루아흐(רוּחַ)에서 그 바탕을 찾아볼 수 있다. ruach는 숨이나 호흡과 같은 것으로서 ‘인간 생명의 근원’을 의미한다(창세 7, 11; 시편 104, 29). 그런데 이 영은 바로 하느님에게서 나온다(창세 1, 2; 2, 7; 시편 104, 30; 욥 34, 14). 이 ruach가 바람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하느님의 현존을 나타내며 숨결의 의미로는 주로 생명을 유지해 주는 표시이다. 이러한 하느님의 영은 하느님의 외부로 향하는 활동을 표현하는데 대개 인간과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창조적이고 예언적이며 생명을 부여하고 새롭게 하시는(에제 36, 26) 하느님의 선물로서의 현존을 나타낸다(박진규, 2010; 이영준, 2004).

이러한 영은 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느껴지는 어떤 것이며 인간에 대해 사용할 때는 존재의 내적 핵심을 뜻한다. 또한 하느님의 영은 ‘말씀’과 함께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는 하느님의 위격적인 면모를 이 세상에 드러낸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에서 드러난 그리스도교 영성의 주제는 인간과 세상이 자신의 존재와 생명을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

재하도록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 또한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영을 통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과 민족들을 섬기는 책임과 사명을 완수해야 함을 의미한다(박진규, 2010; 유진호, 2017; 이영준, 2004; 정성윤, 2012).

(2) 신약성경에 나타난 영성 이해

신약성경에서는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인 ‘성령’(Spiritus Sanctus)으로 그리스도교 영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여기에서 성령은 하느님 자신(요한 4, 24)이며 그 영은 예수 안에서 계시되었다. 하느님이 ‘영’인 성령은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두루 나타난다(루카 1, 35; 4, 1. 18; 12, 10; 24, 49). 그리고 성령은 그분의 부활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는 성령강림에서 두드러진다(사도 2, 4-33). 이로써 성령으로 인해 부활한 예수는 성령의 영역 안에 들어가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으로 사는 ‘영’(로마 1, 4)이며 생명을 주는 ‘영’(1코린 15, 45) 곧 성령 자체가 된다(유진호, 2017; 정성윤, 2012).

신약성경의 최후 만찬에서 예수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결부시키며,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사랑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부여한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교 영성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이영준, 2004)하게 되었다.

그리고 성령의 활동으로 예수는 당신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탁(요한 20, 21-23)하시며 성령을 통해 당신 자신을 흠 없는 제물로 바치셨다(히브 9, 14). 또한 성령으로 부활하신(로마 8, 11) 예수는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으며(1코린 15, 45) 우리를 위해 영적 음식과 영적 음료(1코린 10, 3)가 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고(갈라 4, 6) 성령으로 새로 나서(요한 3, 5) 성령에서 나오는 영(요한 3, 6-8) 그리스도와 하나의 영이 되어(1코린 6, 17) 영적 음식이 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따라 살아가고(로마 8, 9. 14; 갈라 5, 16. 18)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드리며(요한 4, 24) 성령께서 맺어주신 열매로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갈라 5, 22)를 얻어 누리게 된다. 이처럼 성령은 초자연적 생명의 원리이며 의화와 성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원동성, 2011).

구약성경에서 그리스도교 영성이 하느님에 대한 응답이었다면 신약성경에서는

회개하는 모든 이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성령은 예수님의 활동을 설명하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실재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영성은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규정하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통해 영적으로 변화된 삶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유진호, 2017).

3) 그리스도교 영성의 역사적 고찰

(1) 초대교회의 영성

초대교회의 영성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 예수의 말씀과 행적이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한 예수의 재림(parousia)을 기다리면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재림이었으므로 모든 것을 쉽게 포기, 즉 재산을 공유하는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다. 삶 또한 금욕주의적인 생활로 이어지면서 애덕의 생활을 중시하였고 가장 위대한 애덕 행위와 가장 완전한 예수의 모방은 순교(martyria)라고 인식하였다(Aumann, 1998).

하지만 그리스도교가 팔레스티나 지방을 벗어나 로마제국으로 확산되고 헬레니즘 문화권에 들어가면서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인들은 이 세상을 단지 한 공간이요 장소에 불과하며 의미 있는 일이란 일어날 수 없는 곳으로 이해하는 이원론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유대인들의 하나의 유의미적 역사가 있었던 것과 달리 시간과 공간이 분리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리스도교는 자신에 대한 이방인들의 오해와 공격, 비난에 대해 신앙의 합리성을 논증하고 변론하기 위해 그리스인의 사고방식, 비유, 개념, 방법 등을 동원해 그리스도교를 소개하였다. 이 시기에 교회 내에 등장한 것이 그리스인들의 이원론에 물든 영지(靈智, Gnosis)주의 이단이었다. 영지주의는 그리스도교에 매우 위협적이어서 교부들이 영지주의 이단에 반박하여 자신의 고유한 신앙을 수호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회를 진리의 기준으로 세움으로서 세속과 구별 짓게 된다. 그 결과 완덕은 가능한 한 하느님처럼 되는데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 영혼은 점차 현세를 초탈하고 욕망과 욕정을 정복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이영준, 2004).

(2) 교부시대의 영성

초세기 그리스도교 최상의 증거는 순교였으나 그리스도교가 합법적 종교(콘스탄티누스 대제, 313년)가 되고 공식종교(테오도시우스 1세, 391년)가 됨에 따라 박해가 종식되었다. 이에 순교에 대한 열정은 제2의 순교라 할 수 있는 수도생활에 귀결되기 시작했다. 수도생활이 보통 신자들에게 하나의 이상으로 받아들여진 사실은 초세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하나의 영성만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곧 그리스도교 생활의 완성으로서의 수도생활이었다. 이들이 염원했던 것은 육체적 쾌락을 단념하고 할 수 있는 한 그리스도를 완전히 모방하는 것이었다(Aumann, 1998).

수도생활에 표현된 그리스도교 영성은 위(僞) 디오니시우스, 에바그리우스, 알렉산드리아의 마카리오와 더불어 동방에서 최고도로 발전하였다. 이들의 내면화된 수도생활이 완전한 정통이기는 하였으나 수도생활에 있어서 기도와 신비주의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멧사리아니즘(Messalianism)의 이단 운동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면화된 수도생활의 극단적 모습들은 이후 중세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4-5세기 서방교회에서는 동방교회의 독거생활의 형태보다는 공동체생활이 애호되었고 이러한 수도생활은 활동보다는 관상에 우위를 두게 된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현세에서의 관상생활 및 활동생활에 대한 가르침에서 어떤 사람도 전적으로 활동적이나 관상적일 수도 없고 오직 이 두 행위의 형태가 개인생활에 변갈아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활동생활과 관상생활을 비교하여 서슴지 않고 관상생활을 우위에 두었다(Aumann, 1998).

또한 교황 그레고리오 1세도 관상이 더 훌륭하다는 관점이었다. 그는 현세적인 것들과 세상에 가치를 두지 말고 내세의 삶을 사랑하라고 권고하였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에 대한 평가절하는 대략 12세기까지 세속을 떠남과 수도생활을 특징으로 하는 관상수도회를 통해 명확하게 나타났다(방효익, 2001).

(3) 중세의 영성

12세기부터 그리스도교 내에서는 마니교(Manichaeism)의 영향으로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대비해서 보는 이원론적 경향이 다시금 나타났고 본격적으로는 중세 말 후기 스콜라 철학의 오캄의 유명론이 그리스도교 철학에 주류를 이루면서 대두되었다. 그 후 ‘영적인’ 또는 ‘영성’이라는 단어는 강한 감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내면생활에 국한된 말로 사용되었다. 특히 프랑스의 장 제르송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영성은 신학적인 사고와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분리시키고 있다. 곧 영적인 접근법은 궁극적인 선으로 인식된 하느님의 일치에 해당되는 것이며, 반대로 신학적인 접근법은 궁극적인 진리로 인식된 하느님과의 일치에 국한된다는 분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세기까지 이어졌으며 하느님이 인간의 이성적 진리와 관계없는 현실 밖에 존재하시는 분으로 이해되었다(Downey, 2001).

14세기의 영성은 위(僞)디오니시우스의 신비적이고 관상적인 영성을 향하게 되는데 이는 아우구스티노적 영성인 신플라톤 사상의 부흥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성적 유산을 이어받은 14세기 독일의 지성주의자들은 사색적 신비신학을 주장, 이 사색적 신비의 선구자 마이스터 에카르트트는 인간적인 노력보다는 고상한 목적을 위한 관상 안에 감각(感官)들을 멀리할 수 있을 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방효익, 2001).

또한 당대의 가장 훌륭한 영성 작품이며 부정적 신비신학의 탁월한 실례가 되는 「무지의 구름」에서처럼 모든 실천적 목적을 위해 영혼을 하느님과 구별할 수 없게 하는 ‘신성화’(Divinization)에 관심을 두었다(Aumann, 1998). 이와 같은 인간에 대한 영육의 이원론적 구분과 인간과 현세생활의 부정적 판단은 그리스도교 영성의 역사에 있어 끊임없이 내려오는 공통된 관점이며 이는 중세의 시기를 통해 더욱 심화되었다(이영준, 2004).

(4) 근대의 영성

중세 말의 탈권위적이고 윤리적 타락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세 초탈의 영성에 의지해야 했고 체계적인 묵상기도와 영성훈련이 점점 더 많은 평신도들에 의해 실천되었다. 이 시기에 뚜렷이 나타난 현상이 인본주의와 문예부흥이었다. 인본주의자로 대표되는 에라스무스는 그리스도교적 생활은 세속 악마와

우리 자신의 욕정을 거슬러 끊임없이 싸우는 생활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기도인데 기도는 의지와 지식을 강하게 하고 지성을 길러주기 때문에 기도를 실천하려면 세속을 피해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Aumann, 1998).

한편 15-16세기 스페인에서는 로올라의 이냐시오, 예수의 테레사, 십자가의 요한 등과 같은 위대한 영성가들로 인하여 상징적, 신비적, 실천적인 영성으로 변화되었다. 이들의 개혁적으로 관상수도회들은 자신들 스스로 이룩한 교회 안으로부터의 개혁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움직임이 일어났고 예술, 학문 등 문예부흥의 영향이 영성 분야에 긍정적으로 도입되면서 신비신학적인 영성적 흐름을 이어가게 되었다. 17세기에 프랑스에서는 두 개의 극단 ‘얀세니즘’(Jansenism)과 ‘정적주의’(Quietism)에 의해 격동을 겪게 된다. 이 시기에 ‘영성’은 후에 영성생활과 그 실행에 있어서 보다 균형 잡히고 건전한 접근법으로 여겨졌던 ‘경건’(devotion)이라는 말과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영성을 내면적인 생활, 완전함의 추구,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총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생활로 이해하였다. 예외적으로 세상 속에 있는 평신도들에게 영성생활이 소개되기는 했지만 이것은 성직자나 수도자들의 더 높은 소명의 덕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의 한 부분에 불과했다(방효익, 2001).

이와 같이 그리스도교 영성은 시대적인 흐름과 환경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유다이즘의 토양 아래 시작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삶의 전체적인 차원을 포괄하는 통합된 영성을 추구(사도 2, 44-47)하였다. 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이원론적 사고에 영향을 받으면서 교회의 영성은 역사 안에서 세상과는 별개의 것으로 이해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관상과 활동의 조화를 이루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관상을 우위에 두었고 그것에 초점(Aumann, 1998)이 맞추어져 있었다.

4) 현대 그리스도교 영성 이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현 시대의 긴급한 요구들과 필요성을 염두에 두면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그리스도교인의 삶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이

공의회를 통해 교회는 세상에 대해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시대의 표징’을 읽고 이를 과제로 삼으면서 교회의 개방을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기 시작하였다(방효익, 2001). 공의회 이후 교회 안에서는 영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대두됨에 따라 다양한 영성적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영성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이 심리학, 신학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담·교육·의학·간호학·심리학·사회사업·중독치료 등의 여러 전문직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무엇보다 내면의 치유와 관련해서 영성에 관한 전문적이면서도 대중적인 문헌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이경열, 2006). 이러한 움직임을 볼 때 영성은 심리치료와는 다른 접근으로 떠오르고 있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건강과 안녕의 삶을 영위하는 목표에 ‘영성’은 빠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영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현대의 그리스도교 영성 또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전인적 차원의 영성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초월하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가 아닌, 즉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이원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를 결합시키는 전체적인 차원으로 이해되고 실천되어야 한다(이영준, 2004).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왜곡된 영성은 삶의 일부만을 강조하는 데서 나타난다. 신학자 Donal Dorr는 균형 이론 영성은 세 가지 주요한 생활영역, 곧 개인적 영역, 간(間)개인적 영역,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러한 영역들을 종교·신앙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 정치적인 차원으로 설명하면서 이 중 어느 것이나 다른 두 가지와 연계될 때 라야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거나 온전한 통합을 위한 작업에 실패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왜곡하는 것으로 보았다(Donal, 1990).

따라서 그리스도교 영성은 인간 존재와 행위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전인적 차원의 영성’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은 인간과 세상,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미쳐야 한다는 말이다(윤창신, 2008). 더 나아가서 전인성은 인간의 구성요소인 육체·정신·영혼이 전체적으로 다루어진 개념이므로 개인의 무질서함을 질서정연하게 바로 잡아주면서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영성이 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유진호, 2017).

(2) 공동체적 영성

그리스도인은 하느님 백성의 일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또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소질과 능력, 과제를 인식하고 이웃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상적 공동체 안에서의 삶으로 초대되었다(Weismayer, 1996).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가치 부여는 도시의 고독이나 익명성을 피해 달아나려는 갈망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 차원들 안에서 보다 긴밀한 상호 의존 관계의 강화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Fiores, 1996).

따라서 공의회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이자 삼위일체 사랑 안에 모인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실재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시킨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서로 아무런 연결도 없이 개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거나 구원하시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들이 백성을 이루어 진리 안에서 당신을 알고 당신을 거룩히 섬기도록 백성을 이루어 진리 안에서 당신을 알고 당신을 거룩히 섬기도록 하셨다. 이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일치’(communio)라는 점, 다시 말해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교회의 실재를 심화시켰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됨으로써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한 몫을 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인 각자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성사를 통해 일치된 공동체로서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상징이므로 그리스도교 영성은 개인적인 차원의 것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윤창신, 2008; 이영준, 2004).

(3) 하느님 체험으로서의 영성

오늘날 과학의 눈부신 발달로 경험의 영역 안에 머무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신비적이고 관념적인 것들을 본능적으로 의심한다. 그들에게 이 세상은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어 그 신적 질서에 의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선사된, 인간적인 질서를 창조해야 하는 역사의 재료이며 건설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과의 만남으로 이해된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만남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지각과 종교적 체험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Fiores, 1996).

현실적으로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에게서 인간이 삶과 체험에서 비롯되는 길을 이용한다. 곧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충만함과 가치들, 또는 생명의 공허와 한계로부터 출발하여 하느님을 체험한다. 한편으로 고통이나 실패, 한계와 죽음 등의 체험은 종교적 의심과 무신론의 동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긍정적으로 겪은 모든 체험을 통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고 하느님께로 향하는 하나의 길임을 깨닫게 된다. 이는 전통에 지속적으로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된 하느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성경과 문화적 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하느님 뜻에 일치하고 정의를 위하여 투신하면서 살아있는 하느님을 체험한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영성은 하느님 체험 안에 그 시작과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영성에 있어서 하느님 체험은 필수적이다(윤창신, 2008).

5) 영성적 인간 이해

영성적 인간이라는 우리의 의식적이거나 전-성찰적인 표상은 과거에는 부분적으로는 종교적, 체험적인 것의 혼합체였다. 하지만 오늘날 심리학, 정신의학, 문화 인류학, 사회학 그리고 뇌의 연구등과 같은 과학의 발전에 의해 영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 또 다른 접근도 필요하게 되었다. 물론 올바른 교리교육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인간은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Imago Dei)이기에 하

느님께서 ‘불어 넣어’(창세 2, 7) 주신 ‘영’(靈)으로 인해 영성적인 존재임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비(非)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영성적 존재로서의 인격 주체에 대한 우리의 표상과 과학들이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새로운 발견들 사이의 대화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그리스도교 영성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영성적 인간’이라는 표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인격과 상충((Kaam, 1995; 유기영에서 재인용, 2004)하는 것이기에 영성적 인간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1) 영적인 피조물인 인간

인간 몸의 구조와 기능들은 그 어떤 설명이나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너무도 신비스러운 현상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인간을 육적(肉的)인 존재로만 말할 수 없게 하는 그 무엇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는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창조되었고 하느님을 닮았다는 영적인 부분을 나타낸다(원동성, 2011).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도 불멸의 영혼을 받은 인간은 ‘지상에서 그 자체를 위하여 하느님께서 바라신 유일한 피조물’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성경과 교회의 설명은 인간은 육체와 영혼 안에서 하나임을 밝혀준다. 다시 말해서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어 존재하다가 결합된 두 개의 요소가 아니며 구체적 인간은 단일적이고 전인적인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영혼과 육체의 합일체로 창조된 인간은 유한한 자신을 뛰어넘어 무한한 존재, 즉 자신의 원천인 하느님을 향하여 뻗어 나가도록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인간이 가지는 근원적인 갈등이 있음과 동시에 인간은 이를 통해 성장 발달하도록 만들어진 영성적 존재이다(유기영, 2004).

그리고 영성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책이나 명상센터를 통해 알게 된 영성은 단지 ‘그 영성’일 뿐이고 현실에서는 ‘자신만을 위한 삶’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성은 하느님 안에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2) 궁극적인 존재를 갈망하는 인간

각각의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궁극적(窮極的) 존재성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그들은 단순히 존재의 견고한 한계성만을 만날 뿐이다. 따라서 궁극적인 타자(他者)이시며 한계성 있는 존재도 아니신 하느님을 제외하고서는 어떤 만족할 만한 궁극적 존재에 대한 갈망을 채울 수 없다. 어떤 의미로는 인간은 하느님을 향하여 하느님께 창조되었기에 하느님을 향한 갈망은 인간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나려하기보다는 부모님, 선생님, 친구, 직장상사 심지어는 제도나 국가를 그들 자신의 만족할 만한 종교적 변화를 위한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상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의 실제적(實在的)인 모습인 한계성 있는 존재로서의 체험이외에는 아무것도 제공해 주지 않는다. 조만간 그들은 이러한 이상화된 대상들이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동시에 허탈감을 느끼는, 즉 한계체험을 통한 존재성에 대한 실망은 좀 더 영적인 단계에서 하느님을 찾게끔 인간을 이끌어주게 된다. 이처럼 인간은 ‘영성적’ 존재이다. 왜냐하면 인간 개개인의 영혼은 하느님께서로부터 나왔고 다시 하느님께서로 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유기영, 2004; 원동성, 2011).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가톨릭신자들의 죽음불안 경험은 어떠한가에 관한 연구 질문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죽음불안을 경험한 참여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참여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세계의 보편적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를 선택하였다.

1. 현상학적 질적 연구(Phenomenological qualitative study)

현상학은 의식현상, 즉 마음에 나타나는 것들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자 하는 연구철학으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현상학의 창시자인 후설은 ‘사태 그 자체로 돌아가라’는 명제를 통해 그것 자체(사태)에서 드러나는 현상의 충실성에 직접 접근하여 본질의 직관, 본질의 인식, 본질의 통찰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배상식, 2012; 이남인, 2015; 이선관, 1996).

이를 위해 후설은 자연적 태도를 중단하고 일체의 전제들에 대해 판단중지(epoche 또는 괄호치기)해야 현상 그 자체에 대한 이해(김영천, 2016)가 이뤄진다고 믿었다. 여기에서 연구자는 연구 중인 현상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자신의 경험을 가두고 모든 것이 마치 처음인 것처럼 신선하게 인지(Creswell, 2015)된다.

이것은 현상학적 자세로의 변화(현상학적 환원, phenomenological reduction)가 있을 때만이 객체의 의식체험이 보편적 유형으로 직접 주어진다. 이러한 의식의 삶, 즉 의식의 흐름은 현상학의 핵심주제인 지향성(intentionality)이 내포되어 있다. 이는 모든 체험이나 정신적 행위는 그 무엇을 향하고 있는 의식의 본질적 속성을 의미한다(나성식, 2007; 홍성하, 2002; Dowling, 2007).

그리고 환원을 통하여 객관세계에서 직접 경험의 세계로의 이행은 그때 그때의 개별적인 사실들을 넘어서서 자유로운 순수 상상작용을 할 것을 권고한다. 무한한 자유로운 우리의 상상작용이 제공한 무한한 변양을 지니면서 이를테면 자유변양(變樣)을 통하여 얻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고, 어떤 하나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해주는 공통점, 보편성을 파악할 수 있다(이남인, 2005; 임헌규, 2000).

현상학은 개인이 경험되어지는 현상의 본질적 의미를 직접 겪은 대로의 생생한 생활세계를 연구하며, 문화적 맥락으로부터 최대한 자유롭게 개방적으로 일상 경험들의 본성이나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 그 결과 이러한 개인이 겪는 감정, 정서적 상태, 태도, 지각된 내적인 경험, 즉 체험으로 이루어진다(김영천, 2016; 천혜정, 2004; Creswell, 2015; Dowling, 2007).

그러므로 현상학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구체적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 공통적(Creswell, 2015)으로 밝히는 현상에 대한 과학이다(김영천, 2016). 후설에 의하면 과학적인 지식은 그 자체로 근거에서 나온 지식이다. ‘무엇의 근거를 안다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필연성을 직관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후설은 과학적 지식의 궁극적 근거를 직관에서 찾았다(김준연, 1999).

이와 같이 현상학적 연구는 모든 참여자들이 현상을 경험하면서 공통적으로 갖게 된 것을 기술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목적으로 현상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연구자들은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현상을 경험한 개인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경험의 본질에 대한 복합적인 기술을 전개하게 된다(Creswell, 2015; Dowling, 2007).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생활세계 그 자체를 몸소 체험한 주관적 의미의 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그들의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상호주관성을 기초(천혜정, 2004)로 하여 삶의 현상을 내부자 관점뿐만 아니라 외부자 관점에서 이해하며 통합(Creswell, 2015)하려고 시도하였다. 연구도구인 연구자는 자료수집과 분석의 과정에서 외부평가자로부터 연구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 검증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이러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이 개인들의 개별적 맥락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질적 연구의 타당도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는 연구(한석실, 2010)에 따라 지도교수의 지도와 자문, 대학원생 동료평가로 제한하였다.

또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이론적 지식과 민감성 그리고 종교적 인간·존재론적 지향을 통해 철학적 사유와 통찰 및 성찰능력(유혜령, 2013)을 발휘하여 죽음불안을 직접 경험한 가톨릭신자들의 체험에 깊이 관여하여 질적 연구과정을 수행하였다.

2. 질적 연구 설계

1) 연구자의 준비 및 연구참여자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를 관찰하고, 질문하고, 상호작용하는 주된 연구도구(한석실, 2010)라고 할 수 있다. 질적 연구 전반에 관한 이론과 지식, 절차를 숙지하며 열정을 가지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과 폭넓은 이슈들을 이해(Creswell, 2015)하면서 연구 설계를 하였다.

우선 연구자는 아동기에 죽음에 대한 필연성을 인지했던 체험이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자연스런 죽음 사색을 통하여 존재론적 인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상적인 죽음이해를 넘어선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죽음을 직면한 종교인들의 죽음불안 경험은 과연 어떠한가에 대한 죽음사건 담론이 본 연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질적 연구의 학문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철학, 현상학, 실존, 죽음, 신학, 영성, 심리상담, 논문 고찰 등에 관해 꾸준히 탐구하였고 연구방법론에 대한 준비과정으로 석사과정 중에 질적 연구론 습득과 지도교수의 조언, 그리고 한 학기 동안 박사과정 질적 연구 수업을 청강한 대학원 동료와 논의를 거치면서 연구자로서 소양을 갖추어 나갔다.

한편 연구자는 연구수행의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감과 연구참여자를 존중하고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인문사회계 연구윤리교육을 모두 이수하였으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죽음직면 경험이 있는 대상자이므로 심층면담 시 고통스러운 기억과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생리학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상태들을 주의 깊게 고려하면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자의 신분을 밝히고 연구의 목적과 연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연구윤리에 입각하여 참여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면서 본 연구에 참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사적정보 사용과 비밀보장의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에 따른 참여자의 인터뷰 진술 내용은 녹음되며 연구가 종료된 후에는 자료를 폐기할 것을

약속했으며 더 나아가 인터뷰 과정 중에 참여자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연구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렸다.

2)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는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표본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과 연구주제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택하는 적절성과 연구현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위해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료 수집을 하여야 하는 충분성을 충족시켜야 한다(강철희, 김미옥, 2003; 신경림 등, 2004).

그러므로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는 대상을 직접 찾아서 선택하는 표집 방법으로 비확률 표집 방법(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s)을 사용(김영천, 2016)하였다. 이는 연구 질문의 적합성과 연구참여자의 주관적 경험의 탐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적 표집방법이다. 또한 인터뷰 현장에서 한 사람의 면담이 끝나면 적절한 참여자를 소개하는 방식, 눈덩이 표집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하였다.

첫째, 가톨릭신자로서 죽음불안을 직접 경험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죽음직면 후 회복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경험자로 사고의 일관성이 있고 대화가 가능한 자로 제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연구자가 참여자의 연령을 한정하지는 않았으나 의도하지 않게 50~60대 연령이 포함되었으며, 8명 모두 기혼자로서 신앙생활은 15년 이상이며, 자녀들의 나이는 24세에서 40세의 범위이다. 참여자들의 경제적 수준은 대략 중산층에 속한 편이었고 거주지는 제주시이며, 학력은 중졸 1명과 고졸 2명, 그리고 전문대졸 1명이고 나머지 4명은 대졸이다.

연구참여자 8명의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인적 사항

번호	나이	성별	학력	직업	신앙 생활	질병(사고) 유형	건강 상태	현재 치료 상태
1	64	여자	전문대졸	주부	30년 이상	대장암	보통	치료종결
2	68	여자	대졸	주부	50년 이상	유방암	건강한 편	치료종결
3	54	남자	대졸	무직	30년 이상	백혈병	가끔 아픔	3개월마다 정기검진
4	55	여자	고졸	주부	20년	난소암	건강한 편	치료종결
5	65	여자	중졸	주부	55년 이상	교통사고	보통	치료종결
6	52	여자	대졸	주부	30년	유방암	보통	6개월마다 정기검진
7	61	남자	대졸	공무원	30년 이상	폐암	건강한 편	6개월마다 정기검진
8	68	남자	고졸	사업	15년 이상	과로	건강한 편	치료종결

● 참여자 1:

2010년 10월에 의사로부터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 초기여서 수술경과도 좋았고 전이가 없어 치료가 종결된 상태이다. 일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다(질병 판정받기 전에 교통사고도 당했었음).

우리 어머니가 막 아파 병원에 입원했. 낮에는 동생하고 오빠가 교대하고 밤에는 우리 신랑, 나하고 순서적으로 밤에 잠자명 해주게. 그때 어머니가 아파서 간호하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라. 위암, 위암하는 소리가... 그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9월 달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0월이 되니 할 일이 없어진 거라. 생각이 난거라. 나 옛날에 위암, 위암이라고 했던 소리가 (생각)난거라. 그래서 위암 수면내시경했.

대장내시경도 해보랜. 원장이 대장암이라고 생각하면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병원에 어떻게 할까 해신디 동생하고 겨우겨우 갔는데 거기서가 초기고, 대장암이 자기가 보기에는 암도 악성암이 있고 선한암이 있다 하드라. 나는 악성암이 딱 하난데 쪼금 큰 건데 근데 나는 그래 가지고 서울에 가서 ○○병원에 가서 수술했지. 10월 말쯤에 나 수술했어.

● 참여자 2:

2010년 6월에 병원가기 전에 가슴을 만져보니 딱딱한 게 있었는데 별로 신경을 안 썼다고 한다. 그 후 남편과 여행을 다녀오고 난 뒤 가슴에 물결한 게 느껴지고 좀 아프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유방암 2기에서 3기로 진행된 상태였다. 수술 후 림프절에 또 암이 생겨서 두 번 수술했으나 치료가 호전되어 종결된 상태이다. 현재 일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는 중이다.

2010년 6월에 병원에서 검사 받기 전 가슴을 만져보니 딱딱한 게 있었는데 별로 신경 안 썼지. 중국 여행 갔다 와서 가슴에 물결한 게 느껴지니까. 그때만 해도 암이 빨리 진행될 거라 생각도 안하고 중국 여행 갔다 와서 가슴 쪽에 좀 아프고 해서 병원 갔는데 암이라고... 유방암 2기에서 3기로 넘어갈 단계였지. 두 번 수술했고 한 번은 가슴 수술하고 나서 조직검사 했는데 림프절에 암이 있다면서 또 수술했지.

● 참여자 3:

2010년 4월에 오른쪽 손이 저려서 병원에 갔는데 뇌경색이 발견되었고, 그해 12월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바로 무균실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병원에서 한 80일 항암치료를 받고 다시 서울 ○○병원으로 가서 4차 항암치료 후 퇴원했는데 다시 재발해서 입원, 또 4개월 후 재발했는데 항암치료를 계속 하면 신장에 무리가 온다 해서 2014년 12월에 골수이식수술을 받았는데 또다시 재발했다. 이후 현재까지 몸에 이상은 없지만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 8년 전에 2010년 4월 달에 그 이렇게 오른쪽 손이 저러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MRI 찍었더니 뇌경색이 있었고 그해 12월에 혈액 혈관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죠. 그리고 ○○병원 12월6일 바로 그날에 음~ 무균실에 입원해 가지고 그날부터 바로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이 가망 없다고 해가지고 남자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봤는데 다행히 항암 결과 저한테 혈액이 맞아가지고 아직까지 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 과정이 너무 긴데... (참여자의 치료과정이 너무 긴 관계로 잠시 숨을 고른 후 다시 이야기 함) 그리고 ○○병원에서 한 80일 항암치료 받고 그리고 의사선생님께 치료 받다 다시 서울○○병원으로 가서 다시 4차 항암치료 받고 거기서 한 160일 정도 입원했고 나중에 퇴원해서... 근데 항암치료만 하다보니까 이제 막 재발하다 보니까 한 1년간 있다가 다시 재발했는데 그리고 다시 입원해가지고 40일 동안 항암치료 받고, 다시 한 4개월 동안 재발해가지고 그 2014년도 12월에 더 이상 항암치료를 하면 신장에 무리가 온다 해가지고 이식처리를 하는데 다행히 우리 막내 동생하고 저하고 맞아가지고 골수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다시 재발해가지고 그 림프구라고 혈액 속에 림프구를 다시 해가지고 그 림프가 뭐냐면 몸속에 있는 암인데 그니까 혈액 속에 있는 암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죽이니까 그래가지고 간수치가 떨어졌고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한 2년 반은 앞으로 아직은 이상이 없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 참여자 4:

2011년 4월에 정기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난소암 진단을 받았다. 난소암 3기 판정 후 수술하고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해서 서울 동생 집에서 외래로 6차 항암 통원치료를 했으며, 다행히 전이가 없어 회복되었고 지금은 치료가 종결된 상태이다.

내가 암을 판정받은 게 음 2011년도 4월 달에 4월5일 날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4월 8일 날 수술을 했는데 나는 그전에도 사실 ○○○ 병원 다니면서 난소 쪽이 안 좋았어. 난소 쪽이 안 좋아서 그때는 그 순간도 한 번 했는데 그게 의사선생님께서 흑만 제거를 했지. 그때 당시 내가 나이가 40대잖아. 그러니까는 흑만 제거를 한 거라.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면서 일 년 후에 또 재발이 된 거. 그래서 또 수술을 했어. 그때 당시는 그랬어. 음 그 의사선생님께서 흑만 제거를 해도 그것이 또 재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난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내가 내 몸이 40대니까는 자궁까지 드러낼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고... 그렇게 거의 병원에 정기검진을 다녀왔어. 그러면서도 정기검진을 다녔어도 내가 아픈 걸 못 느끼고 있었어. 증상이라고 보기에는 내가 속이 조금 미식거리고 머리 아프고 소화가 안되더라구. 이게 나는 원래 내가 머리가 자꾸 두통, 그게 이제 아프니까 계보린도 많이 먹는 편인데 내가 항상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런가 보다하고 탈나고 하면 그런 증상이었는데,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정기검진을 갔는데 그때는 의사선생님이 이게 음 결과 조금 안 좋은데 CT를 찍어 봐야 되겠어요 하는 거라. 그날은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갔으니 CT를 못찍어. 그 다음날 CT를 찍었는데 조금 예후가 안 좋게 나와. 그냥 병원도 내가 싫어서 혼자 다니는 편이고 그래서 또 혼자 갔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깐 그분이 설명을 해주어도 사실 우리는 잘 모르잖아. 근데 아 이거는 (암)같은데 서울병원에 가보시겠어요 이러더라고. 아 딱 느낌이 아 예후가 안 좋구나! 그 생각을 했지.

● 참여자 5:

1985년 경 봄에 오토바이를 타고 시어머님 심부름을 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차바퀴에 딱 눌러 엎드린 상태에 있는 참여자를 운전자가 차를 돌려서 빼낸 후 그 당시 시청 ○○병원으로 이송했다. 혈압이 30으로 계속 떨어지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해서 ○○병원으로 다시 긴급 이송된 후 중환자실에서 20일 정도 지냈다. 그 후 일반병실로 옮겼는데 3개월 동안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 그때 몸이 마비되어서 일어서지도 앉지도 못했고 다리를 잘라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상태였다.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당시의 상황은 말로 다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표현했으며, 10개월 동안 병원생활하고 퇴원 후 통원치료만 했었는데 3년 후 성모성심세미나에 참여한 후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

점심 때 어머님 심부름가다 교통사고가 났어. 음 서른세 살 때 사고가 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엎드린 상태에서 등 뒤에 바퀴에 딱 눌러 있었어. 이 사람이 서툰 사람이면은 이리 돌려 버리면 사람이 넘어가부러. 그리 나오니까 내가 일어난 앉은 거라. 그때 3월 초니까 상당히 추웠어. 시청 ○○병원 거기서 혈압이 30으로 떨어전. 혈압이 30으로 떨어지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거라. 이 사람이 혈압이 30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는데 계속 수혈은 하고 계난 냉동실에서 나온 피라서 그걸로 그냥 수혈을 하는데 수혈은

빨리 안 되고 그 냉동된 게 이리 들어가니까 마구 떨면서 산소호흡기대고 부들부들 떨명도 그 이겨낸. 그날 하루만 피가 28개 들어갔어. 그랬는데 거기서 죽은다고 해가지고 어디로 갔나면 ○○병원으로 갔어. ○○병원에 가니까 이 다리가 완전히 짓이겨져가지고 진짜 다리 한 짝이 고깃덩어리라. 길에 있는 아스콘이 살 속에 박아져부린 그걸 그냥 놔두면 암덩어리가 되니까 맨날 소독하명 짤랐지. 여기도 팔이 나가 불고 척추가 이렇게 3번 5번 사이가 한 이 툭 튀어나와 부난 바닥에 누워서 잠을 못 자게. 남편이 욕장이 생기면 안 된다고 하니까 맨날 알코올로 닦고 중환자실에서 21일 살았어. 그런데 일반 병실로 옮겨왔는데 그때는 어떤 상태나면은 여기(팔) 뿌러져 버리고 차가 몸을 이렇게 (왼쪽다리 아래에서 오른쪽 상반신 위로) 갈아 부니까 3개월 동안 밥을 먹어보진 못했. 고통이야 뭐 너무 심해서 그런가 너무 심해가지고 일어서지도 앉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내가 과연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이 과정을 겪고 항상 계단을 내려올 용기가 없었지. 휠체어 타고 계단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과연 이 병원을 벗어날 수 있을까 밥을 내디딜 수 있을까 이랬지. 10개월 정도 병원에서 살아서 나오니까 퇴원하라고 하드라고. 10개월 정도 병원에서 살아서 집에 왔는데 아이들이 그때는 유아도 있었고 초등학교 2~3학년 시작하니까 내가 걷지 못하니까 챙겨주지 못하고 한 2년, 3년 동안인가 집에서만 통원치료만 했지. 그 고통이란 게 허리끈 줄라매듯이 아팠어. 그 고통이 3년 될 때 성모성심세미나 갔다 와서 나왔어.

● 참여자 6:

2016년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유방암 2기 중반 정도로 암이 진행된 상태라고 판정을 받았다. 그해 12월에 진단받고 2017년 1월에 수술한 후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고 난 뒤 8차 항암 통원치료에 이어 방사선 치료를 작년 9월에 끝냈다. 치료 후 기력이 없어 운동을 하지 못한 관계로 폐에 혈전이 멎쳐서 치료받았고 올해 2018년 1월에 검사를 받고 왔는데 면역력이 낮아서 아직 정상 상태는 아니므로 조심하고 있는 중이다.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2017년 12월에 진단받고 2017년 1월에 수술하고 지금도 그 상태에 있는데도... 그거는 언제 재발할지도 모르는데 항상 아 근데 제가(눈물, 감정 북받쳐 잠시 쉬) 제가 어디가면

말을 못하는데 말하면 눈물부터 나와 가지고... 2016년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유방암, 유방암 2기 중반! 여기서 일반병원에서 진단받고 서울로 간다고 그래서 일반병원에서 갈 데를 정하라고 해서 ○○병원으로 간다고 해서 주위에서 갔다고 하니까 나도 그리로 가게 됐어요. 동생이 경기도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검사 다시하고 수술 날짜 잡고 내려와서 좀 있다가 수술하고 다시 내려오고 또 수술 날을 1월에 잡고 1월에 수술하고 2월부터 항암치료를... 항암치료 후 방사선 받아서 작년 9월 달에 끝났어. 이번에 1월 달에 검사 갔다 왔거든요. 저는 ‘괜찮아요.’ 했는데 아직 면역력이 안 올라와서 괜찮다고는 했는데 보니까 아직 정상은 아니더라고...

● 참여자 7:

2017년 4월에 공무원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폐암 초기 진단을 받고 5월18일에 수술을 한 참여자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었고 평소에 운동으로 몸 관리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암 판정을 받았다. 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친구의 권유로 서울 ○○병원에 가서 다시 재확인했는데 최종적으로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수술 후 다행히 전이가 없어서 퇴원하고 현재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다.

음 이게 4월 달에 암 진단을 받아서 작년 2017년 4월 암 진단을 받아서 5월18일 날 수술을 했어요. 암 진단을 받게 된 건 공무원 건강검진 받는 과정에서 그 4월 달에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이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CT를 찍어보니까 이게 암으로 판정이 맞는 것 같아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가면 암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종합검진을 제대로 받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서울에 가니까 서울 ○○병원은 의사 넷이서 진단을 하더라고요. 네 사람이 다 이게 맞다 이러니까 이걸 저기 암이기 때문에 빨리 절단하는 것이 낫겠다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수술했어요. 이게 그 5월 달에 가서 5월7일 날에 가서 거기서 수술날짜를 5월18일에 잡아가지고 5월18일 날 수술을 하게 됐어요. 저는 암이 초기 1기였어요. 오른쪽으로 보면 맨 위에 거를 절단을 했어요. 일주일 입원하고 ○○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병원 다니고 상처가 다 아물어 가지고 제주도에 내려 왔죠.

● 참여자 8:

참여자는 어디가 갑자기 아픈 게 아니라 몸의 기력이 차츰차츰 떨어지고 생활 하기가 힘든 상태였다. 체력에 한계가 와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다시 검사를 받아보자는 의사의 권유로 한 달 정도 검사만 받고 다닐 때에도 누워서만 다닐 정도로 몸의 체력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한다. 검사기간이 한 달간 소요된 후 주위에서 서울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그동안 검사했던 기록들을 챙겨서 올라갔으나 ○○에서도 큰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의사가 다른 병명은 없고 과로이기 때문에 기력을 회복하려면 일 년이 걸리고 3개월 치 약만 처방받았다.

11년 전 그러니까 내가 지금 68세니까 57세 때 음 크게 아팠어요. 이 증세가 어디가 갑자기 아픈 것이 아니고 음 그러니까 내 자신이 모르게 갑자기 아픈 게 아니었고 서서히 기력이 저하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기력이 차츰차츰 떨어짐을 느껴져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병원에 우리 와이프가 가서 검사를 한 번 받아봅시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음 한 번을 받게 된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받게 됐어요. 왜그냐니까 처음에 피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피도 뽑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다시 병원에 가서 결과를 이렇게 보는데 증세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증세가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그 다음 주에 다시 그 촬영을 해보자 여러 가지 피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해서 또 검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병원에서는 검사하는 기간이 음 한 달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증세가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피검사를 해서 CT를 찍고 그렇게 했는데도 나오지 않아 가지고... 기력이 몽땅 완전히 그 뭐랄까? 체력이 다 떨어진 체력, 체력이 다 떨어져서 이렇게 앉아 있을 힘도 없었어요. 그 성당에서도 ○○○가 그렇게 큰 병에 걸린 줄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주위에서 그러지 말고 서울로 ○○병원으로 한 번 가보십시오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동안 CT촬영 했던 기록들을 거기서 해달라고 해서... 음 그렇게 인제 서울에 있는 아이들에게 아빠가 서울에 ○○병원에 지금 진료가려고 하니까 아빠가 차를 못타니까 애네들이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아이들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거기서도 큰 이상이 없고 의사가 이 다른 병명은 없고 과로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음 한 3개월 치 약 처방을 내려줬죠. 그럼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겠습니까? 하니까 음 기력

을 회복하려면 1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1년 음 1년 동안 이것이 갑자기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몸이 점차적으로 좋아지지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다고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닌게 아니라 나가 회복한 거는 의사말대로 1년 정도 걸렸어요.

3) 자료 수집방법

질적 연구 방법을 수행하는데 있어 연구자는 자신이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와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자료 수집이 중요하다. 즉 연구참여자의 삶과 경험을 있는 그대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특정 현상을 겪은 여러 개인들이 체험한 마음에 대하여 의미를 기술하고 본질적 구조를 탐구하는 방법(전영국, 2017)이다.

그러므로 현상학적 연구 자료는 현상을 경험해 온 개인들로부터 수집되며, 자료 수집은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담으로 구성된다(Creswell, 2015). Seidman(2006/2009)은 체험과 같은 특정 현상을 다루고자 하는 현상학적 연구자는 면담이 인간행동의 맥락(context)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며, 이를 통해 연구자가 그 행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제공(Seidman, 2006/2009)해 준다고 하였다.

또한 현상학은 생활 세계의 경험된 의미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질적 인터뷰에서의 이해의 양식과 일치한다(천혜경, 2004).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인터뷰라는 심층면담을 통하여 언어적, 상호 개인적, 해석적 방법으로 참여자 자신의 체험을 대화(언어)로부터 언어 상호주관적 작용으로 참여자의 본질을 더 객관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자기이해가 열리는 성장여행이라고 표현한다(Kvale, 1998).

이에 본 연구자가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의 죽음불안 경험에 담긴 의미를 포착하면서 인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현상학적 심층면담 방법을 실시하였다.

(1) 심층면담 진행과정

본 연구주제와 목적에 부합된 8명의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자가 직접 만나서 인

터뷰에 응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참여자로 가능하다는 허락을 받은 후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만남은 조용한 성당에서 이뤄졌고 참여자들 대부분 자신의 죽음불안 경험을 회상하며 마음속에 있는 말을 전부 털어놔서 속이 시원하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면담에 임해줘서 인터뷰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연구자가 공감적으로 경청해줘서 행복했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잘 써달라고 연구자에게 부탁하는 한편, 참여자가 겪어온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의 씨앗을 심어주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이런 기회를 통해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었다며 오히려 연구자에게 고마움을 전달했다.

질적인 자료를 풍부히 이끌어내기 위하여 친밀감(rapport)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참여자가 동반자로서 연구에 응할 수 있도록 정성(Seidman, 2009)을 쏟았으며, 직접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자가 직접 만든 감사카드를 드리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면담을 이끌어갔다. 또한 심층면담을 진행함에 있어 본 연구의 의도에 맞는 면담이 되게 하기 위하여 질문지를 미리 만들어서 질문에 임하였다. 그러나 참여자의 이야기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질문지의 순서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았다.

본 연구자는 2017년 7월25일에 예비면담을 실시하여 연구자가 질문지를 만들면서 자신의 모든 유형의 전체의 내용을 반성적으로 검토하면서 형식적인 명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체험을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해 상호주관적 검증의 과정(이남인, 2015)을 거쳤다.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 중순까지 진행되었고,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2~3회에 걸쳐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매 회기마다 50분에서 2시간 길게는 3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심층 면담 구조는 절대적인 것이 없으므로(Seidman, 2009) 참여자가 면담 후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산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시간적으로 여유를 두거나 서로 융통성 있게 조율하면서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추수면담이 필요한 참여자는 진정성 있는 만남을 위해 전화면담은 일체하지 않고 직접 만남을 통해 그들의 생생한(vivid) 언어를 경청하면서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참여자와의 돈독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면담 기록은 녹음과 중요한 부분은 메모를 동시에 하면서 참여자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가며 그들의 비언어적 표정이나 몸짓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극적 경청의 자세를 유지하였다.

연구자는 1차 면담 후, 바로 반복적인 듣기과정을 통하여 문서로 전사하였으며, 시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사하였다. 2~3번의 반복적인 듣기와 보완을 통하여 참여자의 진술을 정확히 기술하였고 전사본을 통하여 파악된 1차 면담 내용을 다음 면담에서는 더욱 명료화하여 이전의 면담에서 진술한 내용과 그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와 분석을 참여자에게 재확인하였다. 참여자로부터 더 이상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포화상태(신경림 등, 2004)에 이를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2) 현상학적 심층면담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현상학의 고유한 근본이념을 연구 논리로 삼아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어 사유가 무르익어야 한다. 곧 연구자의 존재론적 성찰과 총체적 현상학적 태도 변화의 과정이 자기반성과 능동적인 의지의 결단으로 존재가 성숙되는 인간성(Menschheit)으로서의 실존적인 변화(유혜령, 2013)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자는 질적 연구방법에서 자료 수집을 위한 도구가 되며 자기반향성(reflectivity), 즉 연구과정 내내 연구자가 스스로를 고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연구의 질을 결정(강철희, 김미옥, 2003)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현상학의 이념을 본 연구방법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상학적 태도에 속한 판단중지를 유지하며 존재론적 지향을 통한 참여자의 현상을 깊은 수준에서 이해하고 이전 지식과 경험을 유보하거나 초월(유혜령, 2013)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현상학적 연구에서 자료는 현상을 경험해온 개인들로부터 수집되며 이러한 자료 수집은 연구참여자와의 일련의 텍스트로 구성된 이야기(narrative)이자 한 인간의 존재 방식이며 세계를 해석하고 실천하는 일상적인 과정이다(전영국, 2017; Creswell, 2015). 그러므로 연구자는 참여자의 풍부하고 기술적인 자료를

도출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소함(newness)과 공감적 이해, 개방성, 민감성, 반응성(김영천, 2016)을 갖고 참여자들의 경험에 접근하였다.

먼저 본 연구자는 가톨릭신자로서 경험하는 죽음불안은 어떠한가라는 개방형의 질문 형태를 구사하면서 자유로운 대화로 비구조화된 질적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현상의 본질에 대한 편견 없는 묘사에 도달하기 위해 현상에 대한 상식과 과학적인 선입견을 괄호 안에 넣으면서(Kvale, 1998) 하위 질문들을 이어나갔다.

가톨릭신자로서 죽음직면에 따른 죽음불안에 관하여 무엇을 경험하였는가? 그 현상에 대한 경험에 전형적으로 영향을 준 맥락이나 상황은 무엇인가? 라는 경험의 조직적 기술과 구조적 기술을 이끌어 낼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연구참여자들의 공통된 경험에 대한 이해(Creswell, 2015; Seidman, 2006/2009)를 위한 질문을 하였다.

더 나아가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말해 주는 경험을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관점, 태도, 갈등, 가치 등에 관하여 공감(전영국, 2017)하였고, 죽음과 관련된 회상으로 눈물을 흘릴 때 연구자도 같이 울어줌으로써 비언어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참여자가 마음을 가다듬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Cooley가 언급한 공감적 내성 원리는 참여자의 마음은 항상 하나의 전체이고 삶(인생)도 하나의 전체(전영국, 2017)이다. 따라서 인터뷰 과정에서 참여자가 말한 맥락의 의미를 이해하며 내용의 행간에 말해진 잠재된 의미뿐만 아니라 말하지 못한 것, 말할 수 없는 것들에 주목하였다(김혜자, 2015; 천혜정, 2004).

4)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가 적용한 현상학은 살아 있는 인간이 경험한 주관적 현상이 드러나는 그대로 그것과의 원초적인 접촉을 유지하면서 연구대상의 인식과 경험들의 본질적 측면을 섬세하게 묘사하려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다(김분한 등, 1999; 이남인, 2015).

현상학적 분석방법은 특정의 연구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전체 현상에 대한 포괄적인 기술을 위해 자료로부터 공통된 관심의 주제나 범주들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으로 주로 Colaizzi, Giorgi, Van

Manen, Van Kaam, Moustaksa 등이 발전시켰다(김분한 등, 1999; 이남인, 2005; Dowling, 2007).

본 연구는 인간 내면을 탐색하고 경험의 보편적인 본질의 의미를 파악하여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에 적합한 Colaizzi(1978)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분석방법은 심층면담을 통하여 얻은 원자료에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도출하여 일반적인 문장으로 재진술하여 구성된 의미로 끌어낸 후 주제, 하위범주, 범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Colaizzi의 분석방법으로 전체 연구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추출하는데 초점(김분한 등, 1999)을 맞추어 참여자가 진술한 전체 내용, 즉 죽음불안 경험의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전체 텍스트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에서 시작하여 보편적인 의미를 얻으며 그 다음에는 의미 있는 주제나 표현을 도출시키고, 다시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본 후 텍스트 자체의 자율성을 인식하며 참여자의 경험세계에 대해 이해(김혜자, 2015)하는 절차를 거쳤다.

Colaizzi(1978)의 분석방법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자료에서 느낌을 얻기 위해 전체적 맥락을 염두에 두고 기술(protocols)을 반복해서 읽는 단계이다. 연구자는 우선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면담상황을 떠올린 후 전사된 원자료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고 밑줄을 그으면서 내포된 의미를 탐구하였다.

- 2단계: 탐구하는 현상을 포함하는 구, 문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나열하는 수평화 단계이다. 의미 있는 진술들을 주의 깊게 반복해서 읽으면서 중복되는 표현은 배제하고 다른 참여자의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미 있는 구, 문장을 선택하여 의미 있는 진술로 도출하였다.

- 3단계: 의미 있는 진술에서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general restatement)하는 단계이다. 원자료에서 말하고 있는 현상의 숨겨진 의미를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하였다.

- 4단계: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구성된 의미를 끌어내는 단계이다. 각 단계의 속성과 수준이 일치하는가를 평가하여 모순된 점이 없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면서 원자료와 반복적으로 점검하였다.

- 5단계: 도출된 의미를 공통된 주제, 하위범주(주제모음), 범주로 조직하는 단

계이다. 현상적 경험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통합하여 가톨릭신자의 죽음불안 경험과 현상에 대해 범주화하였다.

● 6단계: 연구주제의 근본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명료한 진술로 바꾸어 최종적인 기술을 한다. 연구자의 주관적인 이해에 대한 객관성을 드러내기 위해 다시 분석과정과 결과를 상호 점검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의 살아있는 경험을 그대로 기술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의 결과물을 참여자들에게 보여주어 참여자들의 경험과 연구자의 기술을 비교, 검토하면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5) 연구의 엄격성 및 연구 평가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엄격성(강철희, 김미옥, 2003)과 연구 평가의 검증과정으로 Guba와 Lincoln(1985)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 적용가능성, 일관성, 중립성의 4가지 기준(김분한 등, 1999)으로 타당도, 즉 신뢰성(나장함, 2006; 이혁규, 2004; 한석실, 2010; Creswell, 2015; Seidman, 2006/2009)을 충족하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truth value)는 연구결과가 얼마나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구성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질적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의 진술 내용을 맥락에 근거하여 현상을 정확하게(한석실, 2010; Seidman, 2006/2009), 그리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였으며 내용적 포화가 되지 않은 부분은 2~3차 인터뷰 시 1차 면담내용과 연결하여 다시 심층 질문하였다. 또한 가톨릭신자로 구성된 연구참여자들의 죽음불안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황창연 신부의 인터넷 공개 자료 ‘죽음 꺼안기’(1-9부)를 참고하였다.

둘째, 적용가능성(applicability/transferability)은 연구에서 발견된 결과가 다른 맥락(강철희, 김미옥, 2003)이나 상황에서도 연구결과가 적용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연구자는 적용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현상에 대해 생생한 언어로 충분히 기술하였고 죽음불안 경험을 한 가톨릭신자뿐만 아니라 타 종교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본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유사한지 재확인하였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은 신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경험이 있는 지도교수의 지도와 자문을 받았으며 동료 대학원생과의 평가와 논

의를 통하여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치면서 연구결과의 일관성을 높였다.

넷째, 중립성(neutrality)은 연구의 객관성으로 연구자는 면담 진행과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에게 대한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 판단중지(팔호치기)하였으며 참여자와 동반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구자가 주관적 개입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였는지 지속적으로 자기검증과 자기비판을 거쳤다. 더 나아가 연구자가 의도적 표집으로 8명의 연구참여자와 면담을 하는 상호작용 과정, 그리고 참여자가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훈련받고 헌신하였다 할지라도 연구자 또한 그러한 과정의 일부분(Kvale, 1998; Seidman, 2006/2009)이었다. 그렇지만 연구자는 질적 연구의 연구도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수집되는 자료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고, 아직도 쟁점이 되고 있는 질적 연구의 타당도 문제를 고민하고 통찰해 나가면서 다양한 자료, 방법, 조사, 그리고 이론적(한석실, 2010) 질을 제고하여 타당도 준거의 기준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서술

본 연구는 죽음불안을 경험한 가톨릭신자들의 총체적인 경험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질적 연구접근을 시도하였으며 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여 의도적 표집을 한 연구참여자 8명을 심층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한 녹음된 자료들은 3일 이내 전사하였고 Colaizzi(1978) 분석방법으로 가톨릭신자들의 보편적인 경험의 본질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맥락적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연구참여자의 진술에 근거한 53개의 구성된 의미, 21개의 하위 범주(주제), 10개의 범주로 도출하였다. 10개의 범주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불안들과 대면’, ‘세상일과 나 자신에 올 인(all in)하며...’, ‘죽음의 망각에서 인지(認知)로의 탈바꿈’, ‘새 인간의 형상으로 변모’, ‘나, 타인, 그리고 하느님은 하나’, ‘종교적 삶: 감사와 위로의 시간’, ‘죽음에 대한 자기 개방성의 확대’, ‘고통은 나를 성장시키는 디딤돌’,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나, 하느님의 도구이자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이다. 연구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연구참여자들의 진술과 이에 따른 연구자의 해석으로 서술하였다.

<표 2> 연구결과: 범주, 주제, 주요 진술로 형성된 의미(개념)

범주	주제	주요 진술로 형성된 의미(개념)
범주 1. 눈에 보이지 않은 불안들과 대면	죽음직면 순간: 불안과 부인이 교차함	다리가 후들후들...
		병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분투하며...
		사고(思考)의 혼란
		두려움이 다시 엄습(掩襲)
	죽음직면 이후: 통제할 수 없는 고통과 마주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
		꿈과 현실 사이에서...
		재발에 대한 두려움
범주 2. 세상일과 나 자신에 올 인(all in)하며...	집착에서 욕심으로...	돈도 못써보고 죽는다는 게...
		건강을 과신했어요!
		일중독이다 할 정도로...
	나 자신과 관계의 어그러짐	남편에 대한 섭섭함과 미움
		삶의 무의미감에 짓눌려...
		내 중심적인 판단이나 행동은 완전히 엉터리죠!
범주 3. 죽음의 망각에서 인지(認知)로의 탈바꿈	죽음을 잊거나 기피	가까이하기엔 너무나 먼 죽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지!
	죽음을 점점 더 수용	봉사활동으로 죽음을 생각하며...
		이젠 자연스럽게 순연히 받아들여요!
범주 4. 새 인간의 형상으로 변모	내게 왜? 라는 물음보다 순리대로...	운명에 순응...좋은 일이 많겠어요?
		두 번 주신 삶에 감사하며...
	회개하라는 사인(sign)	참 신앙인답게 살라고...
범주 5. 나, 타인, 그리고 하느님은 하나	하느님의 도우심	하느님이라는 든든한 뺨!
		희망이 솟구침
	가족은 나의 원동력	더 살갑게...더 즐겁게 살아가기
		마음을 다시금 다잡고...
	타인과 공동체의 도움으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고통의 길을 함께 걸어줌

범주	주제	주요 진술로 형성된 의미(개념)
범주 6. 종교적 삶: 감사와 위로의 시간	절대자 하나님께 의지	내가 힘들 때 업고가시는 걸요!
		정신적인 힘과 평온의 원천은 그분과의 대화, 속삭임으로... 미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현존을 체화(體化)하며...
	삶의 평안을 맛보다	기도는 나의 호흡 성경말씀으로 위로를 얻으며 다시 일어서기 독서와 묵상은 나를 계속 개선시키죠!
범주 7. 죽음에 대한 자기 개방성의 확대	너나 나나 죽는 거 똑같으매...	생(生)의 유한함을 새롭게 바라보며... 하느님 안에서 기쁘게 죽음 껴안기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위기를 기회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충실하게... 주변정리는 필수, 마음정리는 매일 그렇게 살다보면... 담담하게 맞서기 위해 나를 단련시키겠습니다!
범주 8. 고통은 나를 성장시키는 디딤돌	깨달음의 옷을 입으며...	그 순간 내가 깨달았어! 하느님 사랑으로 힘입어 이웃을 내 몸처럼...
	신앙생활은 Good!	믿음이 달라졌어요! 사람에 대한 소중함 저는 천주교 신자라는 게 좋은 거 같아!
범주 9. 메멘토 모리 (Memento mori)	죽음불안 교육이 필요함	언제 갈지 모르니까... 아직... 그러나 반드시 누구나 죽기 때문에...
	죽음은 삶과 상호보완적	이쁘게 죽자! 아, 죽어도 괜찮겠구나! 현 세상은 잠깐... 새로운 삶으로...
범주 10. 나, 하나님의 도구이자 사랑을 주요받는 존재	나의 참된 정체성을 되찾으며...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마음이 확대 좋은 본보기가 되자!
	신앙의 눈으로...	즐겁게, 할 수 있을 만큼...할 수 있을 때까지...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나!

범주 1. 눈에 보이지 않은 불안들과 대면

인간 존재의 한 부분인 죽음불안은 일상생활에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 즉 존재의 사라짐을 예고하는 질병이나 사고는 명백한 죽음불안(Tomer, 1994)을 일으킨다. 실존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고 죽으면 끝이기에 누구나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한다. Yalom에 의하면 이 죽음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을 감싸고 있던 보호막이 해체되면서 심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고 말한다(안남희, 2016). 참여자들은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서 심리적 불안, 신체적 반응과 고통, 사고의 혼란, 피할 수 없는 존재론적 갈등을 경험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가족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과 걱정,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죽음의 위기를 당한 참여자에게 나타난 반복적인 꿈은 심리적인 불안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꿈에서는 죽음이 최종적 종말이 아니고 미지의 형태로 삶이 계속되도록 이어주는 심오한 변환과정이 나타난다. 이같이 꿈 꾀 내용을 낙관적인 의미로 해석(Franz, 1999/2017)하여 현실의 난관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힘을 제공하는 수단이 되었다. 도출된 하위범주로는 ‘죽음직면 순간: 불안과 부인이 교차함’, ‘죽음직면 이후: 통제할 수 없는 고통과 마주함’이다.

주제 1. 죽음직면 순간: 불안과 부인이 교차함

Crain과 Abeloff(1974)의 연구에서 암 환자가 자신의 진단명을 알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 8가지— 부정, 퇴행, 정보 수집을 통한 통제, 불안, 우울, 분노, 집안·돈·직장 걱정, 질병에 대한 환상—중 특히 주된 정서 반응으로는 불안과 우울(Crain & Abeloff, 1974)이었다. 참여자 1, 4, 6, 7는 암이라는 진단결과를 받고 다양한 감정반응을 경험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성차 구별 없이 신체적·심리적인 불안감을 표출했을 뿐만 아니라 판단력 상실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참여자 4, 6, 7는 암 진단 이후 수술을 기다리는 시간, 앞으로 진행될 수술에 대한 걱정,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심리적 불안이 증폭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참여자 8은 병명을 알 수 없어

서 굉장한 심리적 공허감과 점점 느껴지는 신체적 쇠약함으로 죽음불안 경험을 하게 되었다.

1) 다리가 후들후들...

위내시경하러 갔다가 대장내시경도 하게 되난. 그래 가지고... 그 대장암이라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대장암이라는 걸 확실하게 하젠 그 어디 보내드라. 한 일주일동안 육지로 보내드라. 경혈 때 진짜 불안하드라. 눈이 캄캄하고 대장암이 틀림없다 아이고 진짜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더라. 아이고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 옛날엔 암하면 거의 죽잖아. 막 진짜 불안하고, 특이한 거는 나 죽는다는 게... 살아오면서 허망하다고 느낌도 들고...(참여자 1)

근데 이게 그 조직검사가 일주일 걸리니까 그때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때...(연구참여자 가 울음을 참아서 연구자가 울어도 괜찮다고 다독여 줌) 제발 암이 아니라고 해달라고 그 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더라고... 그때 생각에 '아 이제 죽는구나! 죽는구나!'(참여자 6)

그때는 이제 암이라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중간에 다리가 풀리죠. 아 내가 어 이렇게 까지 살지 않았었을 텐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솔직히 건강하고 다른 사람보다 검소하고 부지런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암에 걸렸나 그전에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았고 운동도 매일하죠. 걷기운동도 매일 만보 정도 걷고 또 걷기운동 말고도 산에 갈 때 보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었죠. 모든 게 다 건강했는데 내가 거기에 해당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당하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가면 암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종합검진을 제대로 받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서울에 갔어요.(참여자 7)

죽음불안을 굉장히 많이 느꼈죠. 병명을 알 수가 없어서... 위암이다 대장암이다 뭐다 라고 알아도 좋을 텐데... 병명을 모르고 못 잡아내니까 굉장히 공허하고 불안하죠. 그니까 위암이 걸렸다 하면 마음을 추스려서 이렇게 수술 받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참여자 8)

2) 병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분투하며...

이 증세가 어디가 갑자기 아픈 것이 아니고 음 그러니까 기력이 차츰차츰 떨어짐을 느껴져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음 한 번을 받게 된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받게 됐어요. 왜그냐니까 처음에 피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피도 뽑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다시 병원에 가서 결과를 이렇게 보는데 증세가 나타나지를 앓았어요. 증세가 나타나지를 앓으니까 그 다음 주에 다시 그 촬영을 해보자 여러 가지 피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해서 또 검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검사하는 기간이 음 한 달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증세가 나타나지를 앓으니까 피검사를 해서 CT를 찍고 그렇게 했는데도 나오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그 성당에서도 나가 그렇게 큰 병에 걸린 줄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때 아파도 성당에 미사는 나왔죠. 미사 중에 이 뒤에서 그러니까 (뒤통수에서)식은 땀이 나도 모르게 쪽 흘러 내려가지고 식은땀이... 너무 놀라 가지고 어디가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이렇게... 그래서 미사 후에 그 본당의 신부님께 제가 좀 아프니까 안수기도를 좀 해주십사 신부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성당에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똑같이 식은땀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니까 신부님께서 ○○○○형제님, 어디 몹시 많이 아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그동안 CT촬영 했던 기록들을 거기서 해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서울로 ○○병원으로 갔죠. 거기 가서도 한참 기다리고 진료를 받았는데 역시 ○○도 피검사를 했는데 큰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참여자 8)

3) 사고(思考)의 혼란스러움

그 전날에 싸인 할 때 있잖아. 싸인 할 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대. 그럴 땐 좀 그렇더라. 햇빛 못보고 가는구나.(참여자 1)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고 또 암이라고 하니까 기도부탁하기도 했고 뭐 불안이나 두려움을 몸으로는 느끼고 표현되지. (수술받기 전에) 그러니까 요즘 병자성사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옛날에 중부성사라고 죽을 때 받는 건데 그래서 나는 깜짝 놀라서 안 받겠다고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서... 막상 알고는 있었지만 병자성사니까 안 받고 (신부님께) 안수만 받았어.(참여자 2)

서울에 가니까 서울에 ○○병원장이 최고전문가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의사 넷이서 진단을 하더라고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다 이게 맞다 이러니까 이견 저기 압이기 때문에 빨리 절단하는 것이 낫겠다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술하려면 수술 그 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때는 너무 보이는 게 하나도 없고 판단력이라는 이런 것도 안 생겨 가지고...(참여자 7)

○○○○병원에서 ○○병원으로 갈 거면 안 갈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기력이 없어서 땀까지 못하니까 그 정도로 기력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질 못했어요. 기력이 몽땅 완전히 그 뭐랄까? 체력이 다 떨어진 체력, 체력이 다 떨어져서 이렇게 앉아 있을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로 안 가겠다고 했어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 여기서 죽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갈등을 했어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집 안에서 죽어야지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죽으면 이렇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참여자 8)

4) 두려움이 다시 엄습하며...

그 긴장감은 언제 오냐 하면 수술 말고 그 검사를 하고 나서 기다리는 순간 그때는 나도 모르게 조금 아 내가 마음을 다잡으면서도 그때가 진짜 좀 불안하고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도 시간이 걸려서 수녀님이 어디 가지 않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제 수술실을 향해서 가는데 사실 나는 눈을 감안. 완전 미로라 어디로 어디로 들어가는지 너무 길게 들어가. 근데 그 사이에는 조금 섬뜩하긴 해. 그래서 아예 눈을 감안.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내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라. 기다리는 동안에도 사실은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 사실은 시간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내 마음속으로 엄청 두근거려.(참여자 4)

수술하기 전에 마취에서 깨어나야 되니까 내가 처음이니까 그때 내가 못 깨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수술하고 입원해서 열흘 정도 1인실에서 지냈는데 그때 병원에 있을 때는 진짜 힘들더라고. 왜냐하면 아직 몇 기라고 안 나와서 그때 그 순간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는 퇴원할 때 해주거든요. 그런 아직 최종결과는 안 내렸으니까.(참여자 6)

음 저 수술을 이제 해야 된다고 그럴 때 진짜 불안하더라고요. 수술을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루 전날 입원해 가지고 다음 날 이제 수술을 한다고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준비하는데 너무 하나도 모르니까 다음 날 오전에 수술한다고 그러는데 옷을 입히고 하더라고요. 기다리는 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안 가고 수술한다고 입원 환자복 입고 앉아 있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힘들어 하는데 마취가 덜 되가지고 수술한 소리가 다 들렸다는 사람이 있고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아 그런 일이 나한테 있으면 안 되는데 만약에 내가 수술하는데 수술하는 소리를 내가 듣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수술하다가 잘못된 분 또 뭐 열어 보니까 더 심할지도 모른다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막상 그게 이제 수술대에 올라가서 몸을 수술할 때 제일 두려운 게 수술하기 직전이에요. 결과를 알 수 없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두려움이 차올랐어요.(참여자 7)

주제 2. 죽음직면 이후: 통제할 수 없는 고통과 마주함

참여자 3, 4, 6은 치료기간 동안 고통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기 통제 능력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겪었다(EM P. American handbook of psychiatry S Arieti (ed), 1974; 강지인, 김종흔에서 재인용, 2010). 특히 참여자 4, 6은 암과 관련된 통증, 즉 생소한 항암제 치료의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육체적인 고통과 한계로 죽고 싶은 마음과 다음 예정된 항암치료를 받기 전 예기불안으로 이중고통을 경험하였다. 암환자는 생존기간 동안 질병 재발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경험하므로(Hauss, Hinz, Hockel, Krauss, Kortman & Stolzenbur, 2010; 김세은에서 재인용, 2015) 참여자 2, 4, 6은 자신의 이차적인 재발에 따른 염려를 호소하였으며,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다는 두려운 감정을 보였다. 백혈병 진단을 받은 참여자 3 또한 재발에 대한 고통스러운 심리적 불안감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나이 든 성인의 죽음과 죽음불안 연구자들(Cicirelli, 2002; Thorson & Powell, 1992)은 자신의 죽음이 자녀나 배우자 등의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참여자 2, 4, 5, 6, 7는 남편과 아내, 어린 자녀들, 친정 부모님보다 먼저 죽을 거라는 생각에 불안해하며 눈물을 흘렸었고, 참여자 3, 4, 6, 7, 8은 피할 수 없고 보이지 않은 죽음에 대한 자각과 계속 살고자 하는 원함 사이에 있는 갈등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 3, 5는 갑작스럽

게 질병(사고)을 당한 상황이라 치료기간 동안 긴박한 과정들을 겪다보니 의식적 죽음불안보다는 반복적인 꿈을 통해 무의식적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반복된 꿈에 나타난 상징적 형상들을 긍정적으로 해석(Franz, 1999/2007)하여 자신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1)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음 처음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 그런 (불안은) 일시적인데, 백혈병은 혈액 속에 암이 있는데 항암제 치료 중에 암만 죽은 게 아니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세 개의 모든 걸 제로로 가깝게 만들어 가지고 그 백혈구 혈소판 다시 올라가게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게 안 올라가는 사람은 몇 달이 갈 수도 있고 보통 그 항암제를 신청하면 그게 그니까 한 번하면 80일 걸려요. 80일 걸려가지고 다운되면 모든 그 환자들이 한 마디로 두려움이 저리 가라는 거죠. 다 무기력해져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병실 천정만 쳐다보고 아무런 의욕이 없이 상실되는 거죠.(참여자 3)

나도 말만 들었지 내가 진짜 항암을 생각하니까 조금은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어. 육체적으로 이런 걸 1, 2차하고 2차까지는 그래도 받을 만한데 근데 그게 그렇더라고 내가 나 스스로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내 체력이 많이 나뻐던 거. 나는 너무 저항력이 떨어져서 완전 바닥을 쳤어. 한 자리 숫자 백혈구 수치가 거의 뭐 0에서 시작을 하면은 30, 40 이런 식으로... 3주에 걸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조금 당해내기 힘들었고 이 구토도 구토지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표현하기가 좀 힘든데... 음 항암하면서 열이 나면 힘들더라. 1차 2차까지는 견디면서 내가 딱 아 정말 이게 힘들다 진짜로 이거 이래서 ‘아 나 빨리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거는 그때 내가 열이 너무 나는데 열이 40도 이상 계속 나는 거라. 근데 그 저녁부터 그 아픈 시간 한 몇 시간 됐는데도 그니까 너무 너무 안가고 너무 지체되더라. 그래서 그때 딱 그 생각이었어. 아 그래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딱 들더라. 아 그때는 죽는 거구나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허공이라 허공 그냥 음 뭐라고 그래야 하나 멘붕이라고 해야 하나(감정이 북받쳐서 눈시울) 내가 항암하고 진짜 수술하고 힘들고 이럴 때는 ‘음 힘든 거구나! 내가 조그만 참으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죽음이라는 두려움 없이 음 그냥 내 스스로만 조용히 견뎌내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무서움이 있다는 거 그때가 실감이 됐고 항암을 받고...(참여자 4)

항암 받는데 항암이 너~무 괴로워. 한 일주일 좀 3주에 한 번 맞는데 너~무 힘들었어. 답답하고 너~무 힘들었어.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았구나! 체력이 안 좋았었구나! 맨 처음 주사 맞을 때 제주도 내려올 때는 괜찮고 면역이 올라올 때 주사를 주니까 내려올 때 괜찮은데 맨 처음 그 주사 맞을 때는 그때가 다른 사람보다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갈수록 힘들다고 하던데 그때 처음 항암주사를 맞아보잖아. 너~무 이상해 가지고 이상하고 힘든 데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힘들.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고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니까(울음) 그때가 제일 힘들어. 그때 처음 내가 그냥 그냥 ‘죽고 싶다.’(울음) 항암치료를 여덟 번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을 그때 많이 그렇게 못 추스렸던 것 같아. 처음에... 처음에는 아 내가 이렇게 두 번 세 번 가면 죽어야 하는가 보다 그게 몸에 들어가서 그 느낌이 너무 그게 생소하게 느끼는 건데 그게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거여서 ‘아 더 오래 맞지 못하겠다.’ 그 상태에서 나는 내가 잘 이겨내야지 생각하면서도 진짜 나는 떨고 있었던 것 같아.(참여자 6)

그때는 어떤 상태냐면은 여기(팔) 뿌러져 버리고 차가 몸을 이렇게 갈아 부니까(왼쪽 다리 아래에서 오른쪽 상반신 위로) 엎어진 상태에서 영 갈아 부니까 진짜 다리 한 짝이고깃덩어리라. 몸(다리)이 짓이겨지니까 길에 있는 아스콘이 살 속에 박아져 부러. 그걸 그냥 놔두면 암 덩어리가 되니까 이 수술도 침에는 요만큼만 하는 거였는데 그걸 찌르다 보니까 요만큼 되분거라. 맨날 소독하명 잘랐지. 그 당시에 다리를 잘라야 하느냐 마냐 하는 상황이었던거든. 지금도 이렇게 다리가 핏줄이 다 잘라진 상태라. 그 때 그 당시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하지. 여기 허리 그냥 그 바늘 이 몽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아. 바늘 몽치로 막 쑤시는... 고통이야 뭐 너무 심해서 그런가, 나는 그런 뭐를 못 느낀 것 같아. 너무 심해가지고 일어서지도 앉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척추가 이렇게 3번 5번 사이가 툭 튀어나와 부딪는 바닥에 누워서 잠을 못 자게. 낮아 갈 때는 고통을 느끼지 고통을... (참여자 5)

2)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

딱 내가 그 남편 보니까 그 두 아들은 결혼해서 아내가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되고, 이 사람이 남편이 걱정되고 그랬지.(참여자 2)

내가 우선은 두려워하면 식구들이 좀 힘들 것 같고 가족을 위해서는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그때 당시는 사실 부모님께는 말을 못하고 항암을 하면서도 서울에서 살았지. 집에 아예 안가고 왜냐하면 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어가지고 동생네 집에 살면서 그 당시를 생각하면 그때는 처음이고 뭣도 모를 때잖아. 근데 부모님보다 먼저 가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은 헛. 내가 엄마, 아빠보다 먼저 가는 게 정말 불효라 생각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날까지 정말 허리 못 펴시고 힘들게 사시는데 엄마, 아빠보기가 그게 참 마음 아픈 거라.(눈시울) 난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라. 불효만 하지 말자. 부모입장에서 자식이 먼저 가면 어 그거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나 역시도 그러겠어.(참여자 4)

나야 죽어볼머는 편안한 거 아니. 솔직해 말해 난 아무것도 없는데 솔직히 잘 살지 못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얘기 테리고 살 거라는 생각하니까 그게 불안하더라. 나 생각보다는 나머지 가족들이 생각되더라. 나는 나 고통이고 나가 죽어볼머 나는 편안한 거야. 경헌디 남편이 얘기 테리고 살 거라 하니까 그땐 진짜 이게 저기...(눈물) 어땡 살 건고 잘 나지도 못한 사람이 얘기 테리고 그게 제일 가슴 아판게.(참여자 5)

아 내가 어쨌든 나에 대한 생각보다는 애들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았지. 진짜 자식! 왜냐하면 내가 애들을 잘못 키웠었는지는 몰라도 애들이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 진짜 다 해줘야 했고 또 다 해줘야 되지만 일일이 다 특히 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냥 그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할 텐데... 그러니까 또 그 내가 없을 걸 생각하면 집안이 또 난리날 것 같아가지고 뭐 그런 걱정, 그런 걱정이 가장 많이 되고...(참여자 6)

그건 이제 저기 3일 동안 입원해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음 저기 제일 미안한 거는 뭐냐 하면 문제가 생기면 와이프한테 제일 미안한 거고 애들은 컸으니까 애들 관리는 이제 하느님이 전부 주실 거니까 애들은 뭐 걱정이 안됐는데 아 내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집사람한테 좀 미안하겠다 수술하다가 잘못 되가지고 더 살아야 할 텐데 혼자 꾸러가야 하니까 미안한 거죠.(참여자 7)

3) 꿈과 현실 사이에서...

처음으로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의사선생님이 제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해가지고 식구들이 다 와서 마지막 인사를 다 했는데 다행히 그 항암치료가 좀 돼가지고 근데 와중

에 항암치료 하는 그 와중에 음 제가 꿈을 꿔는데 꿈을 꾸게 아니고 잠깐 눈을 감았는데 그 이렇게 환자복을 입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검은 도포를 입은 사람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피부색이랑 저승사자의 모습으로 변했는데 그래 가지고 내가 가라고 했죠. 다행히 눈을 떠보니 다행히 그 꿈은 지나갔고 이게 첫 번째 경험이었고, 근데 내가 왜 이걸 알고 있나 하시면 제가 항암치료 할 때마다 기도를 했죠.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그게 하느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거죠. 응답을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경험은 퇴원하고 잠깐 일주일 집에 왔을 때 꿈속에 음 돌아가신 아버지와 그 하얀 말 백마를 탄 음... 영화 속에 보면 백마가 하얀 점 아버지도 하얀 점 그러니까 아버지가 웃으면서 저한테 오시라고 하는데 저는 그 때 꿈속에서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고 아버지 그냥 반갑수다게 저는 아직 안가겠수다게 나중에 가겠수다게 아버지 먼저 가세요. 아버지가 다행히 아버지가 웃으면서 가시더라고요. 그게 두 번째 제 경험이었고, 마지막에 골수 찰 때 그 골수이식이 수술한 뒤에 다 잘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골수가 나에게 맞더라도 나한테는 그 몸이 막 부어가지고 숨을 못 쉬고 그 와중에 잠깐 꿈을 꿔는데 꿈속에 두 마리의 악귀가 문 쪽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꿈속에서 발로 차며 나가라고 하니까 눈 뜨면서 보니까 그 악귀가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세 번째 경험이었습니다.(참여자 3)

진짜 죽는 과정에서 병실에 있으면 내가 3층에 있었거든. 음식을 못 먹으니까 움직이질 못했어. 영 헨 보면은 지하에 영안실 있고 나는 3층에 있었는데 영(고개를 쪽 내밀면서) 하면 보여. 침대를 올려서 일으켜지면 보여. 발끝에 세 사람이 있어. 세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나면 앞에는 남자 뒤에는 여자가 서 있어. 셋이 서 있어. 남자는 갓 쓰고 여자는 쪽 끼고 서이가 흰 옷 입고 경허명 하는 소리가 ‘큰일났찌. 큰일났찌.’ 하는 소리가 들려. 걱정하는 소리지 아프니까 걱정하는 소리지. 그게 한 3개월 동안 그랬던 것 같아. 눈만 감으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지. 경헌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검은 옷을 입었으면 내가 죽을 건데 흰옷 입은 사람이 있으니까 희망을 가진 거라. 내가 죽지는 않을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라. 그리고 3개월 지나니까 안 보연.(참여자 5)

4) 재발에 대한 두려움

또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생각보다는 쉽다고 해도 입원하고 음식물 먹고 할 때도 금속 씹은 것 같고 그런 거 다 겪었으니까 근데 또 조직검사하고 나서

죽게 되면 담담하게 받아들여야지 했는데 (결과가)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죽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진짜 생각보다는 쉽지 않지. 두 번 겪었으니까 아직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느낌... 괜찮다고 나오니까 진짜 정말 제대로 해야 하는데...(참여자 2)

음 이렇게 그 치료 중에 보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재발했을 때에 재발하면 병원에 다시 입원하고 다시 항암치료 받고 이런 그게 그게 너~무 힘들어 아주... 내가 그걸 다치면 당장하게 되지만 와이프도 그렇고 내가 죽게 된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참여자 3)

죽는 거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 어찌 보면 밤새 안녕이면 편하지만 그게 아니고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사실은 힘들다 하잖아. 근데 나 역시도 (만약에) 진짜 또 찾아온다면 물론 뭐 버텨보기는 하겠지만 내 생각으로는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 치료과정에서는 힘들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받아들이는 하겠지만 그 과정 자체는 힘들 것 같아.(참여자 4)

다시 또 재발에 대한 두려움, 다시 아프면 어찌지. 다시 아프면 꼭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아 다시 아프면 또 이겨내면 되지. 이런 생각도 무서우면 예수님한테 위안 받으면 편안해 지니까 이기적으로 저는 현재 사는 거 같아 라는 생각... 이게 이기적인가 하는 생각이 좀...(참여자 6)

5) 존재론적인 갈등

막상 아파서 또 병원에 입원하면은 죽음과 항상 같이 있으니까 죽음과는 멀리 있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항상 죽음이라는 단어가, 단어가 아니라 내 앞에 살짝살짝 오니까 음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물론 죽음이 싫겠지만 나도 죽을 거로구나! 입원해 보면 갑자기 간호사들이 그 병실 문을 닫고 하면 한사람이 죽었다는 표시거든요. 죽은 환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새벽에 갑자기 병실마다 문을 닫으면 아 오늘도 한 사람이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가 다시 재발했을 때 그 물론 이렇게 (치료) 해야 되겠지만 그게 너무 힘들죠.(참여자 3)

아 근데 (항암치료) 끝나고 그 고통보다는 그렇더라고... 음 불안감도 들었어. ‘아 이젠 나도 다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 물골을 딱 보니까 조금 그렇더라고... 아 집에 오는 순간에는 솔직히 막 좋지 안 헨. 오히려 집에 있으면 돌아다니지를 못하잖아. 그 답답함, 쓸쓸함 집에 오는 순간...(참여자 4)

내가 먼저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고 선언을 해버리니까 딱히 그런 건 없는데 그냥 그 외로움은 인간적인 외로움, 남하고 단절된 대인관계에서 단절이 되고 그런 거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아프니까 모든 걸 못할 거다 잘 못할 거다 라는 생각들... 받아들이면서도 이제는 이런 걸 아 이제 생각을 해도 우선 나를 배제시키니까 나도 이젠 쉬어야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내가 죽어가는 존재라는 불안은 오는데 이게 내가 편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 적당한 순간에 와.(참여자 6)

입원실에서 그 과정 속에서 치료를 받아보니까 마취하고 깨어나는 퇴원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폐를 하나 떼내니까 견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기력이 다 빠져. 그 성가를 부를 때도 숨이 막혀가지고 호흡이 잘 안되니까... 우리 같은 암환자들은 무슨 거 할 때 만나가지고 함께 해야지 따로 보다는 또 소극적인 것보다는... 그렇게 안하면 못 견뎌요. 환경적으로 이렇게 안하면 생활하는데 처지고 힘들죠.(참여자 7)

운동도 못하지 걸어 다니지를 못하지 해서 또 무서운 병이 생겼는가? 갑자기 의심이 생긴 것이 방에서만 있어서 사람이 오면 기피되고 그 우울증이 생기고 했어요. 그래서 나가 물골도 완전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때는 지금도 체중이 많이 나가지는 않은데 그때는 더 형편없었죠. 얼굴에 뼈밖에 안 남았죠. 그니까 걸음이 휘청휘청 이렇게 똑바로 못 걸었어요. 같지자 비슷하게 그래서 어디를 많이 걸어서 못 다녔지. (참여자 8)

범주 2. 세상일과 나 자신에 올 인(all in)하며...

현 시대에 깊숙이 묻어 있는, 모든 면의 발전을 목표로 한 지시된 능력 위주의 사회에서는 활동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자기에 대해 잘해야 되며 주도적으로 심취하며 돈, 운동, 일을 과잉으로 흡수하고 동화시켜 버리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라는 존재는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끝내야 한다는 강박감에 심리적, 신체적인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 니체의 ‘너 자신이 되라!’는 언명은 본래적인 실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당위성이나, 세상사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기 자신의 고유한 본래적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참 실존론적인 인간이 된다는 하이데거의 외침은 오늘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집착하며 노동하는 인간 세상에서는 그저 이질적인 가치관의 차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참여자들은 세상일과 나 자신의 만족에 올 인(all in) 하며 살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죽음직면으로 자아를 상실한 정체성 혼란에 빠졌다. 참여자들은 최소한의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모든 가치를 돈이나 건강 과신, 자신을 밀어붙이는 일에 시간을 소비하며 살다가 잃어버린 자신의 본질과 비인간적인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인생의 무의미에 대해 쌀쌀하고 무자비할 정도로 강경했던 샤프트르르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이유 없이 태어났고, 우연히 약함과 죽음을 계속한다(Yalom, 1980/2007)는 그의 삶의 무의미를 대면하듯 참여자들은 마침내 자신의 내면안의 온갖 장애물과 한계를 대면한다. 하위범주로 ‘집착에서 욕심으로...’, ‘나 자신과 관계의 어그리짐’이다.

주제 1. 집착에서 욕심으로...

삶의 도처에서 인간은 자신의 모든 활동을 마치 기계처럼 일하고 생산하여 소모하여 극도로 허무해진 존재의 결핍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아렌트의 주장은 바로 노동과 소비와 재생, 그리고 고통과 그것의 해방에서 오는 기쁨과의 불균형(공병혜, 2014)에서 오는 집요한 요구의 집착이라고 본다. 매우 빠른 삶의 소모적 과정 속에 빠져들어 인간의 활동은 자기반성이나 공동체적 사유를 할 여유도 없이 다시 반복적인 자기 강요에 시달리다 결국엔 육체적, 정신적 소진으로 어떤 것에도 의미와

희망을 찾지 못한 채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잃게 된다. 종교생활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는 개인적인 기복 신앙에 빠져 거의 맹목적으로 ‘나’와 ‘내 사람’에만 집착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변 세계와 이웃은 물론 종교생활의 마지막 목적인 하느님마저 어느새 온데간데없게 된다(Chardin, 1961/2004). 참여자 1, 7, 8은 돈, 운동, 일 등에 부산하게 움직이며 기계적인 활동으로 자신을 착취하고 어떤 자극들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삶의 속도를 가속화시켰다.

1) 돈도 못 써보고 죽는다는 게...

내가 억울한 거는 직장생활하면서 (20대 직장생활 시작하명) 돈도 못써보고 죽는 게 그렇게 억울하드라게. 남편 경 생각 안 나고 너무 애쓰게 돈벌어신디 나도 못써보고 죽는다는 게... 퇴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막 속상해전. 돈 집착에, 돈 욕심에 가족생각도 안 나고이... 아이들도 다 크고 해서 ‘내가 돈도 못써보고 죽는구나!’ 그런 거라 어떻 살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안 나고 돈도 써보지도 못하고 진짜...(참여자 1)

내가 심하게 아파서 죽음 가까이 갔는데 어 너무 집착했다고나 할까 이제 조금 그니까 잊으려고 하면 다시 그 생각이 생생하게 딱 떠오르는데 내가 한 가지에 집착하는 거 한 가지 일에 아니라 모든 일에 일이든 운동이든 다 여러 가지 일을 너무 집착하면 그것이 자기 뜻대로 안됐을 때는 실망도 크듯이 이렇게 하는 것도 느꼈고...(참여자 8)

2) 건강을 과신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97세에 돌아가셨. 딸내도 어머니 닮은 다 하잖아. 우리 어머니가 거의 97세까지 안 아프니까 나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져.(참여자 1)

나가 나이는 60이 다 됐어도 그 운동만 했기 때문에 이 체력이 좋아 났어요. 체력이 그니까 나가 그 당시에 배드민턴을 우리 와이프하고 치고 그 다음에 아프기 전에 그 멤버들하고 그 당시에 그 체력이 젊은 팀들 그니까 40대 50대 초반 이래가지고 5시 반에 가가지고 몇 게임을 했냐면 한 다섯 게임을 쳐서 음 9시 가까이까지 배드민턴을 쳤어요. 새벽 5시 반에 가가지고 그러면 그 하루 저녁에 그 저 배드민턴을 쳤는데 또 가서 치고

그 다음날 9시까지 치면 3시간 동안... 배드민턴이 체력소비가 굉장해요. 근데 게임 붙으면 승부욕이 생겨 가지고 어떻게든 이겨야 하고 매일했죠. 체력소비가 엄청 나는데도 인자 그 당시에 건강하다고 과신했다는 거지.(참여자 8)

3) 일중독이다 할 정도로...

담배도 안 피고 술도 많이 안 먹고 아무래도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내가 볼 때는 일중독 수준인 것 같아요. 일중독으로 항상 내가 그때 50개 부대 중에서도 내가 최고로 점수를 받아서 대통령 표창도 두 번 받았고 사무실에 근무할 때 상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과 시기를 많이 했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주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해 못하니까 내가 거기에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려와야 자기들이 올라가니까 모든 조직이 그렇잖아요. 남들을 밟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 발 밑에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다들 싫어했어요.(참여자 7)

주제 2. 나 자신과 관계의 어그러짐

또한 남편과 가족들에 대한 섭섭함과 짜증은 분노로, 그리고 삶의 무력감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자신에게 지치고 친족관계의 불편함과 어그러짐은 개인적 고립을 만들어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1) 남편에 대한 섭섭함과 미움

근데 우리는 너무 말이 없어. 가장으로서 충실하기보다는 가정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직장에는 충실하게. 술 많이 먹어그네 밤늦게 들어와. 안 먹는 날이 없어났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간식도 해줬주게. 그 이후론 술 안마시고...(참여자 1)

남편하고 20년 가까이 힘들게 살면서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지. 내가 말하면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안 믿었거든. 그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남편이 나와 비교되는 남편이 나에 대한 자격지심으로 그렇게 해도 이기고도 그때는 뭐 분이 안 풀렸어.(참여자 2)

난 결혼해서 우리 신랑하고 일을 시작해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무섭지 않아. 근데 서울생활하고 제주에 왔는데 그때부터 우리 시어머니하고 살았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 일할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딱 아프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 아~ 이 젊은 시절 젊은 청춘을 어디 돌아다녀보지도 못했고... 우리 딸 거의 다 컸고 그렇다고 뭐 크게 돈 들어갈 곳은 없잖아. 아 딱 이러니까 뭐 나의 그 자존심이랄까 나라는 자체가 없어지는 느낌! 시어머니가 못 나가게 하거나 잔소리 같은 거 이런 거는 아닌데 그 뭐라 그래야 하지 표현이 안 된다 하여튼 그런 게 있어. 나의 가족 간의 관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웃음이 없어져. 웃음이 없어져. 그런데 아플 때 보면 아~ 그게 최고 안 좋았던 거 같아. 어떤 면에서는 어 누구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원래 병은 스트레스에서 온다잖아. 그렇다고 우리 신랑한테 니가 잘못해서 스트레스 쌓여서 병 생겼잖아 이런 말 못하잖아. 우리 시어머니한테 같이 살아서 스트레스 생겨서 병 생겼다고 말 못하잖아. 그랬어.(참여자 4)

그전에는 내가 너무 스트레스로 살았어. 모든 게 다 불만이었고 신랑도 불만이고 신랑이 제일 불만이었는데 내가 그때 건강이 그 아플 때가 최악이었던 것 같아. 몸이 너무 안 좋고 정신도 안 좋았고 모든 게 다 짜증이 났어요. (남편이) 성격이 있어가지고 성격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말을 한 마디 하면 그걸 잘 말했는데 그걸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러려니 하고 사는데 잘 없어지지 않지. 올라올 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잇다가 어느 순간에 잇다가 어느 순간에 잇다가...(참여자 6)

2) 삶의 무의미감에 짓눌려...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20년 동안 뭐하고 살았는지... 그 내가 백혈병 선고받았을 때도 아 내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그런 거보다는 겁나고 이런 거 보다는 그런 내가 살아온 과정이 이게 과연 너무 재미가 없었더라고요. 후회가 되더라구. 너무 솔직히 좀 이렇게 추억거리가 없고 재미가 없고 보람찬 그런 삶이 아니었더라고요. 아주 잠깐 잠깐이라도 내가 가족들 간의 특히나 딸하고 아들하고 식구들하고 나는 유대관계는 없고 원만한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고 그래야 하는데 몰랐지 인생을...(참여자 3)

생활이 그때는 진짜 잘도 어렵게 살았어. 어렵게 살아가지고 진짜 우리가 집 살 때 집 사기 전까지 아홉 번 이사 다닐 정도로 경해신디 그 와중에 사고가 나분거라. 사고 나기 전에는 뭐 열심히 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사는 거지. 평상시처럼 무덤덤하게 살았어. 그전의 내 사는 게 무의미 했지. 성당에도 잘 댕겨나지 않았어. 일 년에 잘해봐야 세 번 네 번 거의 반냉담 상태지.(참여자 5)

이게 없었으면 그냥 뭐 똑같이 살고 있었겠지. 이게 그 내가 확 바뀌는 이게 몇 십 년 동안 습관화 되어 있어 가지고 저 자신이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지. 머리로 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벗어나지는 못한 생활, 그 별거 아닌 세상사에 모든 거에 스트레스 다 받아가면서 진짜 별 필요 없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냥 일 나가고 주위에서 상처주면 상처받고 또 미워하고 표현은 못하고 그래서 상처받은 거 다 마음에 담아두었고 내가 누구에게 상처 주는 거 그런 걸 못해.(참여자 6)

3) 내 중심적인 판단이나 행동은 완전히 엉터리죠!

그 아들 둘이 있는데 거의 내가 주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애들한테 교육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게 거의 내 말을 안 따르더라고요. 아이들이 내가 생각한대로 하나도 안 따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아이들을 집어넣었는데 아이들이 튀어 나오더라고요. 관계가 악화돼 가지고 때리기도 했어요. 공무원 시키려고 했는데 애들이 안 하는데 뭐 어떡해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갔는데 물을 안 먹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또 그전에는 다른 신자들보다도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내 기준으로는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런 어떤 치료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엉터리지 엉터리 그전 삶이 엉터리죠.(참여자 7)

젊었을 때는 무슨 일을 결정을 하면 우리 와이프하고 의논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나 혼자 독단적으로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결정지어가지고 어 좀 후회한다고나 할까.(참여자 8)

범주 3. 죽음의 망각에서 인지(認知)로의 탈바꿈

삶이 곳곳에 존재하듯이 죽음도 그에 못지않게 인간이 존재해온 시간만큼이나 오랫동안 죽음과 관계를 맺어왔으나(Ameisen, Jean-Claude et al., 2013) 참여자들은 톨스토이가 말했듯이 죽음을 망각한 생활을 하며 지냈다. 삶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 없이 일상적 습관에 매몰되어 죽음이 언젠가 나중에 올 사건으로만 나오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하고 죽음 사실의 부재로 무디게 살아왔음을 드러내었다. 참여자들 개인에게 충격적으로 던져진 죽음불안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닌 내 자아(self)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사실을 점차적으로 인식하는 경험을 하였다. 도출된 하위범주로는 ‘죽음을 잊거나 기피’, ‘죽음을 점점 더 수용’함이다.

주제 1. 죽음을 잊거나 기피

죽음은 인간의 실존적 삶의 조건이자 인간의 역사에 계속해서 되풀이 되어 왔다. 20세기 후반 죽음의 세속적 신화에서 죽음은 철저히 개인화되고 부정과 기피, 나아가 망각과 억압의 대상이 되었다. 죽음을 배제하고 망각하고는 본래적 삶을 기대할 수 없고(박형국, 2013) 시간을 지배한 후 다시 일상에 매몰된 채 살아간다. 죽음이야말로 절대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각자의 실존에 가장 깊이 연관된 일회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음만은 당장 자신과 먼 이야기라고 회피한다(이선아, 2013). 참여자 3을 제외하고 모두 무관심, 그러니까 죽음과 대면해야 할 존재임을 잊거나 회피하며 빈 상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였다.

1) 가까이하기엔 너무나 먼 죽음

죽음에 대해 생각 안 해 본거 닳아. 아예 생각 안했. 죽음을 멀리하고 생각을 안했주게.(참여자 1)

죽음에 대해선 그냥 생각 안하고 뭐 애들 키울 때는 두통으로 머리가 너무 아파서 구토도 올라오고 진통제 먹고 이틀을 꼬박 누워 있고 하여튼 두통으로 고생했어. 이때도 애들 걱정만 했고 암 선고받기 전에는 죽음에 대해 생각도 안 해 봤어.(참여자 2)

나는 내가 죽음을 그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 죽음을 별로 진짜로 별 생각 안 해봤 죽음... 나 스스로 '아 이게 죽는다.' 이런 생각은 사실 안 해봤어. 나는 음 남의 일로만 생각했어.(참여자 4)

고통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깊게 해보지는 안 해본 거 다행. 어떻게 살아볼까 하는 사는 것만 생각했지 죽음에 대한 거는 안 해봤. 죽음에 대한 생각보다는 현재 어려운 것만 생각했지.(참여자 5)

어디 뭐 죽었다 하면 쳐다보기도 싫고 가까이 가기 싫어서 그래서 생각하기도 싫었었는데 나한테 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참여자 6)

그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고 나와 거리가 멀게 느꼈죠. (꿈을 꿔는데도 불구하고) 꿈이라고만 생각하고 그걸 지금쯤 이제 꿈을 꿔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됐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젊어서는 죽음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더라고요.(참여자 7)

2)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지!

죽음은 무서웠어요. 두려움 두렵고 무서움 내꺼 아니다 그냥 피하고 두려워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 내가 죽음을 친정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렇게 했지만 옆에서 보면 그 죽음이 그냥 내 거 아니었던 거 그때는 그 남의 얘기고 생활에 돌아와서도 근데 나하고는 지금의 저랑 봤을 때도 정말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참여자 6)

죽음, 죽는다는 것은 이렇게 죽음에 대해 생각을 안 해봤고 뭐 그냥 나하고 거리가 멀다고 느꼈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지.(참여자 8)

주제 2. 죽음을 점점 더 수용

죽음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비참하고 참혹한 사태이기는 하지만 인간인 한에서는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다(김귀룡, 2017). 하이데거는 인간이 ‘죽음을 위한 존재’이므로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죽음에서의 자유가 가능하고 나아가 진정한 삶이 가능함을 밝혀주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너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라.’(집회서 7, 36)는 말은 이생의 마지막인 죽음을 언제나 삶 속에서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말로서 그리스도인은 일생에 걸쳐서 사후의 생을 위해 끊임없이 죽음을 준비(박형국, 2013)하도록 격려한다. 왜냐하면 죽음은 삶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안에 있는 현상이므로 죽음은 삶의 현실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참여자 5는 현실의 생존을 위한 과정에만 집중하다가 긴박한 죽음에 직면하면서 삶과 죽음은 나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레의 한 바퀴임을 깨달아 나가면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다른 참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죽음직면으로 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위기 전보다 신앙의 감각, 즉 참여자 자신들이 세상 속에서 땅에 발을 딛고 믿음 안에서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 할 대상이 아님을 점점 인식하게 되었다.

1) 봉사활동으로 죽음을 생각하며...

뭐 그냥 연도회하면서 봉사활동하면서 평상시에 돌아가신 분들 보면서 어떻게 내가 죽어야 할지 생각했지. 현재도 그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죽을 한 인간인데 안 죽을 수 없는데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쉽지만은 그래도 받아들여야죠. (참여자 3)

2) 이제 자연스럽게 순연히 받아들이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죽어야 하는 거 아니. 죽을 때까지 갈 때까지 자연스럽게 가는 거지. 나는 안 죽는다고 할 수 없잖아.(참여자 1)

죽음에 대해선 아 그니까 천주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잖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형선고 받은 거에서 그것이 떠오르지. 어릴 때는 그렇게 못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더 이해하게 돼.(참여자 2)

그 수술도 안 되고 항암도 안 되고 이럴 때는 그냥 주어지는 선에서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마음이 넓혀졌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참여자 4)

불편 없이 아무렇지 않게 남한테 신세지지 않고 내가 뭐 살려 달라 그런 걸 안하고 편하게 죽음에 대해 편안하게 달라고 기도해진 거 닮아. 무작정 매달려서 살려달라는 그런 걸 안하게끔 해달라고 무의식중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 닮아. 자연스럽게 죽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솔직히 죽어났다 살아난 사람인데...(참여자 5)

아직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점점 더 수용하는 단계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하지는 않을 거 같아.(참여자 6)

죽음이란 무엇인가? 아 하느님의 뜻이다. 죽음이라는 것을 깊게 생각하지 말자. 언젠가는 내가 돌아가야 하니깐 두려울 게 뭐가 있나 내가 이렇게 잘못했던 거 하느님한테 음 회개하면 되는 거고 하느님 뜻 안에서 잘 살고 뭐 두려워하나 그렇잖아요. 지나간 거에 대해서 죄책감 느끼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하느님한테 딱 넘겨 버렸어요. 죽음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태연해 진거죠. 이젠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을 갈 때 되면 가는 거니까 언제라도 이게 나한테 온다면 순연히 받아들이고 두렵지 않아요. 죽는 게...(참여자 7)

앞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우리는 언제 죽어도 죽을 텐데 음 어차피 죽으니까 죽음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그래서 널모레 70이 돼가니까 이정도 살아도 오래 살았다 하지. 뭐 우리 책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 죽기 전에 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정도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너무 음 뭐라고 그럴까 우리 나이 정도가 되면 70이 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참여자 8)

범주 4. 새 인간의 형상으로 변모

삶의 짧음과 그 고귀함에 대한 강한 느낌….

삶의 강한 역동성, 지각성과 주변 환경에 대한 감성적 책임감에 대하여 항상….

빠른 시간 속에 살아가는 능력과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 순간을 아끼는 것….

삶의 위대한 깨달음, 즉 삶과 살아 있는 것에 대한 깨달음,

너무 늦기 전에 즐겁게 살려는 충동에 대한 깨달음이다.

이 글은 Noyes의 연구에서 자신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결과(Yalom, 1980/2007)를 표현한 것인데, 참여자들도 죽음을 직접 경험한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음불안을 직면함으로써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분명히 나타내었다. 운명에 순응하며 두 번 주신 생(生)에 감사하며 죽음불안을 부정하지 않고 자신을 시간화하여 가능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길로 들어선다. 존재의 외적인 성장을 올바로 식별하면서 Thomas Merton이 주장한 참 인간이 되신 하느님 당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의미를 온전히 성취할 수 있다(이해운, 2012)고 고백한다. 진정 그 자신이 되도록 회심의 길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하위 범주로는 ‘내게 왜? 라는 물음보다 순리대로…’, ‘회개하라는 사인(sign)’ 이다.

주제 1. 내게 왜? 라는 물음보다 순리대로…

죽음불안에 대한 올바른 자각으로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병과 사고를 남 탓이나 하느님께 적대적으로 탄원하지 않고 운명을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더 인간적이고 연민적인 마음으로 변화되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평가하게 된다. 참여자 3은 아프기 전에는 인생의 의미를 몰라서 후회스럽다고 토로했는데 이런 뒤늦은 깨달음을 통해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알았으며, 참여자 7은 아픈 것도 죽는 것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하느님 안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삶의 목적임을 보여주었다. 참여자들은 이미 주어지고 드러내어진 삶이 하느님 안에서 ‘다시 태어남(Re-birth)’에 감사드렸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요한 3, 7)는 것은 온전히 내적이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인

격적 정체성의 자유 안에서 자신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운명에 순응... 좋은 일이 많겠어요?

아,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했고 내가 보속을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지. 죽음은 한번은 죽는 거고 죽기 전에 그 뭐냐 아이고 기회를 주셨는데 내게 보속을 하라고... 이제 진짜 그 영혼을 깨끗이 닦아서 진짜 그런 얘기하잖아. 어떤 분들이 왜 암이 왔는가? 갑자기 죽은 것들은 암을 보면서 죽음을 미리 준비하라고 그런 거 같아. 또 주시면 그때는 정말 잘 준비해야 될 거고 그리고 준비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게 못했고, 그러면서 또 (죽음을) 겪게 되면 기회를 주시나 그리 생각해야지. 아니 두 번이나 주셨는데 제대로 못했고...(참여자 2)

왜? 라는 그런 생각은 안 들고 그냥 내가 '왔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 연도회 봉사활동 하면서 죽음을 수없이 봐 왔기 때문에 어릴 때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으니까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하느님에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라는 그런 물음은 안했어요. 연도회 봉사하면서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많은 도움이 됐죠. 이런 투병과정을 보면 아 이게 다 그 겪고 있는 내 하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있는 기간만으로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내가 이 과정이 없었으면 벌어진 일인데 이것을 아니다 아니다 하다가 그렇게 후회하면서 살려 달라고 목매달면... 이 과정이 앞으로 내가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그 신앙을 그 보람되고 추억거리를 그런 삶을 만들어야죠. 아프지만은 웃으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죠. 내 자신에게 도...(참여자 3)

아 항상 그냥 주어진 환경 안에서 진짜 아웅다웅 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주어진 삶 안에서 진짜 우리가 목숨을 늘리고 줄이는 게 아니잖아.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을까 하는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했어. 어떻게 할 꺼라 일단 주어진 거 삶에 대해서 왜 그런가 보다는 빨리 고치는 방법이나... 원망은 안했던 것 같아.(참여자 4)

그런 원망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니까 그걸로 살아가고 거기에 대해선 원망은 없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정신없이 아프고...(눈물) 사는 것도 힘들고 하는 것이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나한테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라 하나, 음 그런 생각이

들어.(참여자 5)

저는 근데 하느님 원망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어. 원망하지는 안했던 것 같아.(참여자 6)

죽음은 생로병사다. 생로병사에 대해서 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픈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죽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앞으로 좋은 일이 많겠어요? 어려운 일이 더 있지. 잘 받아들여서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해요.(참여자 7)

2) 두 번 주신 삶에 감사하며...

경험고 수술을 하고 나올 땐 웃었어. 수술하고 웃고 막 웃어지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살았구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했주게.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살려주셨구나!’ 해서 두 번 삶이라는 느낌이 들지. 축복받았다 살려주셨다 했지. 하느님이 살아계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발안.(참여자 1)

오늘도 그냥 재밌고 그냥 웃고 살면서 아침에 만족하면서 ‘아, 감사하구나! 오늘도 이렇게 살았구나!’ 오늘도 싸우지 않고 웃으면서 사는 거...그냥 만족하며 살아가요.(참여자 3)

감사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가능한 한 즐겁게 음 열심히라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데까지 일이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참여자 4)

하느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 그니까 나는 그냥 그때 죽어버렸으면 몰랐잖아. 몰랐을 건데 다시 한 번 잘 살아보라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어. 그니까 살아 있다는 거에 감사하지. 두 번 사는 삶이나 마찬가지로.(참여자 5)

주제 2. 회개하라는 사인(sign)

회심은 주체의 지평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라고 말한 Lonergan은 인간마다 인식할 수 있는 범위는 서로 다르나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여 하느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이를테면 존재의 근원을 전환시켜 버린다. 이 종교적 회심의 효과는 한 사람의 살아온 방식 존재론적 양식들을 완전하게 탈바꿈하도록 점진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이는 자기중심이 아닌 하느님 중심적 기준으로 삶의 가치와 진리를 재인식, 재평가하도록 이끌어준다. 회개는 변화된 삶의 시작이다. 참여자 7은 죽음을 직면하고 치료를 받는 과정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의 오류를 발견하여 낡은 옛 인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간, 하느님의 자녀로 성장하여 종말론적인 삶을 지향하며 앞으로 남은 인생을 노력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참여자 8도 지나온 삶의 흔적들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이기적 틀 속에 갇혀 지냈던 점을 반성하며 겸손한 신앙인으로 다시금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1) 참 신앙인답게 살라고...

이러한 죽음을 직면하고 치료를 받아보니까 내 생각이 짧았구나. 노력해야 되겠다. 완전히 바뀐 거는 그것은 하느님이 주신 거 암 치료 기간을 5년이라고 주셨다는 거는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자기의 모든 걸 바꾸는 시간이니까 자기를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 시간 그렇게 자기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5년이라는 기간 동안 회개하고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생각과 말과 행동을 5년 동안 내가 그걸 해야 되니까 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는 거 죽다 살아나지 않으면 내가 이런 걸 알 수 없죠. 이게 내가 또 내가 아닌 것 같으니까 회개하라고 얘기 했잖아요. 그전에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웃긴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180도로 변하나 음 이 정도로 반발하고 살았는데 근데 아파가지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 맞다.’ 하느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그걸 믿고 나한테 하라고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나는 회개 안 해도 되지 했는데 나는 제대로 회개를 하지 않은 거라. 근데 마음을 이렇게 먹고 내가 종말을 가지고 가는 건가 싶어요.(참여자 7)

고통을 당해가지고 참 신앙인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이게 와이프한테도 나는 하느님이 내 자신이 알게 모르게 좀 겸손해야 되고 이런 것을 주시려고 하시지 않았나! 내가 교만한 게 있어서 더 겸손하게 살아라! 해서 이 체험을 주시지 않았나 해요.(참여자 8)

범주 5. 나, 타인, 그리고 하느님은 하나

죽음불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 예고 없이 달려든 질병과 사고는 참여자들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다. 고통의 망령에 직면하면서 그 고통의 한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회복하게 된다. 곧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가족구성원과 타인,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치유를 받게 되는 경험을 한다. 자신이 온전히 치유되기를 간절히 갈망하였기 때문에 절망의 해독제인 희망을 포함한 긍정성으로 타인과의 유대감과 친밀감, 그리고 물질적·희생적·영적 도움으로 나-타인-하느님은 하나이며, 우리라는 보다 더 큰 상호 연결된 일체감(최해연, 2014)을 체험하게 되었다. 도출된 하위범주로는 ‘하느님의 도우심’, ‘가족은 나의 원동력’, ‘타인과 공동체의 도움으로...’이다.

주제 1. 하느님의 도우심

성령세미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성령묵상회는 가톨릭 신자들의 영성에 도움을 주며 심리적으로 신자들의 삶을 좀 더 적응적으로 성장시키는데(이창진, 2012) 큰 도움을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클레멘스는 ‘믿음은 영혼의 귀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하느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Sanford John A, 1992/2006)하기 때문이다. 참여자 1은 자신이 성령묵상회를 꾸준히 다니면서 성령의 소리로 암이라는 질병을 발견하여 하느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시며 또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물론 하느님께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성령묵상회에 참여하면서 성령의 위로와 은총으

로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크다고 하였다. 참여자 2는 암이라는 고통을 천국 가는 티켓으로, 참여자 8은 질병의 원인을 알고 나서 죽음의 해방에서 벗어나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다고 고백하였다.

1) 하느님이라는 든든한 뺨!

2000년부터 성령묵상회를 다녔어. 성령묵상회를 다니면서 하여튼 마음을 다 풀어놔서 후련하고 그때는 거기서 새벽 6시까지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나서 출근해난. 이제는 금요일 저녁에 12시까지 하는데 그때는 밤새도록 했는데도 피곤하지 않고 해서... 나를 이 쪽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같아. 성령 쪽으로...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주시고 위암, 위암이라고 나를 꼬실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해. 나를 데리고 끌려고 하는구나!(웃음) 하느님이 그걸 알려줬으니까 살려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위암 위암이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이 그걸 알려 주신 거니까 살려주실 거라고 하느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참여자 1)

하느님, 하느님에 대한 의지! 믿음이 없었으면 그걸 이겨내지 못했을 거라.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모태신앙이지만 나한테 신앙심이 없다 해도 그게 세월이 가면서 쌓인 거지. 그니까 그게 쌓이면서 힘이 된 거지. 우리 시어머니가 항상 그래. 하느님은 못 이긴다 하느님은 못 이긴다 시어머니가 절간 다니면서도 하느님은 못 이긴다고 고라 났어.(참여자 5)

2) 희망이 솟구침

내가 이것을 암 고통을 통해 천국 가는 티켓을 마련해야지 이런 생각들...(웃음) 내가 죽어질 거라는 생각은 안했다는 거지. 이걸 겪으면서 고통스럽다는 거 통증이 있다는 것만 느끼고 죽을 거라는 건 생각이 안 들었어. 이 고통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 '이게 없어질 때까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면서도 내가 그리 신앙심이 깊지는 않아.(참여자 2)

나가 과로기 때문에 특별한 약이 없고 음 기력이 회복하려면 1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갑자기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몸이 점차적으로 좋아지지 갑자기 이

렇게 좋아지지 않는다고 의사가 말했어요. 아닌게 아니라 나가 회복한 거는 의사말대로 1년 정도 걸렸어요. 그 의사도 집에서 그니까 집에서 쉬라는 거지. 일은 못하지. 일은 못하고 근데 이제 그 회복기간이 1년이라고 하니까 안심이 되더라고... 1년을 기다리면은 회복이 된다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 살아나겠구나!’ 그래서 안도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렇게 살아나겠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희망이 솟구치는 거라. 그래서 이제는 암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과로니까 1년 정도 있으면 회복이 된다 하니까 그때는 죽음에서 해방이 되가지고 마음이 가벼워졌어요.(참여자 8)

주제 2. 가족은 나의 원동력

인간의 몸속에 있는 각 세포마다 삶과 죽음을 조절하는 특별한 체계가 존재한다는 사실((Ameisen, Jean-Claude et al., 2013)은 참여자들이 힘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쇠약해지거나 지칠 때 그야말로 가족은 살아 있는 세포체나 다름없었다. 참여자 3은 가족들과 같이 하는 시간이 정말 귀중하기 때문에 노모와 아내, 딸, 아들과 함께 맛집이나 풍경이 좋은 커피숍을 방문하며 많은 추억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고, 참여자 4는 이제까지 고생만 하신 친정 부모님을 생각하며 하루 빨리 병원에서 퇴원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실제로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친정 부모님을 향한 애뜻한 희생의 기도를 바쳤음을 고백하였다. 참여자 6은 퇴원 후 심리적으로 다운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들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으며, 참여자 7은 하느님께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그 감사함을 다시 되돌려 주려는 마음이 컸었다. 우선 아내와 같이 다시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전해졌었다.

1) 더 살갑게... 더 즐겁게 살아가기

어쨌든 가족인 거 같아요. 가족들 간의 힘! 나 혼자 힘들고 일단 우리 가족이 함께 하는 거 아주 잠깐 잠깐이라도... 음 우리 친구들이랑 한 달에 한 번 모임하면서 돈 많이 버는 친구, 아픈 친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돈 뭐 이것저것 말하는데 이런 가족들과 같이 하는 추억들이 정말 소중한 거라서 많은 추억거리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 아무래도 가족이지.(참여자 3)

그저 ‘빨리 견뎌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과 살아야겠다는 생각! 엄마, 아빠 생각이... 이게 시댁보다는 친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솔직히 엄마, 아빠보다는 먼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책임감이나 내가 큰 딸이라서 그러기보다는 그냥 시켜서하는 게 아니고 그렇더라고... 우리 여동생은 엄마, 아빠한테도 할 말 있으면 딱딱 하는데 나는 싫은 얘기를 못해. ‘좋은 거는 좋은 거다.’ 라고 해. 아 그저 이걸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의무감, 책임감이라고 생각은 안 해봤.(참여자 4)

2) 마음을 다시금 다잡고...

애들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상태에서 보면 (하느님이) 다 주시는데 보통 어머니역 할이 크잖아요. (애들이) 너무 풀려가지고 아 내가 마음을 다잡고 내가 진짜 이제 극복을 해야지. 내 맘대로 지금은 뭐 내가 내 가기 싫다고 안 갈 수도 없는데 그래도 매달려서 기도를...(참여자 6)

내가 수술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느님께 참 감사하게 해 주신 거다 하느님께서 나한테 해 주신대로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하느님께서 나한테 이제 건강해질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고 생각하게 되죠. 이제 안 아프니까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거저 받은 거 하나씩 돌려주려고... 그래서 그전에도 짐사람하고 여행을 좀 했는데 이제는 못 가봤던데 가보려고 해요. 혼자 가는 거 좋아하는데 몸이 아프고 난 뒤 더 같이 함께 하고 싶죠.(참여자 7)

주제 3. 타인과 공동체의 도움으로...

벼락을 맞고 죽음 직전의 상태에서 사후세계를 직접 경험하고 살아난 Gloria Polo Qrtiz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전 만난 적도 없는 많은 사람들의 ‘중재기도’ 덕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사후세계에서 자신을 위해 헌신적이며 연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수많은 불꽃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한다(Qrtiz Gloria Polo, 2009). 기도는 글자 그대로 ‘빛을 받는 것’이어서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며,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영혼은 그 안에서 호흡하며 정신이 고양됨(정제천, 2009)을 알 수 있다. 이 ‘기도’는 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이자, 사랑을 증가시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전 존재가 치유의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참여자 1, 2, 3, 4, 5, 7은 어느 누가 이야기 해주지 않아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참여자들 또한 아픈 중에 또 회복이 된 이후에도 기도생활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은 기도의 손길을 통해 내면의 영성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어 자신도 타인들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고 있음을 경험하였다. 기도는 그 모든 것, 그 이상의 것이 되어 삶 안으로 빛이 흘러들어오게 하여 자신을 더 큰 사랑과 자비로 나아가도록(Vanier, Jean, 1998/2010) 이끌어준다. 참여자 6은 몸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 중에 혼자서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주위의 도움을 받은 후 썰기도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세계 평화와 타자(他者)들을 위한 기도로 확대되어 현재 실천하고 있는 중이었다.

1)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서울에 가서 ○○병원에서 수술했지. 아는 사람 있으니까 훨씬 낫더라. 수술 전에도 그 병원 수녀님이 기도해주시더라. 안수도 해주고... 수술 후 웃으면서 나왔었고 지금은 불안감도 없고 편안한 마음을 주신 거 다행.(참여자 1)

다들 뭐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고... 그니까 (본당) 글라라회에서도 기도해 주셨고 미사 봉헌도 해주셨고 누구도 뭐 해주고 나를 좋아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까지도 미사도 봉헌해 주시고 글라라수녀원에서 기도도 해주셨고 (다들) 하느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믿고 계셨고... 오히려 내가 믿지 못해서 글라라수녀원에 기도부탁도 하고...(웃음) (참여자 2)

그리고 주변사람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이렇게 아플 때 나 혼자 기도자체가 안 돼. 왜냐하면 그 뇌가 멈춰. 일단 뇌가 멈추면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거야. 모든 몸의 면역체제가 다 떨어지면은 생각자체가 안 돼. 그러면 사람이 멍해. 그냥 멍하게 있는 거라. 텔레비를 봐도 그냥 보는 거라. 그 굉장히 주변에서 기도해 주고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 느끼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살지 않았을까? 음 내가 잘못 살았으면 내가 그런 도움을 받고 (물질적으로) 들어왔을까?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도움이 들어온다고... 그니까 내가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런 거 같아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데 없을 때 어디에서든 통장에 들어오더라고요.(참여자 3)

그때는 잘 몰랐던 거 같은데 그 당시에는 몰랐었고 이게 기도는 안됐어. 근데 나의 힘 보다는 주위에서 그래도 아 나에 대해서 한번 정도 생각해 주고 서로 걱정해 주는 이런 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힘이 있었구나는 느껴져. 성당신자들이 기도해준 거. 왜냐하면 내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도 그분에 대해서 묵주기도 한단씩이라도 해주기 때문에 나 때도 그렇지 안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참여자 4)

내가 살아오면서 그 아플 때가 가장 행복했어. 왜냐하면 나는 힘들게 살았거든. 어릴 때부터 잘도 힘들게 살았어. 내가 팔남매의 맏이였거든. 오빠 있었어도 옛날에 오빠는 상전이었지. 상전도 그런 상전이 없었지. 그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목숨이 떨어지지 않고 살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면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뭐 하고 싶으나 사람들마다 위해 주니까 경허니까 그때는 행복이 느껴지더라고... 병원에 있으면서도 행복을 느꼈지 불행하다고 못 느껴 반.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느껴 반. 그니까 경 이겨 나간 거지. 또 이 주위에서 내가 빨리 병원에서 퇴원하길 바란다는 기도를 해줘 갔고, 그래서 (기도로) 뭐 잘 못되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 (느낀).(참여자 5)

(본당) 수녀님이 자기도 수술 받아 본 적 있다고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견디면 결국은 편안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그 말씀이 제 굉장히 소중하게 와 닿고 하루 종일 병원에 있으면서도 그래 잘 될 것이다 내가 이 정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마귀의 꾀임에 떨어지는 거 그것 때문에 이겨냈어요. 또 신자분들이나 수녀님, 저를 모르는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를 해 주신다는 걸 느꼈어요.(참여자 7)

2) 고통의 길을 함께 걸어줌

그 내가 마음이 그러니까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아는 분이 말씀 치유하는 데 데려다 주시고 (거기) 있다고 같이 가자고... 그게 파티마성모 100주년, 그때 어디 다니지 못했을 때 치료 끝나고 다른데 있었는데 그 꽃마을에 있었는데 암환자들 교육해주는 데 청주 성모꽃마을이라고 있는데 암 치료 끝나고 마무리하고 그럴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지를 지시해 주는 데 있는데 부산에 파티마성모님이 오셔서 가자고 해서 거기도 가고...

그래서 이게 썰기도로 이어졌거든요. 아무래도 집에 혼자 있으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나는데 썰기도로 성당에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웃음)(참여자 6)

범주 6. 종교적 삶: 감사와 위로의 시간

현대의 이해지평 위에서 ‘인간에게 절대자와의 만남’이 가능할까? Rahner는 인간은 비록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오롯한 존재(das Sein schlechthin)를 향해 나아가려는 절대적 개방성을 갖고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에 자유로이 귀 기울일 수 있는 청자(聽者)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종교적 인간이라는 것이다. 이는 인간정신의 본래적인 특성으로서 인간은 절대자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뻗어 나가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김교응, 2016). 하지만 인간은 무한과 유한을 넘나들며 다양한 삶의 계기들— 질병, 교통사고, 가족의 죽음 등—을 접하면서 당혹스럽게도 하고 섬뜩하게도 하는데 이러한 실존적 한계체험의 극복을 오직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느님이 자유롭게 인간에게 베풀어주시는 ‘은총’으로 인간은 이런 하느님의 사랑에 신앙으로 응답하고 따른다(이철민, 2005). 그리고 인간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의식하는 순간, 그 개개인은 더없이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로 자리 잡는다. 더욱이 생명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참 생명 성취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종교라면, 이러한 종교의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위인 제사, 즉 유일회적인 십자가 상 제사를 재현하고 기념하는 미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고 희생제물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받아먹고 마심으로써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그분과 일치하는 최상의 행위이다. 이렇게 볼 때 미사는 죽음의 봉헌의 표시이면서 동시에 부활과 생명과 승리에 참여하는 것이다(유창근, 2002). 도출된 하위범주로는 ‘절대자 하느님께 의지’, ‘삶의 평안을 맞보다’이다.

주제 1. 절대자 하느님께 의지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비참한 처지와 공로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마침내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까지 당신과 사랑의 통교를 나누고 싶어 하는 이 사랑이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이다(박원빈, 2006).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을 이끄신다. 죽음 직면은 정해진 시간이 따로 없다. 참여자 5는 끔찍한 교통사고로 생과사를 넘나들 때 그리고 수술 후 육신의 고통으로 몸서리칠 때에도 통원치료 중에 집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을 때에도 하느님은 자신을 업고 다닐 정도로 자비로우신 분으로 여기고 있었다. 참여자 7은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분으로 하느님밖에 없다고 고백했다. 참여자 3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언급한 열렬한 화살기도를 함으로써 하루 종일 뜨거운 신심을 간직(Aumann Jordan, 1980/1994)하며 화살기도로 하느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서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하였다. 참여자 6도 질병 후 그전과는 다른 신체적인 조건과 심리적으로 처질 때 예수님과 얘기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고 표현하였다. 미사는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이다. 우리 시대의 성녀로 불리는 마더 테레사는 성찬의 삶을 직접 몸으로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결국 성체성사와의 완전한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실존이라고 말했듯이 참여자 1, 3, 4, 6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체험하게 해주는 미사-성체성사(성찬례)에 참여하여 기쁘게 자신의 마음을 열고 더 성장하려는 원의가 컸었다. 그전과는 다른 깊은 믿음의 뿌리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수와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고 실제로 그 사건에 동참함으로써 파스카의 희생의 신비를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실존적 결단이기도 하다. 이 결단은 하느님이 인간을 향한 연민과 사랑의 발로에서 이루어진 측은지심의 마음(송용민, 2005)으로서, 참여자 1은 죽음 직면 전에도 매일미사를 꾸준히 다녔고 지금도 매일 걸어서 성찬례에 참여하는데 자신이 측은지심의 마음이 더 커졌으며 이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계속 간직하고 있다고 고백하였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통과례로서의 죽음은, 비구원의 상황에서 구원으로의 전환을 이루는 죽음이므로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생활에서 현재화시켜야 하며 죽음의 불가피성 앞에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희망이다. 이 희망은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길목이자 부활의 전초이므로, 장례미사는 죽은 이

를 하느님께 맡기는 예식으로서 살아있는 사람들도 위로를 받으며, 삶과 죽음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게 함으로써 진실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준다(황현, 1995). 참여자 4는 예전에는 장례미사를 잘 참석 안했고 살아오면서 큰 경험(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다지 깊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죽음불안을 겪고 난 뒤 이 예식에 다시 참여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고 외로움도 줄어들고 죽음이 무섭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고백하였다.

1) 내가 힘들 때 업고가시는 걸요!

제가 어려울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나를 도와주지를 안하고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내가 그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건넜느니라. 그런 생각이 났고 해서 어려울 때마다 하느님이 나를 업고 다니고 보살펴 주신다는 걸 내가 그걸 그것도 그때는 아니고 성당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도 그 말이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했구나! 그런 걸 내가 진짜 그 기도를 한 거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느님, 나를 업고 가시는 하느님!(참여자 5)

내가 이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깐 내가 이제 가장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현실적으로는 가족이 되겠지만 내 어떤 영성적으로는 하느님밖에 없는 거죠. 그니까 정말 하느님께 내가 진짜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거 있죠. 몰입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느님께서 들어주세요. 특히 걸으면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느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내 생각대로 다 해주시더라고요. 막 (세속적인) 그런 것들 아니니까.(참여자 7)

2) 정신적인 힘과 평온의 원천은 그분과의 대화, 속삭임으로...

우리는 정말 화살기도가 있잖아요. 화살기도를 생각해봐 바치잖아.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 생각을 하느님과 대화하는 거고, 그 자체가 솔직히 기도다 그렇게... 그런 (아픈) 상태일 때도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 생각을 했었지.(참여자 3)

아,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랬는데 속으로 나도 나쁜 사람이다(웃음) 그래서 항상 얘기

하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항상 얘기하라고 그래 가지고 책을 보다가 나의 맘이 편안해지고 그동안의 (나만의) 생활이 있고 해서 세미나 가서 듣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라고... 얘기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세요.’(참여자 6)

3) 미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현존을 체화(體化)하며...

매일미사를 안가잔 하잖아 어쩔 땐... 근데 누가 막 탁하게 건드리는 거 님아. 누게가 양 가라고 거들어 주는 거 님아. 그래서 가전. 미직거리면 성당에 가라가라 하고 느껴져. 매일미사에 대해 (가라는) 직감이 느껴져. 걸어서 매일 성당에 가서 영성체 하면 별 특별한 느낌을 안 받는데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 갔다 왔다는 즐거움!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니주게.(참여자 1)

죽음에 대한 도움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받았죠. 미사 때는 어쨌든 제단의 십자가를 보며 많이... 아~ 영성체하면서 신앙생활에 항상 도움이 되었죠.(참여자 3)

항상 장례미사를 할 때 목숨을 내가 주관하는 거 아니고 그분께서 주관해 주신다고 했듯이 그래서 내가 이런 장례미사를 예전에는 잘 참례를 안 했어. 근데 너무 힘들어서 장례미사를 참례하다 보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 조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 이게 외로움도 안 온 것 같고 좀 이제는 죽음을 그렇게 무섭다 생각은 안 해.(참여자 4)

이제는 모든 게 다 내 것 같아. 그전에는 ‘그래 그렇지. 아, 좋다.’ 로만 생각하고, 이제는 내 걸로 받아들여야지. 미사시간을 남다르게 하려고, 아직은 모자라요. 뭐 그 기도하고 미사시간에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니까 저도 그런 (미사 중에 예수님의 현존) 신앙적인 거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랬는데 그래도 그냥 잊고 살았었고 아프니까 아프니까 모든 게 이제 다 들어오죠. 아 미사도 이제 매일 열심히 해야지 예수님과... 그전에는 ‘아, 그런가?’ 하고 저는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성체도 (성당) 여기 와서 뭐 그렇게 기쁘게 모시지 않았거든. 그전에는 그냥 설렁설렁 대충 아니면 아 어쩔 때는 미사는 뭐 성사 안 봐야 되니까 뭐 이런 정도... 그전에는 그니까 이제는 그거를 아 예수님 몸은 이제 실재(實在)다 그게 이제 실재구나! 라고 느끼려고 하는 거지 내가 아직 실재구나!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아, 예수님 계시다. 예수님 몸이다. 진짜 몸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진짜로 이제 느끼게 해달라고 이런 것도 하면서 미사를 참례해요.(참여자 6)

주제 2. 삶의 평안을 맛보다

인간은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인식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며, 하느님과 일치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도는 삶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참된 신앙의 체험을 가져다줌과 동시에 자신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과 함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 십자가의 성 요한의 설명에 따르면 사색적 행위를 통해서 본성적이고 세속적이며 일시적인 모든 유치한 상상들과 형상들을 감각에서 비워버릴 수 있는 ‘묵상’을 통해 하느님을 찾도록 인간을 도와(최준석, 2011)주는데, 참여자 7은 몸이 아프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말씀으로 묵상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내적으로 더 단단해졌고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참여자 1, 2, 3, 6도 기도하면서 평화를 얻고 정말 기도 덕분에 살았으며 이 기도가 자신의 마지막 동아줄이라고도 표현했고, 기도 중에 ‘다 잘될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작용하였다. 또 병을 얻고 싶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이런 기회를 통해 이렇게 기도하고 살 수 있는 것도 은총임을 깨달았다. 참여자 5는 ‘종합 비타민 기도’인 묵주기도를 하루에 30단씩 바치는데 몸이 회복된 후 매일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하느님께 약속드린 후 지금도 새벽에 우유배달을 시작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기도를 바치고 있다고 고백하였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하면,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는 우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며 천사들과 결합시켜 주는 사랑의 끈이자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 죽음의 순간에 묵주는 우리에게 위안이 된다고 피력한다. 왜냐하면 이 묵주기도를 매일 하면 믿음이 성장하여 굳세어지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한 그 좋은 생각을 실행할 수 있는 생활이 가능(장인산, 2003)하기 때문이다. 참여자 1, 2, 4, 6, 7, 8은 죽음불안 이전에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성경구절을 외우고 다니거나 말씀되새김을 하다 보니 청원기도보다는 이제는 감사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전에는 성경필사를 짐으로 여겼으나 지금은 한 줄을 써도 정성으로 필사를 하고 있다고 고백하였다. Thomas Morton은 성경이 흥미로운 책은 아니나 성경말씀의 힘은 그 사람의 실존 전체를 바꾸어 버릴 수 있

는 힘으로 작용하여 성경에 대해 묻기 시작하는 사람은 동시에 내면적으로 성경이 그에게 묻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말씀으로 독서를 할 때 결국에는 살아계신 하느님과 진정한 내적 만남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수단이어서 초기 수도자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독서는 영성생활의 원천이었고 하느님께 인도하는 훌륭한 안내서였다(김택훈, 2013).

1) 기도는 나의 호흡

난 기도하면서 거기서 (평화를) 얻고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 그냥 화살기도, 또 우리 (프란치스코) 재속회원인 성무일도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해. 아침에는 밤해야 하고 뭐해야 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9일기도 묵주기도를 바치고 좋아.(참여자 1)

정말 기도덕분에 살았다는 거... 기도 중에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느님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는데도 경제적으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거에도 감사하지.(참여자 2)

이 검사라는 게 검사할 때는 스트레스지. 피검사지 유전자 분자검사인데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 기간이 힘들지. 그러니까 그 기간이 스트레스 기간이라 전화도 받기 싫고 맘이 편안해졌다가도 그 기간이 되면 맘이 좀 그렇게 되지. 이런 뭐 그때그때 잘 표현은 안하고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당연히 하느님한테는 간절한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요 그 내가 딱치니까 간절한 기도가 되더라고. 진짜 그 딱치기 전에도 기도는 간절한 기도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간절한 아픔이 있는 사람의 기도는 이 기도 아니면 내가 바랄 것이 없는데 마지막 동아줄인데 이게 없으면 더 이상 없죠. 이게 마지막인데 이 기도가 마지막인데... 이게 이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끝날 건데 간절할 수밖에 없죠.(참여자 3)

내가 딱 하루에 묵주기도를 30단씩 바쳐. 시작한지 한 7~8년 돼. 매일 앉아서는 종일 못하고 경허난 일하잖아. 새벽에 우유하니까 집에서 나오면서 묵주기도 하기 시작해. 어쩔 때는 내가 우스개 소리를 한 대. 잠자다가 뭐라 중얼거리는데 성모송을 하고 있어. 그

정도로 지금 습관되부런.(참여자 5)

그전에는 일해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저녁에 와서 그냥 쓰러져 자고 주일미사 오고 맨날 이 그 영성적인 그런 거는 생각은 했어도 실천은 전혀 안했었는데 제가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기도를 하고 그래서 잘은 못해요. 버릇이 안 되서 이제 저는 이것도 아 정말 병을 얻고 싶어 얻는 사람도 없고 병이 와서 병이 하나도 없으면 그래도 좋은데 내가 이렇게 음 기도하고 살 수 있는 이것도 은총이구나!(웃음) 그전에는 묵주기도도 필요할 때만 묵주기도를 했어요. 헌데 이제는 음 하여튼 매일 묵주기도를 해요.(참여자 6)

일단은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로 아침기도와 저녁기도를 매일하는데 건너뛰지를 말고 기도를 하는데 가정을 위한 기도, 장애인을 위한 기도, 병자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주교, 쉬는 교우, 그 다음 단계는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아침마다 할 수 있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고... 내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마음이 빼딱해지다가도 다시 펴지고 나한테 큰 도움을 주죠.(참여자 7)

2) 성경말씀으로 위로를 얻으며 다시 일어서기

일상생활하면서 내가 이 그 사고 나기 전부터 바오로딸했주게. 그런 거 생각안하고 가톨릭신문 봐그네 해서. 그냥 어 이견해야 되겠다고 하고 헐. 허리 아플 때도 어머니 병원 입원해 있을 때도 계속 했어. 8년 동안 바오로 영성까지 해서 끝났어. 뭘 해신디 생각이 안나.(웃음) 또 그 성모님 봉헌세미나에서 말씀사탕 받아난. (지갑에서 꺼내시며) '지금 필요한 것은 깊은 침묵과 겸손, 큰 신뢰와 많은 기도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성경말씀은 지니고 이신디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게.(참여자 1)

저기 그렇게 내가 살아오지 못했는데 데살로니카 5장 16절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 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거고... 진짜 그 생각은 내가 마음 깊이 매일 하려고 마음같이 잘 실천하지 못해.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진짜 옛날 성경구절이 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할 때는 말은 일에 감사하지 않은 것도 어떤 것도 감사해야 할 때는 더 강하게 다가와. 근데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고 기쁘게 살아가지 않았는데 그걸 못하고 살았는데 하려고...(참여자 2)

‘매일 기도하십시오.’ 데살로니카 1서 그 성경말씀이 참 좋아. 아프기 전부터 하여튼 내가 성당에 다니면서부터 그 말씀이 참 좋더라고. 음 내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 보고서라도 한 번씩은 이제 기도가 조금 되는 것 같고 이제는 우리가 살다보면은 내가 죽는 게 편할 건가 생각이 항상 나. 음 성경말씀도 그렇고 기도 중에서도 우리가 참 감사기도보다는 청원기도만 하고 감사기도는 별로 청하질 안잖아. 그래서 아무래도 청원보다는 감사기도를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 항상 그 성경구절이 참 맘에 와 닿는 것 같아. 그 우리 성경말씀의 가훈이라면 가훈이라고 할까 항상 갖고 있어. 성경가훈이라고 할 수도 있어.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십시오.’ 나 스스로 항상 갖고 있어. 나 스스로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자는 것 내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있는 말씀!(참여자 4)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 주신다 믿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고쳐야 하는 걸 느꼈어요. 그전에는 성경도 안 읽고 그랬는데 모르면 알 수가 없잖아요. 외우지는 않았는데 외우지를 못하겠어. ‘하느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의 오른쪽에 계시는 분, 낮에는 해도 밤에는 별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나를 지켜달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너를 내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걸 아직 외우지 못했어요. ‘아 토빗기다.’ 그러면 너를 내치지 않는다 그게 좋아가지고 하느님이 너 옆에 계시다 내 오른쪽에 계시다 이 말씀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려고... 그리고 성경필사를 전에는 하기는 했는데 내가 그전에는 언제 이걸 다 쓰나 했는데 이제는 한 줄을 쓰더라도 정성으로 써요.(참여자 6)

죽음보다도 내가 지금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성경구절을 외우고 다녀요. 기도를 하면서도 성경구절 좋아하는 구절이 매일같이 그걸 성경구절을 암기를 안 하면 잊어버리고 까먹으니까 매일같이 차에서 암기를 해요. 어떤 구절이냐면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어 그러면 음 티모테오부터 할게요. 티모테오 1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며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고...’(긴장해서 잠시 멈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웃음)(참여자 8)

3) 독서와 묵상은 나를 계속 개선시키죠!

몸이 아프니까 못 움직이니까 묵상을 많이 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짧은 묵상글 아니면 성경말씀으로 묵상 기도하면서 땅이 다져진다고나 할까 땅이 더 단단해진다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 매일미사 신부님들 묵상자료 있잖아요. 그 만든 거를 매일 읽고 계속 묵상을 하니까 내 생각이 짧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부님들의 생각들을 배우고 알게 되는 기회가 되잖아요. 매일 묵상을 좋은 묵상집을 만들어서 보니까 그걸 따라가려고 노력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으면 묵상을 하고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성경말씀과 신부님 글 읽는 것들, 그런 글들이 이제 나를 계속 개선시키죠.(참여자 7)

범주 7. 죽음에 대한 자기 개방성의 확대

죽음의 초월은 삶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으로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내일의 놀라움을 준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마르셀의 주장과 맞물려 죽음이란 인격을 약화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해방시킴으로써 인격을 더 높여주므로 지속적인 사색과 탐구를 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셸링의 확신은 우리 존재의 내면적인 것에서 죽은 자와 일치하여 머물며 또한 삶 전체를 영혼과의 미래의 재결합에 대한 통찰에 도달하게 한다. 이러한 인식은 확실성에서의 올바른 느낌과 사고에서 하나의 확신으로 성숙할 수 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죽음을 하느님과 개인의 관계로서 죽음 후에 또 다른 삶이 있고, 믿음으로 신자들을 더 나은 세계, 하느님의 존재 안으로 인도한다(구인회, 2012).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초월하는 삶에 희망과 확신을 심어 주었고, 인간의 삶 속에서 전체성을 지향하는 모든 것이 실제로 충만에 이른다는 다시 말해 구원 가득한 완성된 미래, 즉 영원한 삶으로 들어간다(김정우, 1982). 그리고 김대동(2005)의 연구에서는 죽음 직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한함을 알아 절대자를 찾는 초월적 삶에 귀의하게 만들어 참된 신앙심을 갖게 되며, 울포트가 말한 대로 ‘종교적 심성’은 삶의 비극과 혼란에 직면해서도 의미와 평화를 생성시킬 수 있

는 것이라고 하였다(김대동, 2005). 하위범주로는 ‘너나 나나 죽는 거 똑같은데...’,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위기를 기회로...’이다.

주제 1. 너나 나나 죽는 거 똑같은데...

톨스토이의 작품 ‘전쟁과 평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죽음에 대한 내적 체험이 얼마나 인간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자각하고 의미 있고 긍정적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게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Yalom, 1980/2007). 참여자 2, 3, 5, 7은 죽음직면이라는 위협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죽음의 불가피성과 삶의 유한성에 대한 직면과 자각은 오히려 지금-여기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자극하였다. 불안과 내밀하게 연관이 있는 죽음에 대한 내적 체험과 의식적 자각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시 성찰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여 삶의 유한성을 새롭게 바라보며 현재 여기에 존재하는 자신을 더 의미 있게 만들었고(김정현, 2012), 또 하나님과 함께 이웃사랑을 즐겁게 실천하며 살다 보면 기쁘게 그리고 잘 죽을 수 있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유일회적 깨달음은 삶의 익숙함에 머물러 존재의 의미를 망각하고 무의미한 일상을 반복하는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게 한다(이선아, 2013).

1) 생(生)의 유한함을 새롭게 바라보며...

살다보면 어쩔 땐 그야말로 고통도 슬픔도 거치기도 하고 기쁠 땐 기뻐하면서 살고 그렇게 살다 가면 죽겠지. 우리 오빠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온전치 않은데 그렇고 또 우리 언니 형부가 안 좋아서 진짜 나이 들고 해서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거 보면 고통도 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받아들이고 신자로서 의무적으로도 살아야 되고 지혜롭게도 살아야 되는 거고 회개할 땐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그 옛날 순교자들의 삶도 그렇고 보속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참여자 2)

아프기 전에는 인생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그래서 그것이 제가 좀 억울했어요. 아픈 후에 보니까 아 인생이 며칠 안 남은 내 인생을 이렇게 재밌고 보람차게 살고 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봐야죠.(참여자 3)

하느님 나라에 가는, 그곳에 가는 게 최종 목적이고 그냥 지금은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질 것 닐아. 그전에는 막 가슴 아픈 거 이제는 그냥 자연적으로 죽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닐아.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도 병 걸러 죽고 많이 죽고 하잖아. 근데 나는 지금까지 산거라. 근데 30년 전에 죽어야 될 생명인데 계난 완전히 덤으로 사는 거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거니까.(참여자 5)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제가 꿈을 꿨는데 내가 나이가 팔십인데 얼굴이 요렇게 동그랗게 나이가 저서 살이 쪼 가지고 살찌게 나왔는데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서 있는데 그 모습을 보여 주시더라고요. 80된 모습을... 살찐 모습을 얼굴이 이렇게 얼굴이 동그란데 얼굴이 빨갛고 머리카락도 앞에도 빠졌고 그래도 머리카락 술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80이더라고요. 내가 이제 60이니까 20년은 더 살겠네. 앞으로 20년을 더 주셨는데 그 2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진짜 살찌게 되면 그렇게 변할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을... ‘잘 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80대 내 모습이 편하게 보였어요. 내 존재가 유한하다는 거 당연하다는 거 존재가 사라질 거라는 그런 불안은 없고 내가 언젠가는 사라질 거라는 사라지지만 내가 살아 있는 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고 맘도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니까 일단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죠. 선행을 많이 베푸는 것이 나머지 인생에 중요하겠다.(참여자 7)

2) 하느님 안에서 기쁘게 죽음 껴안기

내가 하느님의 뜻에 살아갔다고 생각하면 죽을 때도 두렵지 않고 또 그래도 내가 정말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기쁘게 죽는 것! 죽기 전에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내 수준에 맞게 ‘하느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다 하느님 덕분이다...’(참여자 2)

그런 직면을 당하면은 또 그렇게 하고 싶을까 부질없는 것이잖아. 나는 받아들여질 것 같아. 인간이 영원하지 않잖아. 내가 살아서는 우리 영혼은 남아 있을 거잖아. 살아있는 동안 맘껏 즐기고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것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참여자 4)

죽음이 두려우면서도 그렇게 막 ‘나 안 죽을래요.’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죽으면 죽은 거지.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예수님을 껴안고 살아야겠지.(참여자 6)

주제 2.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위기를 기회로...

죽음을 직면하고 나서 다시 일상세계에서 자신과 타인을 보존하고 유지하려는 책임, 소망, 그리고 용기 있게 결정((Yalom, 2002/2005)하려는 삶의 의지가 활성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기저에는 죽음 경험에 따른 정서, 소망, 홀로 해결해야 되는 순간 등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면으로부터 분리되는 실존적 소외, 즉 두려움을 일으키게 된다(김정현, 2012). 그러나 참여자들이 종교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존재소멸이라는 위기의 체험은 그전과는 다른 종교적 믿음이 더욱 내재화되어 심리적 자원으로 활용하였고, 죽음에 대해서도 수용적(이기홍, 2009)이었다.

1) 일상생활을 제대로, 충실하게...

암 선고받기 전에는 죽음에 대해 생각도 안 해 봤고 뭐 어릴 때 방학 때 있잖아. 계획 같은 거 세우잖아. 뭐를 몇 시까지 끝내고 이런 걸 아무것도 체크 안 해 봤고, 난 처음부터 아예 계획도 세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니까 거기에 대해 참 생각을 안했지. 계획 없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언젠가는 죽을 거고 마음을 온전히 그렇게 갑자기 순식간에 죽어버리면 몰라도 그때그때 그날그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며 사는 것!(참여자 2)

내가 살면서 주위에 잘 못해드려서 어느 순간 이제 그것도 알게 되더라고... 다 깨닫게... 그동안 내가 너무 못 살았고 내가 새로 잘 살아야지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지 식구들한테도 다른 사람한테도 무언가는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시작, 이제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 잘해드리자! 내가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지. 그게 물론 신앙이 미워, 미워가지고 그건 이제는 그것도 지나간 것 생각안 하고 어느 때부터는 신앙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웃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게요.’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웃음)(참여자 6)

2) 주변정리는 필수, 마음정리는 매일 그렇게 살다보면...

(죽음에 대해) 꺾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 나는 이해가 되는데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잘 몰라. 그래도 아파본 사람들은 그런 감정들이 틀려. 나는 이해하는 데 죽음직면을 꺾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음 음 안됐다.’ 하는데 아파본 사람들은 감정 자체가 틀려. 가까이 있는 친구도... 그러면 가서 솔직히 할 말이 없어도 손만 잡고...(눈시울) 사실 죽음 자체가 슬픈데 그 슬픔을 품위라고 할까 그 슬픔이 아주 아주 그래도 우리 누구 누구는 그래도 잘 살다가 돌아가셨다 그것이 중요하죠. 평상시에 이렇게 잘 살아야지.(참여자 3)

이게 마음이 이렇게 (좋게) 생각해야지 하면서도 처질 때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처질 때 첫 마음으로 끌어 올리려고 좋은 상태로 그 마음을 평온한 상태로 올리려고... 그래서 주변정리, 마음 정리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게 살다보면 갈 때 되면 편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마음정리 주변정리는 어느 정도 살다보면 어느 정도 되지는 않을까.(웃음) 이렇게 살다보면 언젠가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정리한다고나 할까 아 이게 낫지 않을까 이래도 아직은 잘 못해(웃음) 살다보면 더 편안해지겠지.(참여자 6)

어쩔 때는 나가 어차피 죽을병에 걸리면 이게 무슨 꼭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 하느님 앞에 가기 전에 죽을병에 걸렸다 하면 이제 받아들이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 죽음준비를 그러니까 정리하고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지. 매일 잘 견뎌서 하느님께 가면 되겠지.(참여자 8)

3) 답답하게 맞서기 위해 나를 단련시키겠죠!

넬 모레 또 병원 가는데 가면은 아 가면 안 좋지. 맨날 검사하니까 검사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그러면 나빠지지 않을까 그런... 그니까 그게 어쩔 땐 싫거든. 검사해서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일주일 걸리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그래도 차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어차피 그렇잖아. 어차피 한번은 꼭 죽기 때문에...(참여자 3)

막상 또 그런 게 오면 아~ 힘들 것 같기도 해. 근데 마음가짐은 다르지 않은데 그 과정이 힘들어서... 모든 것은 정말 뭐 우리 힘으로 되는 거는 없지만 부정보다는 긍정으

로... 나는 (항암치료를) 6차를 했지만 체력보다도 진짜 마음가짐 자체를 굳게 먹지 않으면 사람인지라.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하는 거거든.(참여자 4)

죽음이라고 인해 가지고 죽음을 크게 연관 지어서 다시 두 번이 악화되어가지고 내가 죽는다 그러면 그때는 뭐 저를 뭐랄까 나를 단련시키겠죠. 음 최후에 맞서기 위해서 담담하게 맞서기 위해서 나를 단련시키겠죠. 피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꺼라면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내가 해야 되는 거.(참여자 7)

범주 8. 고통은 나를 성장시키는 디딤돌

완전해진 것, 무르익은 모든 것은 죽기를 원한다.

그러나 설익은 것들은 하나같이 살기를 원한다.

고통 받는 모든 것은 살기를 원하는데,

이는 성숙해지고 기쁨을 맛보고 열망을 갖기 위한 것이다.

이는 더욱 멀리 있는 것, 더욱 높이 있는 것,

더욱 밝은 것을 향한 열망이다(Nietzsche, 2002).

죽음불안이라는 극단적 체험에서 인간은 다시 태어나며 섬세한 감각으로 긍정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김정현, 2012). 실존에 있어서 나와 너의 관계는 상호의 존성과 호혜성을 바탕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받아들이려는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연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대면하여 생각과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을 버리고 천주교 신자로서 사랑이라는 십자가를 선택한다. 성 바오로 사도의 환난과 위로의 십자가, 더 확장하자면 순교적 영성의 삶을 의미한다(이덕형, 2015). 하위범주로는 ‘깨달음의 웃을 입으며...’, ‘신앙생활은 Good’이다.

주제 1. 깨달음의 웃을 입으며...

인간은 실제로 선택된 우선사항들의 생애동안 그런 척하면서 ‘한 역할을 행동 했었을 수’ 있지만 죽음의 면전에서 모든 허위는 사라진다. 순종, 뉘우침, 그리고

하느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들로 조망된다. ‘나의 하느님이자, 내 전부’이신 그분과 함께 가능성들의 삶을 향해 나아간다(Doka, Morgan, 1993/2006).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사랑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발타살(윤정현, 2004)의 말처럼 참여자들은 본질적으로 하느님 사랑은 이웃과 세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1) 그 순간 내가 깨달았어!

삶이 확 바뀌었는데 암 걸리기 전에는 우선순위가 돈이었주께. 지금은 하느님! 그때 당시에는 하느님보다는 돈이 1순위였주께. 그전에는 뽕뽕뽕하게 살았지. 돈돈돈하고 살았지. 이 죽음직면으로 많이 변했지. ‘아~ 하느님이 살려 주셨구나!’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런 걸... 하느님께서 주신 거 나는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거. 도와주라고 그걸 알려주시고 살려주시고 돈도 주시고 하느님한테 제일 감사해. 너무 너무 진짜 인생을 더 많이 제대로 잘하라고...(참여자 1)

남들이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또 등록금 때문에 걱정은 없어서 그런지 내가 검질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어릴 때 야단만 맞아서 불만이었지. 친정아버지가 여자가 공부를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야단맞고 그런 아버지께 받지 못한 사랑을 하느님께 받은 사랑에 그 사랑이 깊어지니까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셨다는 거에 감사하다는 거지. 이것도 내가 아이들한테 터득한거. 이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내가 하느님께 받은 게 많은데 열심히 안 하고 그래서 하느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자 이거지.(참여자 2)

병실, 병원에 있다 보면 애기들 많아. 사실은 소아암 암병동에 보면 그런 환자들만 보는데 아 그럴 때는 그 아가들 진짜 머리 뽕뽕 밀고 걸어 다니는 것 보면 너무 해맑은 거라. 진짜로 그런 쪼그만 아이들이 치료받을 때보면 너무 힘드니까 이거는 뭐 울적에는 정말 나도 소름이 끼쳐.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음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은 어느 정도 크고 이렇게 신앙이 있어서 내가 내 스스로 위안삼아 지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내가 그래도 굉장히 진짜 하나 받은 것은 잘됐다. 이런 생각이 그럴 때는 많이 들더라고. 진짜 어떻게 보면 내 욕심 차리는 거.(웃음) 그래서 그때마다 그랬어. 내가 진짜 신앙보다는 진짜 성당에 가면 ‘올바르게 해야겠다.’ 이제 커가는 저런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것도 감사하고

많이 깨달았. 진짜로 내가 아프면서 조금은 성장한 것 같아. 내 욕심이 조금은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참여자 4)

그전에는 내가 그 그날 살면서 불만이 많았어요. 집안일 일도 그렇게 우선은 일하는 거 그런 게 너무 힘들고 불만 지치고 이런 게 많았지. 특히 모든 게 불만이었는데 (진단 결과 연락받고) 그때 딱 문 열고 들어오는데 내가 그 힘들어했던 거 내가 귀찮아했던 거 내가 정말 그 이렇게 식구들 챙겨야 되는 거 내가 이제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에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걸 그때 그 모든 게 감사한 일인데 내가 이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냥 일상들을 늘 일상들이 이 사소한 일상들을 내가 왜 이렇게 음 거절하고 힘들어하고 살았는지 그때 딱 그게 너~무 소중한 거. 근데 그거는 내가 그 죽는구나! 이걸 느끼지 않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게 나중에 늙어서 아파지면 모를 건데 아프지 않았으면 못 느꼈지.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을...(참여자 6)

죽기 전에 안 죽으려고 명예, 권력, 돈 아무래도 ‘아, 나 안 죽어.’ 하는데 죽어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주먹 쥐고 나와 가지고 손 펴서 가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사는 게 똑같은 데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다 바오로사도 말씀처럼 내가 세상의 찌꺼기가 되고 쓰레기가 되어야지. 그렇게 취급받아 살아야 하는데 그게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요. 나는 내가 앞으로도 장교출신이고 우리 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공직에 있으니까 오랫동안 살았고, 나는 세상의 찌꺼기, 쓰레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아 바오로사도 말씀처럼 찌꺼기라고 생각하고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행복하겠구나! 하느님 볼 때에는 내가 쓰레기고 찌꺼기지 그런 생각이 들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멸칭한 사람에게 아이고, 쓰레기 같은 사람이니 찌꺼기 같은 사람이니 라고 하면 부끄러운 생각이다... 죽음이라는 게 별게 아니다. 정말 잘 살아야지.(참여자 7)

2) 하느님 사랑으로 힘입어 이웃을 내 몸처럼...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실천하며 사는 것이지. 그게 욕심이 나지.(참여자 2)

하느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웃의 범위가 어디냐 이

웃이 누구나 할 때 ○○성당 교우 이게 아니고 진짜 저기 시리아에서 무슨 고통 받는 사람, 땅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저 아프리카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 이것이 결국은 내 이웃이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옛날에는 기복적으로 나, 나 자신, 가족 그런 기도보다는 내 스스로 변화하면서 지금은 내 주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참여자 7)

주제 2. 신앙생활은 Good!

죽음직면을 통한 죽음불안 사건은 삶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참여자들은 질병과 사고를 통하여 자신의 참 모습, 즉 신앙생활은 진정한 내적 정체를 깊이 의식하게 해주는 도구이며 타인을 사랑할 때 그것은 현재 실현되고 있는 하느님 사랑임을 알아차렸다. 죽음직면의 정서적 불안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육체적 힘들어 지독하게 고통스러웠지만 정말 상관없었다는 듯이 인내함으로서 자기 자신이 된다. 참된 그리스도교인의 인격적인 성품과 윤리적 변화를 수반(심상태, 2000)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신원(존재목적)을 발견하여 실현시켜 나가려는 삶의 전환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1) 믿음이 달라졌어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해. 아 하느님이 준비하고 있구나! ‘아 하느님!’ 해져.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하느님, 나를 도구로 준비하시고 계시는 하느님! 영 하명 딱하게 알게 해 주시고 진짜 하느님이 신비!(참여자 1)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제일 잘했다고 하는 거는 가족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고 그 내가 만약에 정말 이 믿음이 없었으면 나도 그냥 그랬을 것 같아. 나 개인적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믿음을 가지니까는 깊숙이까지는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내안에서 나를 위안 받기 위해서 라는 것도 그렇고 내가 시어머니랑 오래 살아서 그런지 가정에 대해 이렇게 막 애뜻한 거는 없어. 그리고 또 나는 딸이 하나지만 어 나는 애만 보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도 별로 안 해 판. 그리고 우리 성모마리아님을 먼저 찾으면서 기도를 한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내 안에 힘이 조금 담겨져 있는 거 같아.(웃음)(참여자 4)

하느님에 대한 열성이 조금 옛날보다는 틀리지. 지금은 많이 의지하고 기도하면 들어 주신다고 하는 걸 내가 느껴. 솔직히 말해그냥 또 성모님이 알아주시니까 (운전으로 배달) 땀기면서 기도하는 거지. 묵주기도는 항상 해. 차에 묵주가 여러 개 걸려 있어. 하다 보면 어디가고 없어서 묵주기도는 항상 하는데 난 세 번인가 체험해봐서... 비 오는 날 운전하다가 아이가 비옷을 입고 횡단보도에 서 있었는데 아이가 안 보여. 내가 무슨 생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모르크라. 계단 금방 신호 받아 짹 달리는데 순간 아이가 안 보이니까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딱 밟았지 밟았는데 아이를 치은 거라. 그래서 (아이가) 본네트에 떨어졌어. 경허난 선생하고 아이 태우고 내가 ○○병원에 갔다니까 갔는데 아무 이상도 없고 내가 기도하면서 땀기니까 또 운전하명 여기저기 배달하는데 백미리에서 보면 사각지대에 사람 하나가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딱 넘어 가는데 보인 거라. 사람이 안보였던 거지. 근데 그 사람을 차가 안치고 넘어간 거. 묵주기도를 하는데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구나 하는 거 또 어느 순간에 (운전하다) 잊어버리면 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나를 그 묵주기도하면서 운전대를 잡으면 은총을 받고 있다는 거 느껴. 너무 많이 느꼈. 여러 번...(참여자 5)

신앙생활이 없었다면 나는 뭐 땅 속에 들어가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사업은 실패해도 인생은 성공했다 왜? 이 하느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플 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울증이 왔었는데 신앙이 없었다면 그 비참하고 막연하겠지.(참여자 8)

2) 사람에 대한 소중함

남편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했는데 뉘우쳐야 하겠다고 생각은 했었지. 그랬는데 내가 수술하고 나서 나보다 더 두려워하고 안 돼 보여서 용서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겼어.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서 용서가 된 것이 아니라 가톨릭정신, 그리고 수술 후에 나 죽을 거라 걱정하는 거 보니까 옛날처럼 아득바득 이를 갈면서 미워하지는 않게 되고 남편 혼자 두고 가면 어쩌나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 나 수술한 거 보고 더 두려워해서 조금씩 용서가 됐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용서가 됐지.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나 혼자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못가면... 남편

하고도 같이 가고 싶어.(참여자 2)

병원생활하면서 환자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그 죽는 거 보고 죽음에 대해 닥치고 하면은 좀 그런데 어떤 젊은 환자분인데 나이가 스무 살 스무 살인데 우리 아들하고 동갑인데 어떻게 아파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가가지고 운동하다가 운동 도중에 부상당해서 병원 와서 검사했는데 백혈병 걸렸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중에 죽을 때 되니까 그래도 아저씨는 결혼도 해보고 애기도 낳아 보고 술도 먹어 보고 담배도 피워보고 많이 놀았잖아요. 좀 부러워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한 달 있다 죽었는데 그리고 여러 사람 유형을 만났는데 그런 그 친구들 죽음을 보면서 음 과연 그 감정이 북 바치는데...(눈시울) 내가 일 년 가까이 입원했는데 옆에 보호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파도 보호자가 없으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혼자 살면은 그냥 아프면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진짜 아흐 옆에서 보면 너무 안타깝고 와 내가 환자이면서도 내가 같이 몸이 좀 괜찮을 땐 돌봐주고 했는데 너무 너무 안됐더라고요... 죽을 때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그래도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족에 대한 소중함! 자기가 아팠을 때 옆에서 이렇게 위로랄까 돌봐 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분명 외롭지 않다는 거죠.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많이 와 닿았고 사람에게 대한 소중함!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내가 올해 목표가 뭐냐면 ‘활짝 웃자!’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거부감 주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서자가 올해 목표입니다. 올해 15일이지만...(참여자 3)

지금은 남편은 (집) 안에 있고 계난 나는 밖에 나와 있지만 계난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 이 사람 저런 사람 하다못해 아주 가까운 자식한테도 모질게 안해지는 거 같아. 나도 좀 그리하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부정적인 건 없어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도 더 이해하려고 하는 거 같고 그 힘든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착한 거 같아.(참여자 5)

진짜 지나가는 모든 꼬부랑 할머니도 너무 마음에 와 닿고 그전에는 이런 건 하찮게 나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 지금은 모든 사람이 지금은 소중하고 감사!(참여자 6)

아프기 전에 사람들을 다 똑같이 해서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해서 무시하고 음 그 사람들이 마치 게으른 사람인 것처럼 성당에서 일 같은 거 잘 못하는 사람 보면 뭐라고

할까 무능력하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 그렇게 했던 것들이 내가 생각할 때
아 내가 잘못된 생각했다 그런 사람들이 잘 못하면 도와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좀
뛰하면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자세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본다면 크게 달라졌죠. 완전히 많이 바꿨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옛날에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듣고 싶은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경청
은 물론이고...(참여자 7)

아 그니까 나가 원래는 뭐 가정적이라고 나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랬거든. 그런데
나는 가정에 더 충실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음 와이프가 살려줘서 그
래서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음 그 당시에도 크게... 남을 위해서도 작은 거라도... 움직
이지 못할 때 와이프가 다 해줘서... 장애인을 위한 목욕봉사도 그전엔 일이 생겼을 땐
못갈 때도 있었는데 이젠 거의 뭐 자주 가는데 그 아이들을 천사라고 불러요. 아이들을
얼싸안고 즐겁게...(참여자 8)

3) 저는 천주교 신자라는 게 좋은 거 같아!

내가 병을 가졌었으니까 신앙생활이 고맙더라고. 내가 그 천주교신자라는 게... 저는
천주교신자라는 게 좋은 거 같아.(울음) 아파보니까 저한테 그 생활이 어려울 때 평화롭
지가 않아. 몸도 아프지. 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는... 기도도 그때 살려달라고... 기
도하니까 평화가 오는 거 같아. 그래서 감사해. 진짜 의지할 데가 있으니까 그전에는 이
제 진짜 모든 주변 것들이 감사하지 않으면서 살았는데 이젠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야.
사람을 이렇게 바뀌게 해.(웃음) 항상 지금도 느껴져요. 주위에서 불평하고 있으면 아 지
금이 얼마나 좋은데 왜 불평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아 지금 내가
얼마나 좋은 진짜 감사한데 그걸 불평하고 있나!(웃음) 저도 몰랐어요. 지금은 그걸 알아
요.(참여자 6)

어려움이 닥치니까 내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종교! 신앙생활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
을 통해서 다 알게 되지 않았나! 이번에 암 치료도 하느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신 거고
나의 회초리라고 생각하고... 고통을 줄 때 어려움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하죠.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을 주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미사를 보는데 평상시에 신부

님 강론이 너무 지루한 거야. 근데 수술하고 강론을 듣는데 너무 강론을 잘하는 거예요
신부님이...(웃음) 그전에는 몰랐던 거죠. 내 마음에 위로를 해 주셔서... 신자 생활하는
게 감사하고 좋죠.(참여자 7)

범주 9.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죽음을 날마다 눈앞에 환히 두라.’는 성 베네딕도 성인의 금언은 앞으로 올 삶과 지금 현재의 삶 사이에서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에게 늘 구원적 의미를 기억케 하는 말이다(Ladislauss boros, 2004). 사도 바오로는 그의 신관으로부터 죽음의 문제를 정리하였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로마 4, 17)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하느님께서 예수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보았다(Vorgrimier, 1978). 이러한 의미에서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의 옮겨감으로 이해하였다(노은숙에서 재인용, 2009). 사실 시간의 신비를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코앞에 존재하는 위협을 품고 죽음이 틀림없이 어느 날 오리라는 것을 예감하며 깨어 기다린다. 그래서 죽음이 바로 오늘 올 수도 있음을 예감하면서 지나가는 것들에 자유로와짐으로써 죽음의 전망은 초월적 운명을 기억하게 한다. 따라서 이 죽음불안의 경험을 통해서 마음의 정념(情念)을 가라앉혀주며 이탈과 성장이라는 이득이 제공된다(Ladislauss boros, 2004). 도출된 하위범주는 ‘죽음불안 교육이 필요함’, ‘죽음은 삶과 상호보완적’이다.

주제 1. 죽음불안 교육이 필요함

인간의 탄생과 죽음은 모두가 경험해야 할 운명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삶이 짜내는 모든 (인생)관계의 사소함과 불확실함을 보여주지만 죽음은 삶의 의미를 가르쳐 준다. 죽음 생각 그 자체는 능동적인 죽음을 계획하게 하며 가족과 함께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박영민, 2007) 위해 일부 참여자들은 죽음이 더 이상 개인적 사건이 아니므로 신앙공동체가 주축이 되어 남겨진 이들에게 죽음

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죽음준비와 죽음불안 교육을 통해 영적 자유를 누리기를 원했다. 참여자 모두 죽음준비교육은 죽음불안을 낮추며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삶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자살을 막기 위해 필요한 교육(임송자, 2012)이라고 하였다.

1) 언제 갈지 모르니까...

이런 죽음불안 교육도 자꾸 받아두는 것도 좋은 거 닻아. 내세에 대한 삶이란 그런 거를 필요한 거 같기는 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특히나 더 경해야 닻아. 왜냐하면 내세의 삶이라는 것도 입 밖으로 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용감해야 되는데 그 용감함이 안 돼 없어. 성당만 다닐 뿐이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인생이잖아. 솔직히 뭐 나처럼 무슨 서른 몇 살에 교통사고 나그네 경 죽었다 살아났다는 경험을 진짜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 이긴 남의 일이라 자신이 겪어 보지 않아서... 내 일이 아니라 완전히 남의 일이라.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지금은 이제 내가 나이가 70가까이 되니까 이제 나도 좀 얼마 안 되면 이렇게 나보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얼마 멀지 않았구나 생각을 해. 마음부터가 좀 죽음을 준비하고는 있지. 언제 갈지 모르니까.(참여자 5)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평상시에 생활을 잘 해야지. 뭐 죽음준비도 그렇고... 아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50주년 준비를 하면서 전 신자가 유서쓰기 운동을 하면 어떨까 해서... 위령의 달이나 그 죽음에 대한 영상을 보여 줘가지고 유서 항목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신앙적인 것을 쓰라고 해서 예를 들어 유서에 성당에서 장례미사를 하고 싶다고 작성을 하면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게끔 해서 성당에다가 보관을 해 놓고 그 신자가 죽었을 때 신부님하고 연도회에서 그것을 그 유서를 신부님을 통해서 열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면 본당에서 그렇게 해주면 가족들한테도 알려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성도 그렇고 죽음불안 교육도 필요하죠.(참여자 8)

2) 아직... 그러나 반드시 누구나 죽기 때문에...

죽음불안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죽게 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알면은 그 인생을... 예를 들어 남한테 이런 해코

지 하는 거 좀 버리지 않을까 어차피 널모래 죽을 거 어차피 같이 누구나 다 죽을 건데 그것을 해코지 하는 그런 삶은 안 살지 않을까 죽음이라는 걸 그 피해갈 수는 없으니깐 좋다고 봐요. 자살도 그렇고 성당에서도 생명에 대해서 없었으면 (불안) 그게 커졌을 것 같아. 그것 말고도 일반 신자들을 대상으로도 죽음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해요. 왜냐 하면 반드시 누구나 죽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 내가 죽어도 내가 믿는 신이 나한테 좀 도움이 되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거부, 건강한 사람도 내가 죽을까 하는 생각이나 막상 닥치면 안 믿는 사람들도 나름 마음속에는 신을 믿지 않지만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참여자 3)

우리가 그 항상 살 수는 없잖아. 언젠가는 우리가 가잖아. 늘상 살 수는 없잖아. 몸은 죽지만은 영원한 생명은 있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그 신자라기보다는 그런 죽음불안 프로그램은 괜찮을 것 같아. 요즘 장례미사를 참석할 때 진짜 젊은 사람이 먼저 갈 때는 분심이 들어.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참여자 4)

주제 2. 죽음은 삶과 상호보완적

죽음을 거쳐 기다리는 영원한 생명에서 우리의 갈망이 온전히 채워지리라는 희망이 있는데도 죽을지도 모른다면 불안해한다. 이러한 실존적 죽음불안은 부활에 대한 희망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불안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생각하면 그 불안은 상대화된다. 삶의 마지막은 불안이 아니라 하느님께 옹아감이다(Grun Anselm, 2008/2009). 참여자 3은 죽음을 형별로 결합시켜 생각하기보다는 온전한 신뢰 속에서 자비로우신 하느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고통을 연옥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다. 그곳은 하느님 사랑이 순수하지 못한 자신의 모든 것을 정화하고 닫혀 있는 모든 것을 열고, 우리 영혼에 놓인 부서진 파편을 불살라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맡기는 곳이다. 또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도 연옥에 가더라도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는 그리스도에 의해 정화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도록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면서까지 그들과 함께한다는 표현이고 사랑과 연대성의 표지이기 때문이다. 가톨릭 신자들의 마음에 예수의 죽음을 포함한 모든 죽음들은 하느님 섭리의 한 부분이라는 확신(Doka, Morgan, 1993/2006)

과 성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하여 떠나가고 싶은 갈망, 육신을 버리고 본향에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갈망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이기에 죽는 것이 큰 이득이라고 주장한다. 이 언급들은 우리 갈망의 대상인 주님과의 복된 만남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성 베네딕도는 그 갈망이 그리워하는 삶의 목적지에서 거슬러 내려오는 기쁨, 그 목적지를 향하여 사람이 걸어가는 동안 느끼는 기쁨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복된 사람으로 죽음으로부터 일어날 것이며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도 복되게 살아가고 있다(Ladislauss boros, 2004).

1) 이쁘게 죽자!

죽음, 그 어떤 죽음이 어차피 죽을 건데 이왕 죽을 거면 그래도 ‘이쁘게 죽자!’ 쩡그리면서 죽는 거보다는 그래도 내가 죽음에 닥쳤을 때 가족들에게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런 말 한마디 하면서 죽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기도보다는 운동 중에 항상 걸어 다니면서 환자를 위한 묵주기도, 연옥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나도 연옥에 가면 그나마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참여자 3)

2) 아, 죽어도 괜찮겠구나!

그전에 황창연 신부님 죽음 강의, 제가 다른 거 차례차례 보고 들었는데 황신부님 건 안 들었어요. 아직 안 죽을 건데 이걸 좀 안 듣고 싶다 했는데 이제 좀 나아가지고 마음을 먹고 딱 듣는 순간, 아 죽음이라는 자체가 두려운 거라 안 들으려고 했는데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 들려주는 그 얘기 사후세계 얘기하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아, 나 그 죽어도 돼. 지금, 지금까지야 못살았지만 이제 잘 살면 좋은데 그래서 잘 죽지 않을까.’ 하고 그 생각이... 그때 그 신부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죽는 게 그렇게 그리 나쁘지는 않겠구나! 그런 내세에 대한 희망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그니까 그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뭐 알긴 알아도 나는 어디 갈 건지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해 봤어. 그래서 그때 그냥 죽어도 괜찮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웃음) 죽을 때 안 갈려고 아등바등하지 말고 빨리빨리 가라고 지나가니까.(참여자 6)

3) 현 세상은 잠깐… 새로운 삶으로

세상일에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잘 살아서 가면 그니까 잘 살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고… (세상에서 잘 살다가 하늘나라로 새롭게 옮겨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 죽음으로 단절된 것이 아니고 답답하고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참여자 2)

내가 이렇게 음 아프고 보니까 그 지금 현 세상이 잠깐이겠고, 지금 세상도 잘 이리이러하게 잘 살겠지만 지금 뭐 더 좋은 세상에 가도 다시 아프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참여자 6)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죽음준비 대비 안하고 대비할 필요도 없고 죽는다는 것은 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니까 죽기까지 시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 내 마음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먼 길을 떠날 때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마음밖에 없다 그래서 ‘마음을 잘 열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가서든 통할 것 같다 마음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야겠다. 계속 노력하죠.(참여자 7)

범주 10. 나, 하느님의 도구이자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

인간은 본성적으로 종교적 존재로서 초월론적 역사를 통해 자신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이웃(타인)을 향해 자발적으로 뛰어드는 사랑의 행위를 통해 초월해 계시는 하느님이 건네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함의하기 때문이다(김교웅, 2017). 죽음 앞에서 선 한 인간이 존재론적 불안과 고통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무(無)와 마주하게 된다. 나와 절대자 하느님과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가운데 보상과 이해의 논리를 넘어서는 믿음에 기초하여 이전의 낡은 인간관과는 연속성이 없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질적인 변화, 즉 고통을 통해 하느님의 계획을 충만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까닭 없는 믿음의 대변자 읍처럼 참여자들의 그 한계경험들은 자신의 유한성을 지각하게 하였고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자세, 곧 새로운 믿음의 자세로 하느님과 나는 상호 인격적인 다양한 관계라는 새로운

실재(實在)라는 사실에 눈을 떴다. 하느님 사랑 체험으로 확대된 현실은 변화하고 축복은 죽음의 순간에서도 넘쳐흐른다는 것을... 왜냐하면 축복은 잃어버린 것을 곱절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만나고 느끼고 본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에게 일어난 죽음불안 고통은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현시(顯示)였다(Silvio, 2008). 도출된 하위범주로는 ‘나의 참된 정체성을 되찾으며...’, ‘신앙의 눈으로...’이다.

주제 1. 나의 참된 정체성을 되찾으며...

존재의 깊은 내면에서 발견하게 되는 임마누엘 하느님은 온 인류의 인간성 전체를 담을 만큼 넓다. 헨리 나우웬은 자신의 삶을 내어줌과 자신을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해 낮아지고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포기하고 내면적 가치를 추구하는 성령 안에서 자기와의 화해를 이루는 자기비움(kenosis)은 이웃사랑을 실천(오미성, 2003; 정화영, 2006)하는 성화(聖化)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곧 나와 공동체의 연대를 추구하여 세상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종교적 존재로서 신앙을 더 강화시켜준다. 참여자들은 직접 겪어온 죽음불안 고통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나와 같은 난관에 부딪친 타인을 이제는 온전히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하느님과 이웃에게 응답하는 삶, 하느님 앞에서 봉사하며 좋은 본보기로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예수님은 하느님과 당신 자신과의 완전한 일치에 대한 정체성—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요한 15, 9-10) —이 우리도 똑같은 은총에 힘입어 하느님의 활동에 우리가 응답함으로써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 이 정체성의 씨앗은 신적인 의지와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 이미 우리 안에 뿌려졌다. 그래서 이 크나큰 은총을 다시 내어드릴 능력을 갖게 된다(Joel, 2011).

1)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마음이 확대

근데 나 이 보험을 들어나 뒤가지고 나 죽게 되난 몇 억 벌었져. 그때 일억오천 벌었져. 보험도 하느님이 보내주신 거라 (그래서) 받은 거라. ‘아, 하느님께서 주셨구나!’ 해서 남에게 주라고… 남을 쥐도 아깝지 않은 거라. 하느님께 가기 전까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 물질적으로 자선하고 싶어. 물질적으로 있으니까 돈은 써야 된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 나눔으로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나도 뭘 또 많이 베풀어. 나가 누구한테 주면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다 더 큰 거를 준다는 걸 막 어떻게 해줘. 어떻게 더 크게 주셔.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많이 고라전. 이런 걸 하느님께서 주신 거 다행. (참여자 1)

아 나한테도 조금 너그러워진 것 같고 남들한테도 조금 배려가 있다고 그래야 하나 나 스스로 변한 것 같아. 그래도 성당에 다니면서 좋은 것은 제대회 하는 일을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그냥 특별한 기술은 없지만 거기에서 쓸데없는 말을 잘하는데 농담 섞으면서 우스개 소리로 ‘나 없으면 재미없지.’ 하면서도 그냥 분위기를 그냥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해.(웃음)(참여자 4)

내가 겪어왔기 때문에 마음을 알아서… 그전에는 나도 그 누가 주위에 아팠다 하면 아 안됐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순간 기도하게 되고 관심도 좀 더 가지게 되고 마음이 더 가게 되는… 어떤 과정을 거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해 주고… 그전에는 그냥 건강한 사람이 아프면 그렇게 절실하게 와 닿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든 과정을 아니까.(참여자 6)

교회 활동을 통해서 암 때문에 두렵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뭐 내일 죽을지 또 알 수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연도를 해 줘도 살아 있는 동안에 챙겨주는 것이 낫다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 내가 받았던 거니까 그걸 다시 돌려주는 게 맞다고 봐요. 내가 작게 만든 수첩이나 목상집을 만들어서 그런 암에 걸린 분에게 전달도 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싶고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참여자 7)

지금 직장에 나가는데 그 핑계로 여러 가지 뜻대로 하지 못하는데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거지. 그러면 ○○○○야, 너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 이런저런 하

느님 사업을 했습니다. 직접 가서 나중에 하느님께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런 거 봉사하는 거. 하느님 사업에 관한 봉사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 예비신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거죠. 이렇게 교리봉사를 통해서 하느님 사업의 도구로 지금 하고 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웃음)(참여자 8)

2) 좋은 본보기가 되자!

내가 암 환자여서 가만히 집에만 있지 않고 그 성당에 와서 기도하고 음 오후에 그 시간에 성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매가 있어. 그 자매가 날 보면 대단한 신심을 가진 걸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내가 신심이 크지 않아도 아마 내가 죽으면 기도하는 걸로 나를 기억하지 않을까.(참여자 2)

같이 웃어 주고, 같이 아파해 주고, 같이 놀아주고, 즐겁게 해주면 그래도 그게 어쨌든 같이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 추억이 있는 거니까 사람관계에도 친구 간에 가족일 수 있고 성당에서도 가족일 수 있고 그런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참여자 3)

나 스스로가 정말 그 욕심보다는 비워가는 거를 배웠어. 그 나의 사소한 욕심 같은 거. 그래서 쉽게 말해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누구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씩 조금씩 비워가면서 또 온다면 아무래도 믿는 마음이 있어서 빨리빨리 처리하면서 그래서 나 스스로가 많이 성장이 된 거 같아 알게 모르게... 그래서 내가 남들한테도 얘기할 때 웃으면서 ‘아, 비워가면서 사는 게 최고!’라고 웃으면서 우리끼리 그런 말도 해. 만약에 내가 아프지 않고 나 잘난 척만 하고 살았으면 그런 생각을 못하지 않았을까 아마 비우라는 이런 말도 못했을 거 같아. 실천은 잘 안 될 때가 많지만 아 그래도 조금 더 반성하면서 하지.(참여자 4)

암에 걸렸더라도 이렇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본보기가 되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당에 가서 성당에 들어와서 사람들 교우들이 많이 있는데 기침이 계속 나오잖아요. 기침을 안 하려고 맘을 먹었는데 힘들었고 그래도 계속 미사에 참여하면서 다른 신자들이 나한테 뭐 아프다더니 미사에도 잘 나오고 저기 잘 견디는구나! 암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아프다고 하지 말고 잘 견디는 이런 모습을 신자들에게...(참여자 7)

주제 2. 신앙의 눈으로...

인간은 신앙을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인식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 「살아있는 사랑의 불꽃」에서 십자가의 성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파스카의 신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변모와 새 생명에 대한 언급은, 인간 내면의 행위는 신앙이라는 눈을 통해 하느님을 바라보게 해주고 이런 바라봄은 하느님과 더욱 깊은 친밀감으로 이끈다(최준석, 2011; Joel, 2011). 인간의 감각과 지성을 넘어서 ‘신앙으로’ 하느님과 일치하고픈 원의가 더욱 증가할수록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내어 드림과 동시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웃에게도 자기증여의 선물을 한다. 참여자들은 하느님을 믿는 가치를 더 우선시하면서 더 이상 자신의 안위보다는 하느님께 무상으로 받은 것 그 이상으로 이웃에게 아낌 없이 내어주려는 마음이 증가하였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라는 아가서의 말씀처럼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불안)을 하느님의 불꽃인 사랑으로 태워 없애며(안소근, 2018)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영성체험 가운데 하나인 참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고백하였다. 오로지 참여자들의 믿음과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느님을 모방하는 그만큼일 따름이다. 한 존재의 죽음사건으로 말미암은 죽음불안의 탓이 축복으로, 이 축복은 원복(原福)으로 모두를 위한 기쁨과 축복으로 변모시킨다(Matthew Fox, 1983/2001).

1) 즐겁게,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을 때까지...

나 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생활이 여유가 되면서 이거 진짜 그런 불쌍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 어 그냥 매월 그 20만원 이상 여기저기 도와줘게. 돈은 써야 된다고 생각해. 그냥 나 그 다른 데도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엠네스키 등에도 티비에서 불쌍한 사람들 보면 막 마음이 아파게. 머리에 자꾸 기억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게 되게. 교회에 내는 봉헌금 돈 말고도 돈이 아깝지 않고 내가 보태줄 수 있어서 감사하지. 빈첸시오도 봉사하고 하루가 바빠.(참여자 1)

우리 시부모님이 옛날 어려운 시절에 자신들이 안 쓰고 물려준 덕분에 그래서 넉넉하게 지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다 하느님 덕분이지. 월 만원하던 것이 이제는 2만원 3만원으로 불어나도 계속 하게 되고... 월 10만원은 보내고 중국 다음에 페루, 몽골, 아프리카 있잖아. 그 아 부르키나파소에도 보내고, 우리나라는 경기도 성남 안나의 집, 이시돌 복지병원, 목포에 있는 고아원, 청각장애자, 소년후원회, 서귀포에 있는 요셉에도 보내. 그런 마음으로 하느님께 인색하지 말자! 하느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하느님께 인색해 하지 말자 이거지.(참여자 2)

지금은 이제는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고 어차피 가는 거 즐겁게 음 즐겁게 하자! 가능하면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 즐겁게 하자 늘어놓은 건 많고 다 하진 못하지만 억지로 하는 것 보다는 그냥 주어진 것 즐겁게, 할 수 있는 만큼 항상 그래.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없어. 하느님 뻘! 나 그 뻘 믿고 하는 거 걱정 없이... 내가 봐도 그런 거 같아. 무슨 일을 하면 어 이거 할 수 있을까 해서 시작은 하지만 나 스스로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 옆에서 도와주고 또 같이 하고 음 그러면서 변화가 오고 나 특별한 달란트는 진짜 없어. 근데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달란트가 없으니까 내가 꽃꽂이 이런 건 진짜 안 배웠지만 그니까 제대회 할 적에는 진짜 청소하고 뭐 뒤치다꺼리하고 꽃꽂이 할 때 도와주고 뭐 하긴 하는데 근데 나는 그게 좋아. 음 진짜 봉사하는 것도 솔직히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좋으니까.(웃음) 이젠 시켜주시면 뭐 많은 일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런 다듬어가는 내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하려고... 이게 너무 편해. 이건 내가 생각해도 변한 것 같아.(참여자 4)

뭐 성당 짓는다 저번에도 어디 중국 선교사들 와그네 그때도 좀 하고 하여튼 성당 짓는다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기부는 오늘부터... 천주교에서 하는데 만큼은 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그걸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 몽골선교후원 정기후원을 오늘부터 하느님한테 그 우리 하늘나라 보화 쌓는 거잖아. 우리 살아 생전에 재물도 중요하겠지만 하늘나라 보물 쌓아 놔야만 그래도 조금 보태주실 거 아니.(웃음) 조금이라도 더 후원하려고 진짜 노력하지.(참여자 5)

주변에 어려운 사람 제가 돈은 많지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내가 현재 (기부)할 때 뭐 그 모금 운동하는 거 일단 일시불로 내가 하고 싶어 가지고 어느 날 주님한테 '기부하겠

다.’ 해가지고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끝나면 어려운 데 제가 도와준다고 기도했거든요.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한 군데 했어요. 한 군데 하고 일시불로 두 군데 하고 이제 월하는 데 한 군데 추가하고 그게 제가 거기에 꽂혔어요. ‘자선을 베풀라!’ 하는데… 넉넉하지는 않지만 가진 것 중에서 베풀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늘나라 보화를 쌓고 있네요) 그러려고요.(웃음)(참여자 6)

조금씩 많이는 못하고 서귀포 성요셉 요양원에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친척 멀리 있는 어려운 친척들에게도 용돈도 보내주고, ○○성당 왔다 가신 수녀님들 활동하실 때 필요하시면 보내주고 이번에 몽골선교후원도 ○○○○하고 얘기하면서 애들 이름으로 하나씩 해주자고 (왜 애들 이름으로 기부를 하시는지요?) 이런 거하면서 돈은 우리가 내지만 애들도 알아야 하니까 애들이 우리를 안 따른다고 했었는데 어릴 때부터 무슨 말을 하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다 듣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았던 것들을 많이 배웠더라고요. 큰아들이 직장 다니면서 8천만원 정도 모아두고 애들이 흥청망청하게 살지 않고 검소하게 살게 해주는 거죠. 이제는 우리 애들이 제일 존중하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제가 좀 잘 살았죠.(웃음)(참여자 7)

2)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나!

요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다윗이 목장 치면서 (사울왕 밑에) 와서 일했잖아. 바깥에서 목장치기였는데 어쩔 나가 보잘 것 없는 나를 그런 거 같애. 나를 그렇게 하신 거 닮아. 보잘 것 없는 사람을… 우리 어릴 때 촌에서 막 어려웠잖아. 우리는 학교 다닐 입장이 아니었는데 어쩔어쩔 해줘가지고 나가 공무원까지 하게 해주시고 어쩔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 하느님께서 나를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셨구나! 내가 진짜 하찮은 존재인데 하느님께서 진짜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에 너무 감사한 거라. 진짜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하다는 느낌이 막 들어.(울음)(참여자 1)

내가 일반인이 아니고 신앙인이니까 하나라도 더 희생하며 하는 게… 기도는 기본이고 계단 기도는 기본이고 화살기도도 하다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감사의 기도도 하게 되고, 작은 일에 감사하게 되고, 그 외에 그냥 성당만 왔다 갔다 하면 신부님 말따나 그냥 발바닥 신자지 손바닥 신자지. 그런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 허다 못해 식구들에게라도 욱 한마디 할 때 안해지고 또 남편한테도 남편 아프니까 할 때마다 짜증이 많

이 나잖아. 아이고, 이걸 아니다 하나라도 마음 써가면서 하는 거.(참여자 5)

기도 중에 얘기하기는 했는데 내가 몸이 이 상태로만 쪽 가게 아프면 안 되고 열심히 봉사는 하겠다고 봉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제가 음 내 식구들한테도... 식구들한테는 내가 느낀 게 봉사를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 내가 그걸 하다보니까 외부적으로만 하는 봉사만 봉사라고 생각만 했던 거 같아요. 이제야 느꼈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신부님 말씀 중에 느꼈어. 뭐 주위에 있는 것도 잘 못하는데 집에서는 어떻게 봉사하겠다고... 그걸 느꼈어요. 식구들한테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든 잘 해야지 식구들, 밖에서도 봉사 열심히 시켜만 주시면 작은 거에 감사하며...(웃음)(참여자 6)

암에 걸렸으니까 아무래도 몸도 아파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할 거고 그럴 거면 뭐하려고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당도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와야지 신자도 주인인데 내 집이다 하고 생각하니까 작은 일이어도 화분에 물도 주면서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지는 거 같아요. 아플 땐 시간이 안 가더니 점점 더 시간이 빨리 가고 있어요. 하루 24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빨라지고 좋아지는 거 같아요.(참여자 7)

음 그러니까 나 자신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답게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성호경을 하면서도 나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어쩔 때는 쑥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호경을 할 때 그리스도신자답게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이게 작은 행동이지만 성호경을 긋고 다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전부를 드러내는 거니까 신앙인답게 실천하고 하느님이나 이웃이 저를 부르면 '예, ○○○○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해야 되고...(참여자 8)

V. 논의

본 연구의 질문은 가톨릭신자들의 죽음불안 경험은 어떠한가? 이며 가톨릭신자들의 죽음불안 경험의 맥락적 본질 탐색을 목적으로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표본추출-의도적 표집 전략으로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경험을 한 가톨릭신자 참여자로만 제한하였으며, 눈덩이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참여자들을 늘려나갔다.

그리고 2017년 7월에 예비면담을 실시하여 연구자가 사전질문지를 만들고 보완해 나가면서 형식적인 명제 확보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올바르게 반영키 위한 상호검증의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동의한 8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 중순까지 2~3회에 걸쳐서 수행하였으며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주제인 가톨릭신자들의 죽음불안 경험에 관한 본질 탐색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현상을 내부자(emic) 관점뿐만 아니라 외부자(etic) 관점에서 이해하며 통합하려고 시도하였다. 참여자들의 경험에 관한 보편적 본질의 탐색에 적합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선택하였으며, Colaizzi(1978)의 자료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그들의 공통된 죽음불안 경험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죽음불안’이라는 복합적인 현상을 의미 있게 도출해 내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에 따른 지식과 철학적 사유는 물론 통찰 및 성찰능력을 발휘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죽음불안 경험에 깊이 관여하여 죽음불안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하였다.

전체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진술로 구성된 53개의 의미형성과 21개의 하위범주(주제) 그리고 10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도출된 10개의 범주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불안들과 대면’, ‘세상일과 나 자신에 올 인(all in)하며...’, ‘죽음의 망각에서 인지(認知)로의 탈바꿈’, ‘새 인간의 형상으로 변모’, ‘나, 타인, 그리고 하느님은 하나’, ‘종교적 삶: 감사와 위로의 시간’, ‘죽음에 대한 자기 개방성의 확

대’, ‘고통은 나를 성장시키는 디딤돌’,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나, 하느님의 도구이자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 질문인 가톨릭신자들이 경험하는 죽음불안 현상은 어떠한가를 통해 맥락적 본질을 이해하고 재구성하여 결과에 대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1. 결과에 대한 논의

오늘은 나, 내일은 너(Hodie mihi, cras tibi)! 인간은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리 섬뜩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의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려고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죽음직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자신들의 경험(김성봉, 오옥선, 김선미, 2011)을 심층면담을 통하여 이야기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죽음사건은 전 존재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였다. 자신들의 존재의 사라짐(Greenberg, Pyszczynski, Solomon, Simon, & Breus, 1994)을 예고하는 질병이나 사고는 명백한 죽음불안을 일으키는 경험(Yalom, 1980/2007)을 하였다. 참여자들은 죽음직면의 진행 과정에서 죽음을 인식할 때 느끼는 두려움과 사후결과에 대한 불안(정운경, 2015)까지도 생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은영(2005)의 연구에서와 같이 죽음불안은 죽음이라는 사건과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 인간이 보이는 공포, 혐오감, 과멸감, 거부, 부정 등의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심리적 과정이다(신은영, 2005).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이 죽음을 직면한 상황에서 죽음불안이 계속 증폭되어 이어지기보다는 일시적이었다. 하지만 진단결과 전이나 수술받기 직전, 고통이 심했을 경우에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높게 나타난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Thorson과 Powell(1990)은 죽어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통증이나 불편감이 클수록 종교성과 상관없이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가 더 큰 편(Thorson & Powell, 1990)이라고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이로 인한 사고의 혼란뿐만 아니라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이 교차하는 와중에 존재론적인

갈등과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연령이 중장년층이었는데 그들은 자신의 죽음이 자녀나 배우자 등의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경향이 높았다(윤가현, 오미성, 권혜란, 2007). 특히 치료기간 중 통제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이 오래 지속되거나 심했을 경우에는 회복이 되었다더라도 재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시 불안이 엄습하였다. 이는 자신의 신체나 생활에 대한 조절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실망하여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검사, 치료 등을 겪게 되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김복순, 2007). 또한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도 재발에 대한 두려움과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는 신체 변화에 대한 염려 등의 불안을 경험한다는 말이다(김종남, 김종훈, 박은영, 유은승, 이명선, 2010).

이와 더불어 연구참여자들은 최소한의 의무감이나 나름대로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선시하다가 맞이한 죽음직면은 잃어버린 자신의 본질과 비인간적인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다. 더욱이 자신,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삶의 무의미함에 짓눌리다보니 신앙에 대한 정체성이 희박해졌음을 감지하였다.

둘째, 죽음을 망각한 채 살아왔던 연구참여자들은 이 죽음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나 거리가 먼 것처럼 회피하며 나중에 올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죽음사실의 부재를 확인하였다. Morin(2000)은 현대의 죽음의 세속적 신화(불멸성)에서 죽음은 철저하게 개인화되고 부정과 기피, 나아가 망각과 억압으로 인해 이성이 죽음에 마주하여 무능을 드러냈다고 보고하였다(Morin, 2000). 죽음이야말로 절대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각자의 실존에 가장 깊이 연관된 일회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체를 가늠하거나 대비할 수 없고 존재의 부재 뒤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지 불투명하기에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죽음망각 인식은 자기 자신의 소멸에 대한 무의식적 거부와, 죽음은 '언젠가'라는 식으로 얼버무리지고 다른 급한 일들의 중요성을 핑계 삼아 자신들과 먼 이야기라며 회피(이선아, 2013)한다.

그러나 Noyes의 연구에서 자신의 죽음을 직면한 사람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의 획기적인 변화(Yalom, 1980/2007)를 분명히 나타낸다. 참여자들 개인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자신의 자아(self)가 점진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경험을 하였다. 즉 죽음불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 존재가 가진 근본적인 불안임을 깨닫는다. 이로 인해서 존재의 성장을 올바르게 식별하기 위하여 Thomas Merton이 말한 대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성취(이해운, 2012)하도록 우선 내면에서 회심의 불, 그러니까 내적정화(감각적 정화 포함)가 서서히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셋째, 예고 없이 달려든 질병과 사고는 연구참여자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다. 현실적인 고통의 직면 한가운데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가족구성원, 타인, 그리고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면서 점차적으로 치유를 받게 되는 경험을 한다. 또한 공동체의 헌신적인 연민과 자비의 기도로 참여자 자신들의 내면의 영성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어 타자(他者)들을 위한 기도로 확장, 심화되어 가고 있었다. 한 사람의 성화(聖化)는 그 개인의 영성적 안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화와 맞물려 있다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복된 고백을 통해 참여자들도 더 많은 사람들과 사랑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한편으로는 긴급한 위기의 순간에 연구참여자들은 유한과 무한을 넘나들며 실존적 한계를 경험한다. 그동안 세속화된 본성적 감각이 우위에 있었는데 한계체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다시금 인간정신의 본래적인 특성, 즉 종교적 인간으로 회귀하여 절대자 하느님을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가톨릭교회의 신비적 성사인 미사(mysterion, 성찬례), 성경말씀, 묵상생활에 더 깊이 관여하여 전 존재론적으로 마음을 열고 성장하려는 원의가 컸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묵상은 십자가의 성 요한이 설명한대로 이 기도를 꾸준히 실천하면 본성적이고 세속적이며 일시적인 유치한 상상들과 형상들을 감각에서 비워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최준석, 2011)고 했다. 참여자들의 죽음직면 경험은 하느님께서 자신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 부활의 전초로서 내세의 희망을 싹트게 하는 발로(發露)가 된다.

넷째,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극적인 위협을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은 죽음의 불가피성과 삶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 체험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여기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자극(김정현, 2012; Yalom, 1980/2007)하였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인해 참여자들도 예상치 못한 자아(self)의 변형이 일어났을까? 이러한 ‘자아의 변형’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며 절대자 하

느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새롭게 변화되어진 자아(이창진, 2012)이다. 즉 자기를 버리고 타인과 하느님을 수용하는 자기 개방으로 말미암아 유일회적인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로 좀 더 하느님과 자신, 그리고 타인과 조화가 이루어진 평형의 상태가 된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 안에서 참된 자기의 회복으로서 그리스도교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느님의 모상(Imago Dei)의 회복(Marshall, 1991)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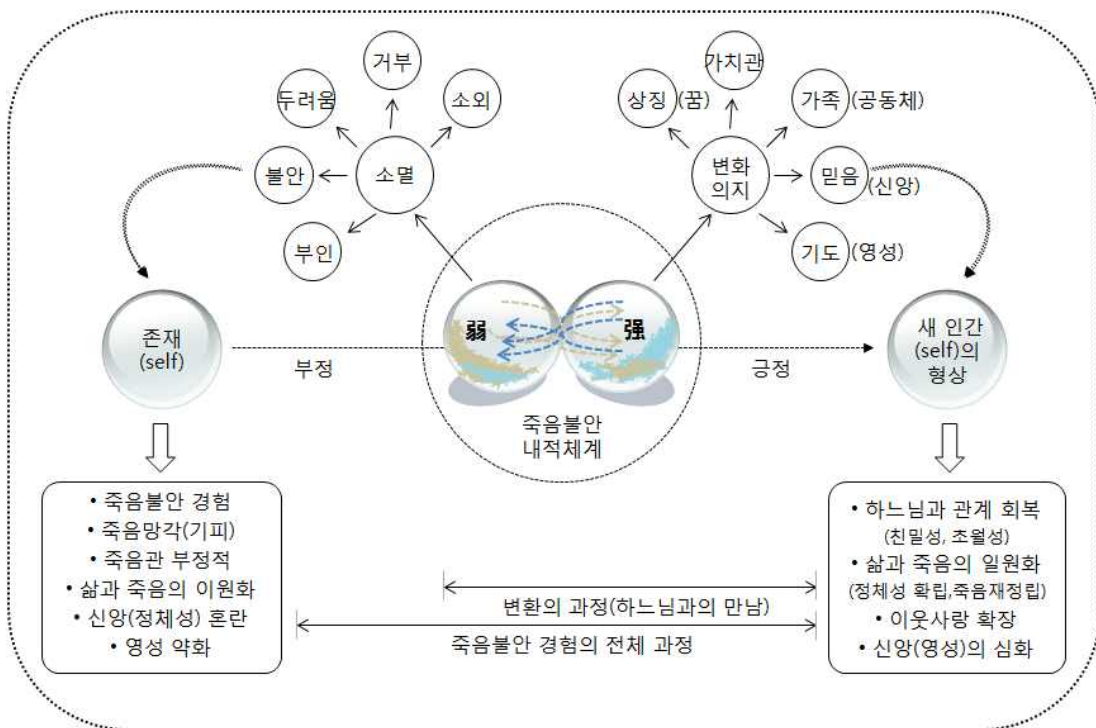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죽음직면으로 말미암은 죽음불안 사건은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죽음사건 초래로 신앙(삶)에 대한 공허와 무의미함을 느낀 반면에 종교에서 삶의 가치와 이상을 발견하려는 내적 움직임을 보였다. 종교적 믿음과 신념을 통해 외롭고 어려울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며 자신들에 대한 상실감을 줄여주고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였다(이필선, 2006). 종교성이 내면화된, 즉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의 정체감이 내재적 종교정향(고종향, 2015)으로 변화되어 이를 충실히 실현하면서 생활화하려고 노력한다.

Allport(1960)는 외재적 종교정향을 가진 사람은 자기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교를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고 안정감과 위로, 사고와 친목, 지위와 자기합리화 등에서 종교의 유용성을 발견하는 반면 내재적 종교정향을 가진 신앙인은 종교에서 삶의 중심적인 동기를 발견하고 자기가 신봉하는 교의를 내면화시킨다고 언급하였다(류성훈, 2003; Allport, 1960). 연구참여자들은 질병과 사고를 통하여 자신의 참 모습인 내재적 종교정향을 지닌 신앙인으로 자신들의 신원(존재목적)을 발견하여 실현시켜 나가려는 삶의 전환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참여자들은 신앙의 재발견 안에서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의 옮겨감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면서 죽음교육이 가톨릭교회 내에 필요함을 인지함으로써 죽음은 더 이상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공동체가 주축이 되어 타자(他者)들과 함께 영적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였다.

다섯 번째, 이 연구에서 죽음불안이라는 현상학적 연구 결과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체험을 찾을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들을 종합하면 ‘죽음망각과 마주함으로서 인식의 변화’, ‘죽음불안과의 대면은 회심의 여정이자 정체성 회복(확립)’, ‘신앙(삶)의 대전환으로 나-타인-하느님과의 관계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로 정리된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긴박했던 죽음 사건은 하느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사랑의 회초리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 회초리로 말미암아 참여자들이 종교적 인간으로 더 변모하는, 무엇보다 어제보다 오늘도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에 기뻐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러므로 참여자들의 죽음불안 경험 주제들을 관통하는 본질적인 핵심 체험은 '새 인간의 형상으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나'로 대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을 모두 종합 정리하여 최종적인 '죽음불안 경험 모델'을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죽음불안 경험 모델

이 구조적 모델 안에 죽음불안의 본질을 담고 있으며 긍정적 효과에 도달하기까지의 죽음불안 경험의 전체 과정을 시각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죽음불안 체험자는 인간 존재의 보편적 특성인 죽음불안의 부정적인 영향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일원화, 즉 절대자 하느님과의 만남(관계 회복)으로 '새 인간

(self)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죽음불안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변환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특징이 존재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 등이며, 절대자 하느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의지가 일어난다. 이것은 내면 안에서 약함(부정)과 강함(긍정)의 상호연결이 긴밀히 이루어져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죽음불안을 체험하게 되면 죽음불안 내적체계는 먼저 두려움, 불안, 부인, 소외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또한 체험자들이 이전에 지녔던 생활양식들, 즉 믿음, 기도, 가족, 가치관, 상징 등이 더 깊은 수준으로 작동하여 내면에 긍정적 인식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모든 양상들은 죽음불안 체험자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느껴지고 인식되는 체험이다. 그러므로 한 인간의 예고 없는 죽음불안 경험은, 존재의 본성(本性)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과정이자 그전과는 다른 존재, 즉 하느님 안에서의 강한 변화의지를 통해 온전한 자기(self)로 변환되어가고자 하는 내적 체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손쉽게 체험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그 자신의 주변 바깥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불안을 언어로 설명하거나 정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삶의 많은 부분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기분이다. 죽음불안 체험자들은 내·외적, 의식·무의식적인 심리적 기분에 빠지는 심리-생리적 반응보다는 존재의 경계선상의 경험에 따른 인간 실재로서 그 자신과의 본질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선다. 자신의 죽음에 직면하는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 죽음불안 내적체계는 존재 전체를 지배하며 두루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것은 존재자가 삶의 경계선 밖으로 밀려날 때 특히 종교적 인간은 신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부정과 긍정의 세계를 더 밀접하게 받아들이고 형상화하여 그 자신에게 넘겨주는 근본기분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드러난 죽음불안은, 분명히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의 근본기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정향진화(正向進化, orthogenesis)해온 인간 존재가 지닌 고유한 현상으로서의 보편성을 띄는 것으로 사료된다.

2. 결론

본 연구에서 드러난 가톨릭신자들의 죽음불안 경험은 어떠한가에 관한 통합적인 탐색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가톨릭신자들의 고유한 경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죽음불안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체계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첫째, 가톨릭신자들이 죽음 직면 시 예측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봉착하였을 때 한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죽음에 대한 불안은 종교성과 상관없이 심리적 반응 표출, 그리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신적 혼란감이 나타났다. 죽음불안을 유발하는 첫 번째 동인인 죽음,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비단 종교적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생과 사를 오가는 극적인 사건 앞에서 인간이 보이는 공포와 부정 등의 부정적인 감정은 존재의 근본기분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인간 존재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죽음불안의 보편적 특성은 가톨릭신자이더라도 죽음직면을 당했을 때 죽음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일어나는 현상은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심층에서 일어나는 죽음의 본성적 불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는 실제로 죽음직면 시 밀도 끝도 없는 불안감을 유발시켜 심리내적인 문제, 즉 정서적·인지적·행동적 영역에 황폐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죽음불안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죽음불안으로부터 심리적 위축, 막연한 불안, 나아가 자기소외에서 해방되기 위해 그 자신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의 죽음불안 두려움의 내적현상을 체득할 수 있는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둘째, 참여자들은 이러한 존재의 사라짐을 예고하는 죽음 직면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죽음관이 부정적이고 두려운, 즉 죽음을 삶의 일부로 수용하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망각한 채 살아왔음을 인식하였다. 삶과 죽음의 두 영역 모두를 이원론적으로 격리한 탈인격화의 비극은, 인간 자신의 삶에 대한 보편적인 죽음을 실존적으로 심각한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여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죽음과 관련된 생각들, 즉 죽음의 필연성과 일상생활에서 그 자신이 직접 체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가를 잘 모르기도 하고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대 의학의 발전과 개인화된 의료 데이터로 유용한 건강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의료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인식(자각)은 점점 더 나와 상관없는 단지 ‘아직 아니’라고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한다. 삶과 죽음을 둘로 철저히 쪼개어 버리려는 모든 행위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리내적 영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의 불가피성에 대한 부재와 금기(taboo)로 분명 인위적인 삶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 그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존(존재)에 대한 참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이 죽음직면 시 죽음불안을 경험했던 실제 연령이 대부분 40~50대였다. 이 시기에는 가정·직장·사회에서 바쁘게 활동하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거나 생존경쟁과 물질적 이익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므로 갑자기 들이닥친 실존적인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방교육 지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죽음불안에 대한 재정립의 근간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실존주의 심리치료(상담)과 영성상담이 병행되어 일상생활에서의 죽음 이해와 한계 상황들, 즉 죽음직면과 죽음자각, 극심한 질병과 사고와 같은 경험에 대한 올바른 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영성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가톨릭신자들의 삶과 신앙은 한 배다. 그들은 삶 속에서 자신, 타인, 자연 그리고 절대자 하느님과의 관계성(connectedness)의 측면들이 현상적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관계성의 성숙은 자신과 이웃,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믿음, 가치, 생활양식 등을 형성하여 대인관계를 통한 사랑과 용서, 믿음의 기본이 되는 실존적 영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셋째, 참여자들의 죽음 직면 사건은 자신들의 내면 안의 온갖 장애물과 한계를 대면하면서 현 시대의 물화(物化)에 매몰된 삶의 생활양식, 죽음문화에 습득되다 보니 기복신앙에 빠져 ‘나’와 ‘내 주변 사람’에만 집착하는 신앙행태를 보여주었다. 또한 죽음이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직면하게 되는 죽음불안은 근본적인 기분 불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여자들은 이에 따른 느낌이나 사고를 억누르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빨리 자신의 고통을 영성화시키려는 영적합리화,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고통 이후에 실존적 고통과 소외감으로 영적인 결핍을 드러냈다. 이 연구는 죽음을 직면한 가톨릭신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인간의 보편적 특성인 죽음불안 경험을 밝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사건의 한계체험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기보다는 하느님의 뜻으로 서둘러 영성화시키려는 영적합리

화와 실존적 외로움과 소외로 영적인 결핍까지 겪으면서 신앙인이란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자신만의 절대 진리의 오류에 빠지기도 한다. 따라서 자기 안에 있는 고통스런 상황이나 심리내적인 부분을 대면하기보다는 외면하게 만듦으로써 자신과의 단절뿐만 아니라 하느님과의 단절에까지 이르게 되므로 이러한 잘못된 신앙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톨릭교회의 각 교구별로 정기적인 신자 재교육(영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서 적절한 신자 재교육을 통해 가톨릭신자들이 하느님 모상대로 창조되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그것을 초월하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전인적 차원의 영성, 즉 인간의 구성요소인 육체·정신·영혼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뤄 개인의 내적 무질서함을 바로잡아 주는 통합적 영성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이러한 죽음사건을 통한 죽음불안이라는 부정적인 경험은 오히려 참여자들에게 삶(신앙)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짐과 동시에 가족, 타인, 공동체와의 유대감과 친밀감, 그리고 도움과 감사, ‘우리’라는 정체성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또한 참여자들의 죽음에 대한 자각은 삶의 의미성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절대자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즉 그 자신으로 변모되어 나가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삶은 리허설이 아니라고 말한 Yalom의 말처럼 단 한번뿐인 삶, 즉 생(生)의 의미를 찾고 이 안에서 일상의 행복을 발견하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나도 언젠가는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인생만큼이나 소중한 보물이지만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간에 구분 없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실존적인 상황을 선택적으로, 즉 간접체험을 통해 죽음에 대한 실존적 자각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간접체험을 접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죽음불안 자각을 높일 수 있는 도구들이 있겠으나 연구자는 죽음 직면 사건으로 죽음불안을 경험한 사람과 함께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공유하는 소그룹 나눔을 제안하고자 한다. 타인의 죽음사건이 그 자신의 죽음을 상기시키는 가운데 죽음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상상하도록 유도하면서 죽음에 대한 성찰 또는 묵상으로 연결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죽음을 자각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죽음과 대면한 사람의 극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접하면서 자신도 좀 더 실존적 자각의 기회를 갖게 되며 삶의 우

선순위를 재평가하는 긍정적인 경험으로 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이 연구의 최종적인 단계에서 죽음불안의 핵심 체험으로 도출된, 즉 하느님의 도우심(자비)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새 인간의 형상으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나’는 그전과는 또 다른 삶과 죽음의 깊이를 인식해 나가면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변형된 자기(self)를 만나게 된다. 이러한 핵심 체험은 가톨릭신자로서 죽음직면 사건 시 죽음불안을 통해 얻게 된 소중한 보물, 즉 나는 신앙인으로서 하느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려는 종말론적인 감각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이 이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 누군가와 함께 실존하며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3. 연구의 의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가톨릭신자들의 죽음불안 경험에 대한 개인적인 속성보다는 전체 연구참여자들의 공통된 의미와 본질을 통합적으로 탐색하였다. 이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죽음이나 죽음불안에 대한 연구는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가 많았으나 가톨릭신자들만으로 구성된 질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현상학적 방법을 차용하여 죽음불안을 경험한 가톨릭신자들의 총체적인 삶의 조건과 맥락 전반을 실제적으로 다루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둘째, 가톨릭신자로서 그들이 경험한 죽음 불안의 부정적인 요소들은 존재론적 갈등 사이에 있는 한 인간에게 막강한 영향을 끼쳤다. 죽음의 부정성(否定性)에 더 이상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진정한 자기(self)가 태어나는 죽음사건이었다. 세속적인 현실에서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죽음 자각’은 변화의 촉매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죽음에 감추어진 선물을 발견하였다. 곧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새로운 삶의 기회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랑으로 통교하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죽음과 실존적인 대면으로 더 성숙해졌고 더 현명해졌다. 내면화된 종교적 인간으로서 변모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죽음불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신앙인들에게 죽음사건을 통하여 실존적

삶이 무엇이며 믿는 가운데 죽음불안을 맞이한 가톨릭신자들의 영적 본래성(authenticity, 本來性)을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가톨릭교회 내에 죽음준비와 죽음불안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voice)로 이야기하였다. 생과 사를 오가는 극적인 실존체험 없이는 자기 통합화의 담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므로 실질적인 차원에서 실존주의 심리치료와 영성상담을 접목한 죽음불안 교육의 필요성을 부여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톨릭신자들의 죽음불안 경험은 비록 부정성을 띤 경험이었으나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체험을 통한 신앙의 대전환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가 지닌 범위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본 현상학 연구 주제의 대상으로 적용될 연구참여자들이 죽음불안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추출-의도적 표집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가톨릭신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제주도 지역의 거주자들로서 경제 수준은 비교적 중산층 대상들이었다. 그런 면에서 제주도 이외 지역과 하류 계층에 속한 대상자들은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충분한 이론적 포화를 위해 종교적, 지역적, 사회·문화적 다양성에는 현실적으로 제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교,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다양한 참여자들을 포함시킴으로서 복합적인 죽음불안의 속성에 관한 보편적 본질의 탐색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인구학적인 변인을 더 고려하면서 종교가 다른 신자들과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죽음불안 경험에 관한 비교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 죽음사건으로 말미암은 죽음불안은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원가족, 배우자, 자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른 실제적인 후속 연구가 나오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강선보 (2003). 실존주의 철학에서 본 죽음과 교육.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 19, 1-23.
- 강영선 (2008). 노년의 죽음불안과 죽음준비교육에 관한 목회상담적 연구. 경기, 한국: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용수 (2015). 실존주의 철학과 철학상담: 알룸의 철학적 치유를 중심으로. **대한철학회**, 135, 1-30.
- 강지인, 김종훈 (2010). 암환자의 불안과 약물치료: 근거중심적 고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9(1), 11-19.
- 강철희, 김미옥 (2003).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분석과 고찰. **한국사회복지학회**, 55, 55-81.
- 고종향 (2015). 자아통합과 내재적 종교정향이 노인의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기, 한국: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공병혜 (2014). 불안에 대한 철학적 접근과 현대사회의 소외. **한국의철학회**, 17, 63-86.
- 김경자 (1993). 종교참여에 따른 노인의 죽음불안 연구. 서울, 한국: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교빈 (2006). 죽음에 대한 유교의 이해. **철학연구회**, 75, 1-19.
- 김교웅 (2017). 칼 라너의 종교철학: 역사 안에서 “말씀의 청자(聽者)”로서 초월론적 인간. 대전, 한국: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구자륜 (2011). 위로부터의 영성과 아래로부터의 영성에 관한 영성신학적 고찰. 대구, 한국: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구인회 (2003). 뇌사 찬반론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이론학회**, (24), 53-79.
- 구인회, 임종식 (2003). 삶과 죽음의 철학: 생명윤리의 핵심 쟁점에 대한 철학적 해부. 서울: 아카넷.
- 구인회 (2012). 사랑과 죽음의 체험 의미.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2), 55-69.
- 김균진 (2001). 현대사회와 죽음의 배제 1.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29, 175-201.

- 김균진 (2002). 현대사회와 죽음의 배제 2.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30, 113-139.
- 김귀룡 (2017). 죽음 망각의 역사로서의 고대철학사. **한국서양고전학회**, 56(2), 57-78.
- 김귀분, 최연주 (2014). 노인의 사회적 요인(노인차별경험, 가족지지) 및 심리 정서적 요인(고독, 무력감)과 죽음불안 관계. **한국성인간호학회**, 26(5), 584-591.
- 김대동 (2005). **실존주의 상담에서의 죽음의 의미와 상담교육적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명숙 (2011).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철학적 고찰 2. **새한철학회**, 64, 43-69.
- 김보록 (1987). 미사의 영성.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79), 148-156.
- 김복순 (2007). **손 마사지가 부인암 수술환자의 심리적, 생리적 불안반응에 미치는 효과**. 인천, 한국: 가천의과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분한 (1997).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케어의 일례. **대한간호협회**, 36(3), 32-37.
- 김분한, 김금자, 박인숙, 이금재, 김진경, 홍정주, 이미향, 김영희, 유인영, 이희영 (1999).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Giorgi, Colaizzi, Van Kaam방법을 중심으로. **한국간호과학회**, 29(6), 1208-1220.
- 김상용 (2012). **회심의 관점에서 본 우리 시대 영성의 비판적 고찰**. 부산, 한국: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류 (2006). **청소년을 위한 사목상담 연구: 실존주의 상담을 중심으로**. 수원, 한국: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성봉, 오옥선, 김선미 (2011). 고3 수험생들의 입시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 **한국청소년학회**, 18(3), 153-177.
- 김성자 (2015). 호스피스 완화병동 간호사의 죽음불안 및 임종간호태도.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27(1), 23-34.
- 김순이, 이정인 (2013). 제가 노인의 자기초월, 영적안녕, 죽음불안. **한국보건간호학회**, 27(3), 480-489.
- 김세은 (2015). **암환자의 불안 감소를 위한 만다라 미술치료 사례연구**. 대구, 한국: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세원 (2009). 노년기 영성이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아통합 감의 매개효과와 검증. 서울, 한국: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연숙, 김지미 (2009). 노인의 사회인구적 특성과 죽음불안: 죽음불안의 세부영역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 29(1), 275-289.
- 김영천 (2016). **질적연구방법론 I**.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용일 (2011). 실존철학에 나타난 기독교의 인간이해: 키르케고어를 통한 기독교적 인간이해. **새한철학회**, 64, 129-149.
- 김용태 (2007). 초월의 기초로서 실존주의 심리치료.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13, 100-125.
- 김용환, 최금주, 김승돈 (2009). 한국에서의 영성 관련 연구 동향분석 및 학문적 합의. **한국상담학회**, 10(2), 813-829.
- 김웅지 (2017). **기독교인의 죽음 불안 및 죽음 준비에 미치는 영향연구: 농촌 지역 중년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 총신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지 (2005). **노인의 종교정향이 죽음에 대한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인석 (2010). 신앙체험과 현상학적 해석학: 전기 하이데거 사유의 근본동기에 대한 탐구. **한국현상학회**, 46, 1-34.
- 김인자 (1984). **죽음에 대한 심리적 이해**.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 김정우 (1982). **죽음과 삶: 그리스도교적 죽음이해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현 (2009). 프랑클의 실존분석과 로고테라피, 그 이론적 기초. **철학연구회**, 87, 57-83.
- 김정현 (2012). 알름의 실존적 심리치료와 니체사상. **한국니체학회**, 22, 129-159.
- 김정현 (2014). 현대에서의 죽음의 의미.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5(2), 77-100.
- 김준연 (1999). 종교현상의 연구와 현상학적 방법. **나사렛대학교출판사**, (2), 123-145.
- 김중남, 김중훈, 박은영, 유은승, 이명선 (2010). 치료중인 암 환자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관한 포커스 그룹 연구. **성인간호학회**, 22(1), 19-30.

- 김중수, 강대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200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김종은 (1980). 죽음의 정신의학적 고찰.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사목), 21-28.
- 김창수 (2013). 노년기 죽음불안에 대한 목회적 돌봄: Erik H. Erikson의 생애 주기이론과 Paul Tillich의 실존주의적 관점. 경기, 한국: 한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춘경, 이수연, 이윤주, 정종진, 최용용 (2010). 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김태련 (1988). 노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한국심리학회, 1(1), 30-47.
- 김태현, 손양숙 (1984).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연구. 한국노년학회, 4(1), 3-19.
- 김택훈 (2013). 토마스 머튼의 성서 이해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서울, 한국: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평만 (2008). 그리스도교 삶의 원천으로서 영성과 이성-신앙의 상호관계. 한국가톨릭철학회, 10, 95-121.
- 김형찬 (2015). 하이데거의 근본기분에 대한 고찰. 새한철학회, 81, 69-88.
- 김호경 (2007). 입원노인의 영적안녕과 죽음불안과의 관계. 부산, 한국: 고신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홍용 (2000). 실존주의 상담의 이론적 고찰. 신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5), 151-163.
- 김홍철 (2010). 자아통합감이 노인의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죽음준비도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대전, 한국: 목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련 (1990). 노인이 지각한 죽음에 대한 불안도: 유료 및 무료 시술과 재가 노인의 비교. 서울, 한국: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자 (2015). 여성 알코올중독자의 음주와 회복의 형상화. 서울, 한국: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곽지애 (2016). 죽음불안을 겪는 20대 여성의 사례연구. 연세대학교 상담코칭지원센터, 5, 9-33.
- 권석만 (2015). 현대 성격심리학: 이론적 이해와 실천적 활용. 서울: 학지사.
- 나성식 (2007). 질적 연구에 있어서의 현상학적 관점. 강원유아교육학회, 2007(1), 41-53.

- 나장함 (2006). 질적 연구의 다양한 타당성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 **한국교육평가학회**, 19(1), 265-283.
- 남희선 (2012). 죽음 수용 수준에 따라 죽음 공포가 삶의 의미 지각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경기, 한국: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은숙 (2009). 가톨릭 신자들의 종교적 성향과 성별 및 연령이 죽음공포와 죽음수용에 미치는 영향. 경기, 한국: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류성훈 (2003). 그리스도인의 종교성향과 종교적 대처가 영적안녕에 미치는 영향.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 문남숙, 남기민 (2008). 노인의 죽음준비도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 우울 및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 28(4), 1227-1248.
- 문남숙 (2009). 노인의 죽음준비 및 용서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우울 및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충북, 한국: 청주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문태언, 변상해 (2012). 노인의 종교활동 참여가 자기존중감 및 죽음불안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벤처창업학회**, 7(3), 115-120.
- 박경은, 권미형, 권영은 (2013). 여성노인의 우울, 죽음불안, 삶의 질의 관계. **한국보건간호학회**, 27(3), 527-538.
- 박선애, 허준수 (2012). 노인의 죽음불안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40(1), 59-88.
- 박성운 (2002). 실존주의 상담의 관점에서 본 교회청년의 신앙 수준과 삶의 목적의식 수준과의 관계. 대구, 한국: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소윤 (2017). 죽음불안과 외상 후 스트레스 관계 연구: 종교성의 효과에 대해. 대구, 한국: 대구사이버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민 (2007). 품위 있는 죽음. 서울, 한국: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윤자 (2008). 재가 노인의 죽음불안 요인 구조모형. 서울, 한국: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은경 (1995). 죽음불안 측정 도구 개발. 서울, 한국: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인순 (1993). 실존주의 철학을 통한 무용의 접근. 서울, 한국: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일영 (1999). **한국 무교의 이해**. 칠곡: 분도.
- 박원빈 (2006).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통한 일상의 성화: 소화 테레사의 「자서전」을 중심으로**. 대구, 한국: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준양 (2009). 영적 돌봄의 인간학적-신학적 의미. **한국가톨릭의료협회, 17**, 4-14.
- 박진규 (2010). **사도 바오로의 영성과 그리스도인의 삶**. 대전, 한국: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진석 (2012). **불안에 관한 실존적 물음에 대한 신학적 답변**. 경기, 한국: 성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재연 (2016). **노인의 종교 활동이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찬국 (2003). 실존철학의 인간이해. **철학사상, 16**(spc 1-2). 262-278.
- 박현준 (2011). 가톨릭교회의 죽음이해에 나타난 공동체성.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16**, 115-141.
- 박형국 (2013). 죽음의 망각과 기억, 그리고 삶의 완성. **한국종교학회, 72**, 1-27.
- 방효익 (2001). **영성사**. 서울: 바오로딸.
- 변중찬 (2011). 죽음의 공포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해. **신학과 사상학회, (68)**, 219-259.
- 부영호 (2006). **가톨릭 신자의 영적성장에 관한 발달심리학적 고찰**. 광주, 한국: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강대 (2006). **희생을 활용한 지지적 집단상담이 노인의 자아통합감, 무력감, 죽음불안,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경북, 한국: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배문한 (1980). 임종자를 위한 사목.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사목), 29-39**.
- 배상식 (2012). 질적 연구를 위한 '현상학적 방법'의 적용 문제.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8**(1).
- 배영기 (1993). **살아있는 사람들이 알고 싶은 죽음의 세계**. 서울: 교문사.
- _____ (2006). **죽음에 대한 문화적 이해**. 과주: 한국학술정보.

- 배우순 (2006). 실존과 죽음의 문제: M. 하이데거의 경우, **새한철학회**, 44, 127-146.
- 백승균 (2004). **호스피스 철학**.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 서현미 (2013). **노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불안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서울, 한국: 경북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혜경 (1987). 한미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노년학**, 7(1), 39-61.
- 서혜경 (1990). 성별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 비교 연구: 남, 녀 노인들의 임종과 죽음에 대한 불안도 측정을 중심으로. **한국보건교육학회**, 7(2), 89-102.
- 서혜경 (2007). 죽음불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4(1), 109-125.
- 서혜경, 윤민석 (2008). 성별과 배우자 유무가 죽음불안도 4가지 세부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39, 249-271.
- 서혜경 (2009). **노인죽음학개론**. 서울: 경춘사.
- 송병숙 (2012). **노인의 종교활동, 삶의 만족도 및 죽음불안과의 관계**. 대구, 한국: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용민 (2005).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향한 성체성사에 대한 이해. **인천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7), 175-215.
- 송용민 (2014). 현대의 '피로사회' 속에서 가톨릭 신앙 감각의 회복. **한국가톨릭신학학회**, 25, 1-52.
- 송종례 (2004).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영성. **신학과 사상학회**, (51), 300-329.
- 신경림, 고명숙, 공병혜, 김정선, 김미영, 김은하, 노승욱, 노영희, 양진향, 조명옥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신동휘 (2016).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을 통한 인간본연의 정체성 확립: '원 고독'(Original Solitude)을 중심으로**. 인천, 한국: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은영 (2005). 노인의 건강신념에 따른 죽음불안. **한국노인복지학회**, 29, 309-330.
- 신은주 (2011).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간호학생의 생의 의미, 죽음불안 및 임

- 중간호 태도에 미치는 영향.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2(3), 65-74.
- 신승환 (2013). 죽음에 대한 인간학적 성찰. **한국가톨릭철학회**, 20, 209-236.
- 심상태 (2000). **제삼천년기의 한국교회와 신학: 새 천년대를 위한 신앙이해**. 서울: 바오로딸.
- 안남희 (2016). **알름의 실존주의 심리치료에서의 죽음 이해: 토마스 베른하르트의 소설 「호흡」을 분석 사례로**. 대구, 한국: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지훈 (2017).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파스카 신비: 가톨릭 장례예식서의 고별식을 중심으로**. 인천, 한국: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혜정 (1991). **내외통제성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노인의 죽음불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미성 (2003). **한국인의 영성체험 연구**. 광주, 한국: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진탁 (2006). 생사학의 죽음이해. **철학연구회**, 75, 153-178.
- 우리신학연구소 (2010). **성체성사를 살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우리신학연구소, 9, 3-4.
- 우미리 (2014). 실존주의와 심리치료. **국제기독교언어문화연구원**, 17, 155-187.
- 우재명 (2007). 그리스도인의 죽음이해와 극복: 한국 전통종교의 죽음이해와 비교하여. **서강대학교 비교사상연구원**, (11), 1-17.
- 유기영 (2004). **영성상담(靈性相談, Spiritual Counselling)의 의미와 고찰**. 광주, 한국: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진호 (2017). **그리스도교 영성 생활을 통한 치유의 가능성 모색**. 수원, 한국: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창근 (2002). **미사성체를 통해 바라본 현대 그리스도인의 영성**. 광주, 한국: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혜령 (2013). 현상학적 질적 연구에 대한 오해와 이해: 연구 논리와 연구 기법 사이에서 길 찾기. **한국교육현상해석학회**, 10(1), 5-31.
- 윤가현, 오미성, 권혜란 (2007). 죽음의 불안과 노화과정. **한국노년학연구**, 16, 157-171.

- 윤남숙 (1994). 노인의 성격유형과 죽음 불안도에 대한 태도 연구. 서울, 한국: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영선 (2013). 가족치료를 위한 실존주의 심리치료 집단경험자의 영성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존재실현으로의 초대」 참여자를 중심으로. 경기, 한국: 서울신학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정현 (2004).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사랑: 칼 라너의 그리스도론에 대한 발타살의 물음 H. U. von Balthasar의 신학사상을 중심으로. 부산, 한국: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종식 (2013). 천주교의 죽음에 대한 이해와 장례예식에 대한 고찰, 그리고 사목적 모색. **한국가톨릭신학학회**, 23, 1-38.
- 윤창신 (2008). 그리스도교 영성의 토착화 연구: 한국인의 종교 심성을 중심으로. 광주, 한국: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현숙, 임연옥, 고운순, 범경아 (2015). 노인의 영성, 사회적지지, 우울이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53, 229-254.
- 윤호진 (1997). 불교의 죽음 이해. **신학과 사상학회**, (21), 5-25.
- 이경열 (2006). 영성 증진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한국심리학회**, 18(4), 779-800.
- 이규성 (2014). 십자가 영성과 신학. **신학과 사상학회**, (73), 286-337.
- 이근영 (2017). 긍정심리자본이 죽음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기숙 (2001). 중, 노년기 가족대상의 '죽음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적 고찰(1). **신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5), 107-134.
- 이기홍 (2009). 한국인의 죽음 수용과 종교. **한국조사연구학회**, 10(3), 131-156.
- 이남인 (2005). 현상학과 질적 연구방법. **한국현상학회**, 24, 91-121.
- (2015). **현상학과 질적 연구: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 파주: 한길사.
- 이덕형 (2015). **환난과 위로: 성 바오로 사도의 십자가 영성 안에서**. 서울, 한국: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대순 (2014). **공황장애, 그 죽음 불안을 넘어서: 공황장애의 실존적 불안에 대한 기독교상담**.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명곤 (2016). **토미즘의 생명사상과 영성이론: 초자연적 실재론**. 대구: 경북대

학교 출판부.

- 이부영 (2011). **분석심리학: C. G. 융의 인간심성론**. 서울: 일조각.
- 이상빈 (2015). **죽음에 대한 인식과 죽음불안의 관계**. 전북, 한국: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선관 (1996). 현상학적으로 사유함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한국현상학회**, 8, 11-58.
- 이선아 (2013). **존재론적 사유를 통한 삶과 죽음의 표상**. 서울, 한국: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숙주 (2010). **중년기의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전, 한국: 침례신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균, 이한교, 김동림 (1993). **腦死: 죽음의 시점에 관한 의학적, 윤리적, 법적 문제**. 서울: 일조각.
- 이영순 (2010). **노인의 죽음준비와 죽음불안에 관한 연구**. 전북, 한국: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준 (2004). **현대 그리스도교 영성과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 고찰**. 부산, 한국: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화 (1997). **죽음준비교육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경 (2002). **노인의 죽음불안에 미치는 성격특성, 내외통제성 및 대처방식**. 서울, 한국: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주 (2010). 하이데거에서 죽음의 의미와 웰-다잉(well-dying)의 문제. **새한철학회**, 59, 245-267.
- 이을상 (2006). **죽음과 윤리: 인간의 죽음과 관련한 생명윤리학과 논쟁들**. 서울: 백산서당.
- 이이정 (2004). **노인 학습자를 위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한국: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인복, 강신주, 김지연, 이은경, 이병순, 황영미, 송경란, 김영주, 장미영, 김현주 (2002). **한국문학에 나타난 죽음**. 서울: 예림기획.
- 이일구 (1972). 생물학적 죽음과 종교적 죽음. **대한기독교서회**, 16(4), 33-39.

- 이예종 (2005). 노인의 죽음준비인식과 죽음불안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기 (2007). 존재의 바다에 던진 그물: 실존과 영성, 그리고 시. 한국독서치료학회, (5), 67-88
- 이지영 (2004). 죽음에 대한 노인의 인식 연구. 서울, 한국: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찬 (2017).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서울, 한국: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찬수 (2010). 죽음의 영성: 영혼론을 중심으로. 우리신학연구소, 9, 177-188.
- 이창진 (2012). 성령 세미나의 효과와 영성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 경기, 한국: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철민 (2005). 그리스도교 은총 이해 안에서 본 케노시스. 부산, 한국: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필선 (2006). 종교생활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부산, 한국: 신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혁규 (2004). 질적 연구의 타당성 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교육인류학회, 7(1), 175-210.
- 이혜윤 (2012). 그리스도 신앙과 인간의 상관성 연구: 토마스 머튼의 인간이해를 중심으로. 수원, 한국: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희재 (2008). 죽음에 대한 유교의 인식. 한국공자학회, 15, 119-130.
- 임송자 (2012). 죽음준비교육이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불안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충남, 한국: 호서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원동성 (2011). 의미치료 관점에서 바라본 그리스도교 영성상담에 대한 고찰. 대전, 한국: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현규 (2000). 후설의 현상학적 심리학: 「심리학」과 「위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철학과, 28, 193-216.
- 장경숙 (2003). 시설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연집 (2005). 죽음에 대한 실존적 불안과 고통완화를 위한 통합적인 심리적 접근

- 근 가능성.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5(1), 23-41.
- 장인산 (2003). 교황의 가르침에 따른 거룩한 묵주기도. **대전가톨릭대학교**, (4), 46-88.
- 장철수 (1999). 유교의 죽음관. **전주대학교 인문과학종합연구소**, 88-91.
- 장휘숙, 최영임 (2007). 대학생과 노인의 죽음공포와 죽음불안 및 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인간발달학회**, 14(4), 105-122.
- 전영국 (2017).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면담 및 심층면담에 관한 비교 고찰. **한국열린교육학회**, 25(1), 147-168.
- 전영기 (2000). 노년기 죽음불안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대전, 한국: 목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달용 (1980). 철학적으로 본 죽음: 그리스도인의 죽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목)**, 14-20.
- 정동섭 (1999). 죽음에 대한 일반적 고찰과 노년기의 죽음을 위한 교회사역. **한국복음주의신학회**, 26, 408-451.
- 정동호 (1986). **죽음의 철학: 현대철학의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 청람.
- 정동호, 이인석, 김광윤 (1997). **죽음의 철학: 현대 철학의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 청담.
- 정동호, 김귀룡, 조대호, 김정현, 백승영, 박찬국, 신옥희, 안상현, 이정우, 박원재, 정상봉 (2004). **철학, 죽음을 말하다**. 서울: 산해.
- 정상원, 김영천 (2014). 질적 연구에서의 현상학적 글쓰기의 전략과 방법의 탐구.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3), 5-42.
- 정성윤 (2012). **영성지도 안에서 살피본 하느님 체험의 중요성**. 서울, 한국: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성호 (2011). **Well-dying: 가톨릭적 죽음준비교육 연구**. 대구, 한국: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운경 (2015). **웰다잉 프로그램과 노인의 삶의 질, 죽음불안과 자아통합감의 관계연구**. 서울, 한국: 서울벤처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인상 (2007). 그리스도교의 죽음이해와 부활사상. **인천가톨릭대학교출판부**, (22), 59-108.

- 정정숙 (1993). 죽음과 임종에 관한 상담. **한국상담선교연구원**, 1(1), 34-62.
- 정재현 (2009). 죽음에 대한 철학적, 종교적 이해: 삶과 죽음의 역설적 얽힘을 향하여. **한국가톨릭철학회**, 12, 291-319.
- 정제천 (2009). 그리스도교 기도의 이해와 실천.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164), 115-142.
- 정현주 (2010). 초기치매남편을 수발하는 배우자의 경험: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서울, 한국: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화영 (2006). 헨리 나우웬(Henri J. M. Nouwen)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이해. 대전, 한국: 침례신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규만 (1997). 그리스도교의 죽음이해. **신학과 사상학회**, (21), 57-111.
- 조옥진 (2005). 영성과 심리상담: 영성심리상담 입문서. 서울: 가톨릭출판사.
- 조옥진 (1996). 성격유형과 그리스도인의 영성. 광주: 생활성서사.
- 조지연 (1989). 죽음에 대한 불안태도 연구: 서울거주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주영일 (2013). 교회의 사명으로서 임종자에 대한 역할과 실천적 과제: 죽음에 대한 이해와 호스피스를 중심으로. 광주, 한국: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영이 (2008). 노인의 죽음인식 및 죽음 준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영철 (1989). 십자가에 대한 신학적 이해 1.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사상연구소**, (3), 109-149.
- (1991). 십자가에 대한 신학적 이해 2.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사상연구소**, (4), 69-106.
- 최외선 (2007). 노인의 자아통합감과 죽음불안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27(4), 755-773.
- 최준석 (2011). 십자가의 성 요한의 작품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느님 현존과 기도. 광주, 한국: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혜연 (2014). 긍정과 부정의 경계에서 만나는 감정, 희망.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7), 7-35.

- 천선영 (2000). 죽음과 종교: 오늘 종교가 죽음의 문제에 대해 '다시' 주목해야 하는 사회학적 이유에 대하여. **한국가톨릭사회과학연구회**, 12(1), 135-153.
- 천혜정 (2004). 연구 방법으로써의 질적 인터뷰: 철학적 의미와 방법적 측면.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8(3), 113-125.
- 하창순 (2013). 그리스도교 교회의 인간성 고찰: 가톨릭 심리·영성이해를 중심으로. **한국실천신학회**, 34, 241-268.
- 하학봉 (2015). **영성과 죽음불안과의 관계**. 서울, 한국: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기태 (1989). Rollo May의 實存心理學的 人間關과 그 相談學的 意義. **고신대학교**, 18(1), 31-76.
-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2002). **한국 가톨릭 대사전 제9권**.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 한동성 (2008). **천주교 신자의 노년기 종교성에 관한 연구**. 충남, 한국: 한서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미정, 최정윤 (1999). 삶의 의미수준과 죽음불안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11(2), 167-181.
- 한미정 (2001). **대처방식, 내외통제성, 자아존중감에 따른 죽음불안의 발달적 고찰**. 서울, 한국: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석실 (2010). 질적 연구방법의 질에 대한 쟁점 고찰.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16, 5-44.
- 허홍 (2008). **그리스도인의 죽음의식 정립을 위한 교육방안 연구**. 인천, 한국: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경자 (2013). 실존철학의 죽음이해.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35, 9-37.
- 홍성하 (2002). 질적 연구와 현상학. **대동철학회**, 19, 209-225.
- 홍은미, 전미덕, 박은심, 류은정 (2013). 암 병동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인식, 죽음불안, 임종 환자간호 태도. **대한중양간호학회**, 13(4), 265-272.
- 홍진국 (2010). **인간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고찰: 철학 및 타종교와 그리스도교의 죽음 이해를 중심으로**. 광주, 한국: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푸르메 (2013). **실존주의 심리학 관점에서 본 미술치료: 죽음과 불안을 중심으로**. 대구, 한국: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황현 (1995). **巫俗과 가톨릭의 장례식 비교 연구**. 수원, 한국: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소근 (2018. 3. 18). **안소근 수녀와 떠나는 구약여행: ‘떡어라, 벗들아. 마셔라, 사랑에 취하여라.’**. 가톨릭평화신문.
http://www.cpbk.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613996&path=201601에서 2018. 3. 19. pm 5:7 인출
- 연합뉴스 (2017). **신자와 무신론자중 누가 죽음을 더 두려워하나? ‘차이 없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30/0200000000AKR20170330131900009.HTML?input=1195m> 에서 2017. 8. 8. pm 1:25 인출
- 황창연 (2016). **가톨릭 특강 「죽음 겨안기」 1-9부**.
<https://www.youtube.com/watch?v=zuM8zoXe4FQ> 에서 2018. 2. 2 pm 12:4 인출
- 김철빈 (2018). **회심하는 인간: 영적합리와 하느님의 뜻**(송봉모 신부님 묵상 글).
http://club.catholic.or.kr/peter/bbs/board/read.asp?maingroup=2&gubun=100&seq=6&table=gnboard&group_id=1&sub_id=2&RecHostc1e=&bbscode=&id=118643&keyfield=&key=&menunum=6&page=1&ifr= 에서 2018. 3. 28. pm 2:21 인출
- Abdel-Khalek, A. M. (2005). Death anxiety in clinical and non clinical groups. *Death Studies, 29*, 251-259.
- Abeloff, M. D., & Craig, T. J. (1974). Psychiatric symptomatology among hospitalized cancer pati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1*(12), 1323-1327.
- Allport, G. W. (1960). *Personality and Social Encounter*. Boston: Beacon Press.
- Ameisen, Jean Claude, Hervieu-Leger, Daniele, Hirsch, Emmanuel, Baudry, Patrick, Dupont, Bernard-Marie, Rebilard, Eric, Schaer, Roland. (2013). *Qu'est ce que mourir?.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김성희 역). 파주: 알

마: 문학동네.

- Augustinus (2016). Confessiones. **고백록**(성염 역). 과주: 경세원.
- Aumann Jordan, O. P. (1994). Spiritual theology. **영성신학**(이홍근 역). 칠곡: 분도. (1980년 원저 발간)
- Aumann Jordan (1998). Christian spirituality in the Catholic tradition. **가톨릭 전통과 그리스도교 영성**(이홍근, 이영희 공역). 칠곡: 분도.
- Bowe, B. E. (2013). Bible Reading in Spirituality: A Guide for Life's Travel. **영성으로 읽은 성경: 인생의 여행을 위한 지침서**(박은미, 이규명 공역). 서울: 성바오로.
- Bryson, K. A. (2004). Spirituality, meaning, and transcendence. *Palliative and Supportive Care*, 2, 321-328.
- Calvin S. H., Vernon J. N. (2004). (A)primer of Jungian psychology. **융 심리학 입문**(김형섭 역). 서울: 문예.
- Catholic Church (1996). Catechisme de l'Eglise catholique. **가톨릭교회 교리서**.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Chardin, de pierre teilhard (1997). (Le)phenomene humain. **인간현상**(양명수 역). 서울: 한길사. (1955년 원저 발간)
- Chardin, de pierre teilhard (2004). messe sur le monde from hymne de l'univers. **세계 위에서 드리는 미사**(김진택 역). 서울: 가톨릭대학교. (1961년 원저 발간)
- Cicirelli, V. (2002). *Older adults' views on death*. New York: Springer.
- Colaizzi. F. E.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 It*. In: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ed. Ronald S. Valle and Mark K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ooper, M. (2014). Existential therapies. **실존치료**(신성만, 가요한, 김은미 공역). 서울: 학지사.
- Corsini, R. J., & Wedding, D. (1998). Current psychotherapies. **현대 심리치료**(김정희 역). 서울: 학지사.

- Creswell, J. W. (201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3rd ed).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
- Deurzen, E. V. (2017). Existential counselling & psychotherapy in practice(3rd ed). **실존주의 상담 및 심리치료의 실제**(한재희 역). 서울: 학지사.
- Doka, Kenneth J, Morgan, John D. (2006). Death and spirituality. **죽음학의 이해: 죽음과 영성**(김재영 역). 고양: 인간사랑 (1993년 원저 발간)
- Donal, D. (1990). Spirituality and justice. **영성과 정의**(황종렬 역). 칠곡: 분도.
- Dowling, M. (2007). “From Husserl to van Manen. A review of different phenomenological approache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4(1), 131-142.
- Downey, M. (2001). Understanding christian spirituality. **오늘의 기독교 영성 이해**(안성근 역). 서울: 은성.
- Elkins, D. N., Hedstrom, L. J., Hughes, L. L., Leaf, J. A., & Saunders, C. (1988). Toward a humanistic-phenomenological spirituality.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28, 5-18.
- English, J. J. (1996). Spirituality freedom(2nd ed). **영적자유**(이건 역). 서울: 가톨릭출판사.
- Fiores, S. De (1996). (The)spirituality of modernity. 현대의 영성(주수욱 역). **신학과 사상학회**, (15), 257-292.
- Frankl, V. E. (2005). Man’s search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죽음의 수용소에서: 당신이 가진 최고의, 그리고 최후의 자유는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이시형 역). 과주: 청아.
- Franz, Marie-Luise von (2017). Traum und Tod: was uns die Träume Sterbender sagen. **꿈과 죽음 : 죽어가는 사람의 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한오수 역). 서울: 한국융연구원. (1999년 원저 발간)
- Greenberg, J., C Pyszczynski, T., Solomon, S., Simon, L., & Breus, M. (1994). Role of consciousness and accessibility of death related thoughts in mortality salience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627-637.

- Greshake, G. (1980). *Starker als der Tod: Zukunft Tod Auferstehung Himmel Holle Fegheuer*. **종말신앙: 죽음보다 강한 희망**(심상태 역). 서울: 성바오로.
- Grøn, Arne. (2016). *Begrebet Angst hos Søren Kierkegaard*. **불안과 함께 살아가기: 키에르케고어의 인간학**(하선규 역). 서울: b.
- Grun Anselm (2009). *Was Kommt nach dem Tod?*. **죽음 후에는 무엇이 오는가?**(김선태 역). 서울: 바오로딸. (2008년 원저 발간)
- Heidegger, Martin. (1993). *Sein und Zeit*. **존재와 시간**(이기상 역). 까치글방.
- Hickson, H. & Boyle. (1998). The relationship of locus of control, age and sex to life satisfaction and death anxiety in older person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6, 191-199.
- Jerome, G. & Ted, G. (2008). *State of the future*. **(미리 가본 2018년) 유엔미래보고서**(박영숙 역). 서울: 교보문고.
- Joel, G. (2008). *Being the Shadow of God: Living in Union with God*. **하느님의 그림자가 됨: 하느님과 일치 안에 사는 삶**(이건 역, 2011).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172)**, 135-146.
- Kaam, A. V. (1995). *In search of spiritual identity*. **영성적 정체성을 찾아서**(황중렬 역). 서울: 국태원.
- Kalish, R. A., & Reynolds D. K. (1976). *Death and Ethnicity: A Psychocultural Study*.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ress.
- Kastenbaum, R. (1992). *The psychology of death*(2nd ed). New York: Springer.
- Kierkegaard, S. (1996). *Begrebet angst: (Die)Krankheit zur Todi*. **불안의 개념: 죽음에 이르는 병**(이명성 역). 서울: 홍신문화사.
- Kübler-Ross, Elisabeth (1997). *On death and dying*. **인간의 죽음: 죽음과 임종에 관하여**(성염 역). 서울: 분도. (1969년 원저 발간)
- Kvale, Steinar (1998). *Interviews: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인터뷰: 내면을 보는 눈**(신경림 역). 서울: 하나의학사.
- Ladislauß boros (2004). *spirituality*. **영성**(백순희 역). 칠곡: 분도출판사.

- Loneragan, Bernard (2005). Grace and freedom. **은총과 자유**(김을 역). 서울: 가톨릭 출판사.
- Marshall, T. (1991). *Healing From The Inside Out: Understanding God's Touch For Spirit, Soul and Body*. Lynnwood, Washington: Rmerald Books.
- Matthew Fox (2001). Original blessing. **원복: 창조영성 길라잡이**(황종렬 역). 칠곡: 분도출판사. (1983년 원저 발간)
- Mondin, B. (2001). Antropologia Filosofica. **인간: 철학적 인간학 입문**(허재운 역). 서울: 서광사. (1983년 원저 발간)
- Morin, E. (2000). (L')Homme et la mort. **인간과 죽음**(김명숙 역). 서울: 동문선.
- Nelson-Jones, R. (2016).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6th ed). **상담 및 치료의 이론과 실제**(김성봉, 황혜리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Nietzsche, F. W. (2002). Also sprach Zarathustra.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정동호 역). 서울: 책세상
- Nouwen, H. J. (2006). Our greatest gift. **죽음, 가장 큰 선물: 죽음을 맞이하는 일과 죽어가는 이를 돌보는 일에 관한 묵상**(홍석현 역). 서울: 홍성사. (1994년 원저 발간)
- Papalia D. E., Olds S. W., Feldman R. D. (1992). Human Development 2. **인간발달 2**(정옥분 역). 서울: 교육과학사.
- Richards P. S., Bergin A. E. (2011). Spiritual strategies for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상담과 심리치료를 위한 영성적 전략**(박현민 역). 서울: KCCPA. (2005 원저 발간)
- Qrtiz, Gloria Polo (2009). (Der)Blitz hat eingeschlagen. **벼락을 맞았습니다: 나를 살리신 하느님**(차 베네딕토 역). 부산: 아베마리아.
- Rahner, K. (1982). Theologie des Todes. **죽음의 신학**(김수복 역). 서울: 가톨릭 출판사. (1961년 원저 발간)
- Rajneesh, B. S. (1983). (The)art of dying. **죽음의 예술**(변지현 역). 서울: 청하.
- Sanford, John A (2006). Healing body and soul. **영혼과 육체의 치유**(문종원

- 역). 서울: 생활성서사.
- Seidman, I. (2009).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for researchers in education and the social sciences*(3rd ed). **질적 연구방법으로서의 면담: 교육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을 위한 안내서** (박혜준, 이승연 공역). 서울: 학지사. (2006 원저 발간)
- Silvio, J. B. (2006). *La Risposta Di Dio Nel Libro Di Giobbe: Dialogo e Visione*. 욕기에 나타난 하느님의 답변: 대화와 현시(이건 역, 2008).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160)**, 108-125.
- Spinelli Ernesto (2007). *Practising Existential Psychotherapy: The Relational World*. London: Sage Publications.
- Templer, D. I. (1970). The Constuction and Validation of a Death Anxiety Scal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82*, 166-177.
- Thorson, J., & Powell, F. (1990). Meanings of death and intrinsic religiosi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6*, 379-391.
- Thorson, J., & Powell, F. (1992). A revised death anxiety scale. *Death Studies, 16*, 517-531.
- Tomer, A. (1994). Death Anxiety in Adult Life-Theoretical Perspectives. In R. A. Neimeyer (ed.). *Death Anxiety handbook: Research, instrumentation, and application*.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Vanier, Jean (2010). *Becoming human*. **인간되기**(제병영 역). 서울: 다른우리. (1998년 원저 발간)
- Vorgrimler, H. (1998). (Der)tod im Denken und Leben des Christen. **죽음: 오늘 의 그리스도교적 죽음 이해**(심상태 역). 서울: 바오로딸.
- Ward, R. A. (1983). *Old people and society*. **노인과 사회**(최신숙, 김종숙 공역). 서울: 고시연구소. (1979년 원저 발간)
- Weismayer, J. (1996). *Leben in Fulle Zu Geschichte und Theologie christlicher Spiritualitat*. **넉넉함 가운데서의 삶: 그리스도교 영성의 역사와 신학** (전현호 역). 왜관: 분도.
- Yalom, I. D. (2007). *Existential psychotherapy*. **실존주의 심리치료**(임경수 역).

- 서울: 학지사. (1980년 원저 발간)
- _____ (2005). (The)gift of therapy: an open letter to a new generation of therapists and their. **치료의 선물: 새로운 세대의 상담자와 내담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최웅용, 천성문, 김창대, 최한나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2년 원저 발간)
- _____ (2006). Momma and the meaning of life: tales of psychotherapy. **플라와의 여행: 삶과 죽음, 그 실존적 고뇌에 관한 심리치료 이야기**(이혜성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1999년 원저 발간)
- _____ (2006). (The)Schopenhauer cure: a novel. **쇼펜하우어, 집단심리치료**(이혜성, 최윤미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5 원저 발간)
- _____ (2010). (The)Yalom reader: selections from the work of a master therapist and storyteller. **알롬을 읽는다: 알롬의 대표작 모음집**(최한나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1998년 원저 발간)
- _____ (2014). Staring at the sun: overcoming the terror of death. **보다 냉정하게 보다 용기 있게**(이혜성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8년 원저 발간)
- _____ (2014). Love's executioner, and other tales of psychotherapy. **나는 사랑의 처형자가 되기 싫다**(최윤미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1989년 원저 발간)
- _____ (2014). When Nietzsche wept.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임옥희 역). 서울: 필로소픽 (2003년 원저 발간)
- _____ (2015). Creatures of a day: and other tales of psychotherapy. **삶과 죽음사이에 서서**(이혜성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Yalom, I. & Elikin, G. (1974). *Every Day Gets a Little Closer: A Twice-Told Therapy*, New York: Basic Books.
- Zimmermann, Franz. (1990). Einfuehrung in die existenzphilosophie. **실존철학**(이기상 역). 서울: 서광사. (1977년 원저 발간)

<Abstract>

**Phenomenological study
on Death Anxiety Experience of Catholic Believers**

Kim, Yun-Mi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g-Bong

This study was conducted by a phenomenological study method to understand the context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mplex reality of the unique subjective life world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for the purpose of searching the experiences of death anxiety of Catholic. The research question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is 'What is the experience of death anxiety among Catholics?' Participants selected from the intentional sampling were from fifties to sixties with death anxiety. A total of 8 participants were living in Jeju City. They voluntarily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and made in-depth interviews. It lasted for four month: December 2017 to mid-March 2018. The researchers gathered data through interviews until the data was saturated with the research topic. Data analysis adopted the phenomenological method of Colaizzi (1978), which is suitable for analyzing the universal nature of participant experience.

The results were classified into 53 meanings, 21 sub - categories, and 10 categories. The ten categories derived are 'Facing unseen uneasiness' , 'I

am all in the world and myself...’ , ‘Change from oblivion of death to cognition’ , ‘Transformed into a new human form’ , ‘I, others, and God are one’ , ‘Religious life: thanksgiving and time of comfort’ , ‘Expansion of Self-Openness to Death’ , ‘Memento Mori’ , ‘Me, the tool of God, and a loving being.’

The following is a description of Catholic who have experienced death anxiety. First, the Catholics felt that the anxiety of death in the face of death was not only a psychological response, but also of mental confusion due to fear and uncertainty that they might die. The experience of facing the death that anticipates the disappearance of these beings can confirm that their death hall was negative, and that they have not been able to accept death as a part of their life and have been avoided or forgotten. Participants were faced with obstacles and limitations in their inner face by facing death, and they showed faith behavior in relief faith as they learned from the culture of life and culture of the present age. However, this negative experience of death anxiety brought about a change of life (faith) to the participants. The meaning and purpose of life is the expansion of the identity of ‘we’ as the bond of God, me, family, others, and community. Furthermore, in the final stage of this study, ‘death anxiety experience model’ was derived. It contains the nature of death anxiety in its structure and visually constitutes the whole process of death anxiety until reaching a positive effect. Through the help of God (mercy), he himself, “I who lives in the image of a new human being” , is transformed into a whole self through a strong will of change in God.

This study examined the experiences and anxieties of the participants by examining the conditions and contexts of life surrounding them in order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death anxiety of Catholic.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understand the anxiety of death and the spiritual nature of Catholics to the modern believers who are not aware of death anxiety related death. In addition, it has given the necessity of

education of death anxiety combined with existentialism psychotherapy (counseling) and spiritual counseling. We propose a small group sharing with the experience of death anxiety as a measure for existential awareness of death anxiety with universality as a unique phenomenon of human existence.

Key words: Death anxiety, Existential psychotherapy, Spirituality, Qualitative study(or Research), Phenomenology

[부록]

연구참여동의서

- 연구주제: 가톨릭신자들의 죽음불안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지도교수: 김성봉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교수)
- 연구자: 김윤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석사과정)
- 연락처: 010-○○○○-○○○○ / e-mail: kymmf@daum.net

‘본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가톨릭신자들이 죽음직면 사건으로 말미암은 죽음불안 경험이 무엇인지를 현상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죽음에 대한 올바른 성찰뿐만 아니라 실존주의 심리치료와 영성상담을 바탕으로 죽음불안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고 활용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2. 면담 진행 및 일정

면담은 3회 면담(1회, 90분소요 예정)과, 추수면담(추가질문에 대한 면담)을 연구자가 하는 동안 연구참여자인 선생님의 성장배경과 가톨릭신자로서 죽음직면 과정에 따른 죽음불안 경험과 관련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연구 참여는 자발적인 것이며 면담 도중에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단하실 수 있으며 어떤 불이익도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3. 녹음 및 자료의 활용범위

면담의 내용은 녹음되며, 대화 내용은 연구의 목적이외에는 공개되거나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가 끝나면 바로 폐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기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이 있을 때에는 미리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4. 연구참여자의 권리

1) 인간 존엄의 권리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품위를 지닌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할 것입니다. 또한 면담 중에 진실성과 예의를 갖춰 경청할 것이며,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심리적, 물리적으로 불편하신 점이 계실 때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비밀보장 및 사생활 보호의 권리

연구자는 면담 대화중에 나타나는 참여자의 실명이나 개인신상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참여자와 가족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연구종료 후 면담기록과 자료를 바로 폐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3) 적극적 의사표현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 권리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의사와 감정을 최대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할 것이며, 면담 진행 동안 불편하신 점이 있을 시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어떠한 비용이나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4) 연구참여 중단 및 철회의 권리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인 선생님께서 면담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인 선생님께서는 연구의 목적과 면담일정에 대하여 이해하였으며 연구자인 김윤미와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연구참여자 본인은 연구 참여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자

(서명)